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9월 9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89 호

원우회의 자비행

"참으로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물질의 크기보다 마음의 나눔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총무원에 근무하는 종무원들의 신행활동과 친목도모를 위해 결성된 원우회(회장 전형근, 교육원 교육과장).

원우회는 94년 11월 창립한 이후 매월 2회의 정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기법회를 비롯한 성지순례 등을 통한 신심증장, 회원들의 부조사업과 포교 및 교육·문화 산양사업, 불교적 소양의 수련을 위한 사업 등을 결치고 있다. 이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업에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자비문중의 대들보임을 자부하는 이들의 자비행이 밝은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소년소녀가장 7명과 무의탁노인 1명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회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넉넉해



서 이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전형근 과장의 말이다.

총무원청사 현관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는 총무원청사 5층 법당에 연등달기 운동을 결쳐 회원들이 직접 만든 연등을 달았다. 전철정액권 판매도 실시했다. 큰 돈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등을 판매해서는 3백여만원을 모았다. 정액권 판매이익금은 한달에 교작 5만원 안팎.

'온갖 세계는 오직 하나의 마음뿐(화엄경)' '마음은 온갖 것을 만드는 기술자와 같다(입능가경)'고 했다. 종무원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한 스님이 총무원에 근무하며 받은 월급 전액 1천만원을 선뜻 내놨다. 이제 1천4백여만원 가량의 이웃돕기 기금이 마련됐다. 이 기금의 이자로 매달 8명의 소년소녀가장과 무의탁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

"마음은 자꾸 커지고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청정승가 만들자"

5일 승-재가단체 '불교도 참회법회'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 열기로

청정승가의 기풍을 새롭게 다지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승단의 자정을 발원하는 대규모 집회가 5일 조계종 총무원 앞마당에서 열렸다. 또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주지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화이념의 계승과 승풍쇄신을 결의하는 대규모 집회도 이달말이나 10월 초에 열린다.

불교인권위원회, 석림회, 선우도량등 7개 승기단체와 우리는 선우, 경불련, 동산반아회등 8개 재가단체는 5일 '청정승가를 기원하는 불교도 참회법회'를 갖고 지난달 발생한 '도박승' 사건과 관련한 승단의 참회와 자정의지를 다졌다. 이날 법회는 1천80배 정진과 참회문, 발원문 낭독 선명서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삼보의 정재를 훼손하며 승단의 위의를 실추하여 스스로 사자의 몸을 갉는 무서운 죄업을 그치게 해 달라"고 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승려도박 사건과 꼬리를 무는 해불사건, 문화재 도난 사건 등에 대한 종단적 대처 의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화이념 계승과 승풍쇄신을 위한 조계종 지도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대회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은 총무원이 면밀한 검토 후에 정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회의에서 "승단의 기강이 헤이해진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틈을 타서 이교도에 의한 해불이 연발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최근의 불미스런 사태들을 두고 집행부가 회의를 거듭해 9월말이나 10월초에 대규모 대회를 갖는 방안을 미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회는 정화이념의 계승, 승풍쇄신, 승가의 자정노력과 종단 위상제고에 초점이 맞춰진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승풍 실추행위 강력 단속 예방

조계종 호법국장회의

조계종은 스님들의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펴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3일 오후2시 제5회 교구호법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종교관행 사례와 해불행위에 대한 예방과 기민한 대처를 위한 업무 유지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임연태 기자

농지법 시행규칙 곧 입법화

빠르면 다음달 전통사찰 농지취득 가능

빠르면 다음달부터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은 2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98년 12월11일자로 불자국회의원 47명이 의원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취하될 경우 곧바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것"이라며 "현재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의 취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므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종단내 전통사찰은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조계종 전통사찰이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30여만평의 농지가 해당 사찰 명의로 변경등록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정의하는 동법 제4조의 공공단체 범위 제6항에 '민족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사찰 고유의 목적을 위해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경내지에 안근한 농자의 취득을 필요로하는 전통사찰'을 규정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 3일 원적



태고종 제15세 종정 보성당 두석 대종사가 3일 오후3시40분 신촌 봉원사 운수각에서 좌탈입망에 들었다. 세수 92세, 법랍 79세.

보성스님은 원적에 들기 며칠전 원주 보림사에서 서울 봉원사로 거처를 옮겨 종단 간부들과 제자들을 불러 "종단의 화합과 불교발전에 힘쓰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졌다.

스님의 영결식은 종단장으로 7일 봉원사에서, 다비식은 그동안 주석해 온 원주 치악산 보림사에서 각각 엄수됐다.

보성스님은 1919년 강원도 건봉사에서 보련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국대 총장, 종승위원장, 중앙종회의장, 제12, 14, 15세 종정을 역임했다. <보성스님 행장 2면> 드림선 기자 (psdo@buddhapia.com)

열반송

법과 나를 모두 다하니
이것이 멸도이니라

除盡法我是滅度(제진법아시멸도)
淸淨無餘是聖心(청정무여열반심)
習氣煩惱永不生(습기번뇌영불생)
方便生死大解苦(방도생사대해고)

법과 나를 모두 다하니 이것이 멸도이니라
남김없이 청정함이 열반심이요
습기와 번뇌가 영원히 생겨나지 않으면
바야흐로 생사대해고를 건넘이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일 김대중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청와대에서 제2건국 운동 동참의 뜻을 밝혔다.

"제2 건국운동에 동참을"

월주스님-김대통령 1일 청와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1일 김대중대통령의 오찬초치를 받고 청와대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국난극복을 위한 제2의 건국운동에 불교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 수해때 불교계가 자원봉사자들을 수재현장에 보내 지원 활동을 한 것과 불교방송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찰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사찰피해가 상당하다며 "대통령께서 불교방송등에 수재의연금을 보내 주는 등 불교계에 관심을 보여 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제2건국 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불교계 차원의 동참의지를 피력했다. 임연태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9월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여주 신륵사, 고달사지, 목아박물관을 찾아갑니다.

이번 기행에서는 불상을 비롯 회화·공예·민속품 등이 전시돼 있는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에서 하나의 나무가 불상이 되기까지의 제작과정을 알아봅니다.

탑을 구성한 벽돌의 무늬가 수려해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다층전탑(보물 제226호)과 남한강가의 비위절벽에 위치한 정자 강월헌(고려후기), 나옹화상의 입적처로 유명한 여주 신륵사와 부도(국보 제4호)를 비롯해 원종대사 혜진탑(보물 제7호) 등 국보급 석조문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고달사지도 답사합니다.

9월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

'신륵사·목아박물관·고달사지'

◇출 발: 9월13일(일) 아침7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점심 제공)
◇안 내: 구본만 학예연구관(여주군청 향토사료관)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혜초여행사 협찬: 일양약품

전승공예대전과 불교예술 11면
IMF이후 사찰 새 풍속도 23면
책길따라 금강산 절 구경 8면

IMF를 이겨내는 투자의 맥

어디가 좋을까?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청산컨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고민끝~!

삼보에 귀의하옵고
상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컨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닥친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저 합니다.





부지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262-1번지 외 8필지
■총평수 : 6,422평(준농림, 일부 전용허가필)
■지 목 : 전, 답, 토업
■특 징 :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약 40Km 출퇴근가능
맑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저수지를 접한 땅
주위 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음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시며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투자성 : 향후 2~3년 후 I.M.F 에서 벗어나면 2~5배의 투자성이 확실한 땅
■시 세 : I.M.F 전 → 23만원 ~ 30만원 거래
I.M.F 후 → 17만원~ 20만원 거래
→ 현재 받고저 하는 금액 10만원~15만원

부지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21번지
■총평수 : 2,995평(일부 전용허가득)
(준농림+보존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 급매 평당 9만원

부지 3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②필지 ⊙ 보존임지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득해서 드림)
■용 도 : 과수원, 펜, 사슴 목장, 농업용도의 개발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CHUNG SAN 컨설팅
02)420-5474~5/011)213-4594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전화 ☎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

사 설

'화장 유언남기기'

최근 타계한 선경그룹 최종현회장이 자신을 화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값싸고 훌륭한 화장시설을 만들어 사회에 기증토록 하는 유언을 남겨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주은래나 모택동 등의 화장이 중국인민에게 던져 주었던 교훈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최회장의 화장을 계기로 서울시는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와 함께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 발대식을 갖고 화장장려 범시민운동을 펼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다.

얼마전에 폭우로 수해를 입었을 때 많은 무덤들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변을 우리는 당했다. 누구의 유골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바로 매장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장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매장으로 인한 폐해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발표가 있었고, 현실로 입증된 바이다.

이미 묘지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우리국토의 택지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토의 1%, 서울면적의 1.6배이다.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은 94년도 기준으로 약 13평,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인 4.3평보다 무려 3배가 더 크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의 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의 생활공간이 점점 묘지에 밀려 줄어 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묘지문제를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제도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이 현대사회구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실천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성철스님이 입적하였을 때 그 다비식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집착과 번뇌를 불길속에 태워 버리고 무애의 경지에 다다르는 모습을 지켜 볼 수 있었다. 화장이라는 장례문화를 일깨워 준 부처님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장묘문화를 갖고 있던 중국, 일본, 대만등은 이미 20세기에 들어서서 장묘문화의 획기적인 변혁을 이루어 왔다. 매장관습이 점차 사라지고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묘문화의 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을 알고 이에 조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의식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가진 정부나 종교계가 개혁의 선봉에 서야 한다.

불교신도가 가장 많은 일본은 사찰에서 납골당과 같은 사원묘지를 대중화시켰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강력한 정책이 매장을 금지시킴으로써 화장문화를 정착시켰다.

화장은 인간과 환경친화적이어서 21세기 대안사회를 이끌어 가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장례문화는 국가의 법제도 이전에 관습과 의식개혁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이 앞장설 때 빨리 정착될 수 있다.

이번 최회장의 용기있고 올바른 용단이 화장문화를 확산시키는 범국민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물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이 불교의 장묘문화인 화장을 실천하는데 보살이 돼야 한다.

불교가 제시하는 화장의 의미는 단순한 장례의식이 아니라 심오한 불교적 세계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수행·학덕 불교도의 귀감

3일 원적 보성스님 행장 동국대 총장 역임…불교학 기초 다져



◇3일 원적에 든 보성스님은 지고한 수행력과 학덕으로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지켜온 큰 별이었다. 사진은 96년 봄 영종도 용궁사에서 산책 중인 스님의 모습.

3일 좌탈입망한 보성스님은 일제치하와 6·25 동란, 불교분규 등 순탄치 않은 근현대사를 지고한 수행력과 학덕으로 지켜온 불교계의 큰 별이었다.

1906년 함경남도 이원에서 출생한 스님은 열세살의 어린 나이로 강원도 건봉사 김보련 스님의 문하에서 체발(剃髮)하고 불문(佛門)에 들어 1933년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수지했다. 보성스님은 출가 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교가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그 길로 스님은 동경 목일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동경 일본대학 종교과 전문부와 문학부 사학과를 졸업하는 등 학승으로서의 길을 다졌다. 현해탄을 넘나들며 쌓은 스님의 학덕은 동국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에서 교수직을 맡으며 후학들에게 돈후하게 전해졌다. 1961년부터는 동국대학의 총장을 역임 불교학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도 했다.

학승이면서 수행자의 본분사를 잃지 않았던 스님은 1923년 건봉사에서 수선안거를 시작한 이래 20안거를 성만하는 등 선교겸수의 모범을 보기이도 했다.

스님은 지난 7월15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살아생전 8.15 해방을 맞았던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했다. 그만큼 주권없던 그 시절이 가슴에 사무쳤던 것이다. 〈본지 182호 수행한담〉

그러나 스님은 해방의 기쁨만큼이나 큰 회한도 온 몸으로 떠안아야 했다. 불교분규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해방이후 계속된 불교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님은 태고종을 일으켜 세웠다. 태고종 원로스님들은 "보성스님이 한국불교의 법통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태고종단의 기둥이자 거목으로서 한시도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회상한다.

이승 인연을 다하는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공심과 화합심만이 한국불교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강조하며 '종단화합과 불교발전'을 당부한 스님의 '덕화'는 이제 후학들에게 올곧은 수행으로 피어나는 한송이 연꽃으로 남아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아시아 불교평화회의

월탄스님등 참석



◇월탄스님

사회주의 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아시아불교평화회의(의장 초이 잠스토 CHOI JAMSTO)가 8~12일 몽골리아 울란바토 강단사원에서 열린다.

'정신계발로 세계평화 이룩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한국불교계로서는 처음으로 월탄스님(아시아불교평화회의 한국본부장)이 참석해 개회식에서 평화메시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법기스님(명련사 주지), 이승희(국제불교여성협의회 회장) 등 불교인사 6명도 동행한다.

1994년 아시아불교평화회의에 가입한 한국본부는 17개국 3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 아시아평화유지에 한국불교도 동참 의지가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또 조선불교도연맹과 만나 금강산에서의 '남북평화통일기원법회' 봉행을 논의하며 달라이라마도 참석, 법어를 한다.

아시아불교평화회의는 1960년 발발한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불교국의 경제위기와 평화질서 파괴를 우려해 1970년 인도, 네팔, 소련과 북한 등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결성된 기구다.

도필선 기자

중신회 12월쯤 회장선출 대의원총회

'당분간 두 직대체제 지속'

홍옥진 김한곤 부회장 등 두명의 회장직무대행체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옥진 직무대행이 소집해 4일 열린 중앙신도회 회장단회의에서 새 회장을 선출키 위한 대의원총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 회장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장단은 "총무원장 선거와 맞물리면 자칫 중앙신도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총회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중앙신도회 정상화대책위 구성도 유보키로 하고 회장단을 중심으로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명의 회장단중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교수불자연합회 불교언론인회 등과 교섭해 직능단체 임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해 회장단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김한곤 직무대행과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적극 논의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포교원 홈페이지 개설

조계종포교원이 총무원의 서버를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소는 http://www.buddhism.or.kr/pogyo.

포교원 홈페이지는 포교원 소개를 비롯 불교와 사회, 주제별로 법문자료를 제공하는 '주제설법', 자료실, 상담실, 영문자료 등으로 구성했다.

정성운 기자

"2002년 월드컵 식전행사 팔관회 전통 재현하자"

이윤택씨 '차별화된 문화축제' 주장

2일 잠실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윤택씨(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는 연등회와 팔관회 등 전통 불교문화에 바탕을 둔 국민축제가 월드컵 식전 문화행사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씨는 '2002년 월드컵 식전 문화행사'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월드컵 행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상징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시대 국민적 축제였던 연등회나 팔관회 같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의식을 재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등회 이벤트는 수만 관중이 일제히 등을 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며 "가면을 이용한 팔관회 또한 가면의 이미지를 통해 동양의 신비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이장섭 수석연구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월드컵은 세계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월드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월드컵을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서석재의원 국민회의 입당

정각회장 선거 '변수'로



최근 서석재의원이 국민신당에서 국민회의로 당적을 바꿈에 따라 국회정각회 회장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월 10일 서석재회장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회장 선출은 미궁에 빠진 상태였다.

국민회의 정각회장 후보인 박상규의원은 서석재의원과 정각회장 선출문제를 협의한 자리에서 "서의원이 국민회의에 영입되면 자연스럽게 회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수차례 피력한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장인성 국장은 "서석재의원이 여권의 새 정각회장 후보로 나선다면 별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서의원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및 시공

◆ 서문짜리 기와때문에 천냥짜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사찰기와 재보수 이젠 걱정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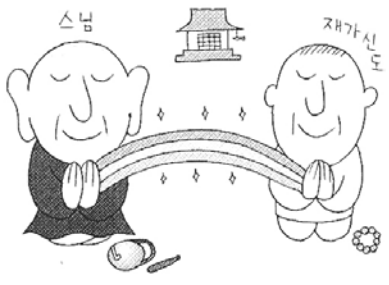
천년을 이어갈 가람,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成源産業
대표 최 대 룡 합장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야간 (02)502-7811,7827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청정승가를 위해 함께…

訃告

韓國佛教 太古宗 第15世 宗正 寶城堂 鄭斗石 大宗師께서 佛紀 2542年 9月3日 午後 3時 40分 三角山 奉元寺 雲水閣에서 涅槃하시었기에 玆以 告訃합니다.

佛紀 2542年 9月 3日

一. 永訣日時 : 佛紀 2542年 9月 7日(月) 午前 10時 (宗團葬)
一. 永訣式場 : 서울 西大門區 奉元洞 新村 奉元寺
一. 茶毘場 : 原州 寶林寺 連華臺 午後 2時

■ 법상좌 : 법천·법장·법암·법하·법해·법경·법우·법은·법공·법산·법인·법운·법혜·법명·법안·법오·법주·법정·법철·법원·법연·법선·법경·법소

■ 嗣子 : 鄭河龍·鄭慶龍·鄭漢龍

韓國佛教太古宗 第15世 宗正 寶城堂 鄭斗石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洪 印 谷

⊙ 連絡處 : 總務院 (02) 745-2030
奉元寺 (02) 392-3008
寶林寺 (0371) 762-1595

어린이 눈높이 포교 앞날 밝다

동련불교교사대학등 개원 '의미와 과제'

아동심리·놀이 등 현장교육 중시
교사 적극활용·연구지원에 관심 필요

어린이 지도교사 양성을 전담할 교육기관과 과정이 연이어 개설돼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인력에 의한 새싹불자 포교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가 1일 개원한 동련불교교사대학은 1년 동안 '아동심리' '아동 다루는 법' '감정통제와 나 전달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불교미술' '불교의식' '사찰습의' '만들기' 등 아동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놓고 년간 80~1백명의 어린이 지도교사를 배출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법회가 열리고 있는 사찰 현장에서 40시간의 수업을 받고 24시간 연수하는 등 전례없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받는다.

불고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는 9월22일부터 12월말까지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어린이법회 운영에 필요한 법회 진행법과 프로그램 개발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 고정에서는 '모임의 진행' '발표회 연출법' '심성계발' '레크댄스' '종이접기' 등이 교육된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 및 과정을 이수한 지도교사들이 설 자리는 여전히 척박하다. 이들의 일터가 될 사찰에서는 '아이가 법당에 들어서면 어수선해진다' '관음재일에는 어린이 법회는 당연히 야외에서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법회는 스님이나 대학생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등 어린이법회와 교육받은 지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어떤 사찰이든지 어린이 포교는 가장 뒷전에 놓인 불사며, 지속적인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천여 사찰 중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지도교사가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6백여 사찰에 불과하며, 지도교사 1명이 30~40여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계에서 최적 교육집단으로 아동 15명을 꼽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박정임사무국장은 "대학생이나 청년회 회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교사를 맡는 상황에서 어린이 포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며 "각 종단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과정 개설에 관심을 갖고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찰에서는 교육받은 지도교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종단에서는 지도교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어린이법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이법회 운영을 위한 지도교사 교육은 매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조계종포교사단, 천태종,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소재연구모임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지도자 연수에만 의존해온 실정이다. 연수란 단기 재교육 과정일 뿐이다. 각 교구 성당에서 '어린이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계에서는 '어린이 전도회' 등 교단 차원의 지도교사 양성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교육 이수자에게 교사자격증 발급해주고, 각 교구 성당에 파견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개원된 것은 어린이지도자 양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각 종단에서 지도교사들의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본·말사연수교육 등을 통해 지도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포교 일선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지난 1일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에서는 정여스님(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장), 정관스님(불국토 O사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련불교교사대학 제1회 입학식이 열렸다.

'포교사 인턴제' 도입 시급

'포교사 배출-관리' 토론회서 주장

포교사 고시만으론 자질 검증 한계
분야별 재교육 필요

"최근 터진 부산 유마힐포교원 치사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포교사의 배출·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포교원과 포교사단 사무국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인턴포교사제와 활동분야별 워크숍을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포교사 배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문병진 포교사(문여진흥원 근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교사고시로는 포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교사고시 합격 후 6개월~1년의 기간 동안 전문포교사팀에 힙류시켜 현장 활동경험을 쌓게 한 후 포교사에 임용하는 '인턴포교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인턴제를 시행하면 △활동분야(어린 청소년 군 교도소 장애인 등)를 자연스럽게 정해 전문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포교사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훈련된 양질의 포교사 배출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분야별 포교사팀은 29개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포교팀 구성과 확립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다.

하영태 포교사(담마간다 대표)는 유마힐포교원 사건을 예로 들며 일부 포교사의 잘못된 행위로 전체 포교사는 물론 종단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배출된 포교사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계종포교원은 종단에 등록한 불교교양대학 졸업자에 한해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포교사 배출 제도를 개선하기는 했다. 그러나 배출이후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이 없어 포교사 자격증을 내걸고 비불교적 상행위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포교사의 배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턴제 도입과 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제1회 전국 포교사 워크숍.

'포교사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1년에 두 번 강당에 모여 출석을 확인하는 연수를 폐지하고, 포교사를 분야별로 향시 연수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힌 하 포교사는 "포교사의 기본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워크숍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의 포교사연수는 포교종책의 시달에 머물러 사실상 연수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오 함께 하 포교사는 2천3백여명의 조계종 포교사를 포교사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는 어렵다며 교구본사 포교국과 연계된 포교사지단의 강화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원과 포교사단 사무국은 이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포교사 배출 및 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곧 포교사 관리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chapia.com)

수요 인터뷰

'나라와 국민위한 경승 기원법회' 연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

"범죄없는 사회가 불국토"



건국 50주년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찰청 경승(警僧) 기원대법회'가 8일 서울 경찰청사 내에서 봉행됐다. 11돌을 맞은 경승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중앙경찰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경찰 전원과 서울 34개 경찰서 경승 40여명 등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 이날 법회를 주관한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와 향후 경승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경승 기원법회를 경찰청에서 열게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IMF 경제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능적이고 다양한 수법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경찰 대부분이 격무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찰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해 편히 쉬며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승들의 몫이죠. 그래서 범죄없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국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회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중앙 경찰기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경찰포교 타종교에 열세 범종단 지역별 후원 절실"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전국 2백51개 경찰서에 경승 활동 경찰서는 1백20개서, 경승실이 있는 곳은 69개서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경승활동은 경승들이 재정에서부터 법회운영까지 모든 분야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타종교의 경우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불교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포교가 활성화 되려면 범종단적으로는 포교지침서와 포교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각 지역의 사찰과 불자들은 후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이번 법회를 계기로 또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가장이 잘해야 자식들이 잘 자라듯 경찰도 중앙의 경승실이 모범적으로 운영돼야 각 지역의 경승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경찰청이 경승활동에 있어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원법회, 위문행사, 정훈교육, 경찰가족 장학사업 등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원회인 경찰불교협의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목어 北 문화재의 수난

북한 문화재 대량 밀반입 사건은 누가 뭐라해도 탐욕의 소산이다. 따라서 불법과외와 뇌물등 온갖 탐욕이 넘실대는 우리사회에 정화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를 더했다.

1백억원대의 북한 문화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한국 고미술협회 회장 부회장등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밀반출된 문화재가 일본이나 홍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돈벌이'와는 정녕 무관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연루된 사람을 다 잡아 들이자면 굴비엮듯 줄줄이 걸려들 겁니다."

북한문화재 도굴 유통과정에는 많은 이들이 연관된다. 북한의 도굴꾼과 중국의 거간꾼을 제외 하더라도 우리의 골동상과 세관원, 굴지의 민간미술관, 개인 수집가등이 동업중생으로 엮어진다. 돈을 벌고 소중한 문화재를 내가 소장하겠다는 탐욕앞에 민족의 얼과 역사 보존은 아랑곳 없다.

북한 문화재 밀반입은 공개된 비밀이다. 2~3년 사이 서울 인사동 고미술 거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설이 나돌 정도다.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미명아래 남한에서의 북한문화재 수요는 북한의 문화재 도굴을 부추긴다. 중국의 거간꾼들은 가짜를 만들어 한국의 콜렉터와 고미술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도자기 한점에 1억에서 10억을 호가하니 탐욕이 또다른 탐욕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물건은 못나간다" 문화재 반출을 저지하는 김해공항 양팽준 문화재 감정관과 같은 나라사랑도 있으나 탐욕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문화재 무차별 도굴은 문화재 훼손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얼과 역사의 수난이다. 뜻있는 이들은 걱정한다. 북한문화재가 출생을 모르는 고아처럼 출토지와 출토상태등이 불분명한 상태로 떠돌아서야 되겠느냐고, 남북 관계 당국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탐욕에 눈먼 이들은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섭고 무상한 것인지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자.

"탐욕은 독과 같고 어둠과 같고, 도둑과 같아 재앙을 만든다."

"어리석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지만 수명이 다할때 재물은 그 몸을 따라가 주지 않는다."

실/직/자/녀/돕/기

성각스님 선서화 특별초대전

· 초대의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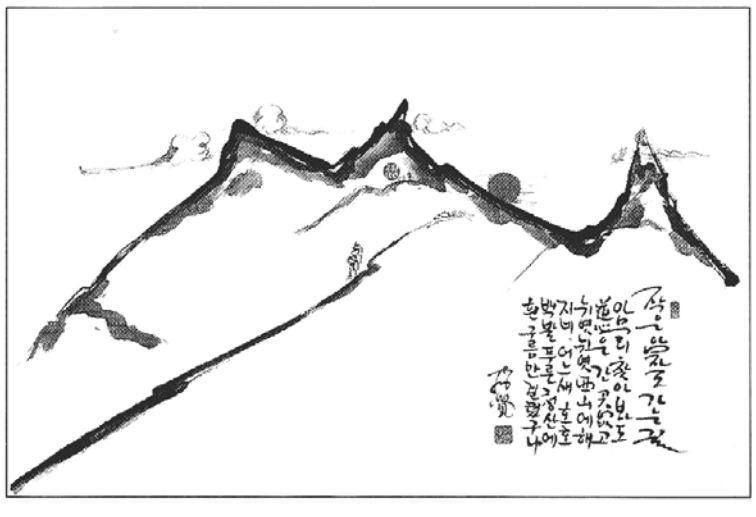
운해창천(雲海蒼天) 자연속에 기거하면서
일도정진(一道精進) 수도하는 몸으로
매일 만나는 도처의 부처와 불심을
화폭에 담아 세상에 내어놓는
저의 선서화(禪書畫)가 전국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MF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닿을 수 있다는 말씀에
새삼 놀라운 부처님의 보시품을 깨닫습니다.

삼라만상을 채우고 있는
아무리 작은것 하나에도
제 각각의 연유와 사연이 있듯이
지금은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모두가 같은 불성(佛性)을 가졌다고 보면
비단 이 일만은 산승(山僧)홀로 나설 일이 아니라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시대의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일임을
합장으로 전하오니 부디 오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망운산 망운암 주지 박성각 합장
국제신문 사장 남상조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홍윤식



· 언 제 : 1998년 9월 10일~15일
· 어디서 :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 1전시실(4층)
· 몇시에 : 오후2시(14:00)
· 문 의 : 국제신문 (051)500-5114
망운암 (0594)63-3095

큰스님 초청법회
9월 10일 오후2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

■ 주최 : 국제신문사 ■주관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후원 : 부산시 교육청,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MBC문화방송, PSB부산방송, KBS부산방송총국,SBS서울방송, BBS불교부산방송, 불교TV, 부산불교신도회, 불교계각언론사

교차로 승가



수재의연금 1천만원 기탁

광덕 불광법회 법주는 3일 불광사 신도들의 정성껏 모은 수재의연금 1천만원을 피해지역주민을 위해 써달라며 불교텔레비전에 기탁했다.



수재의연금 510만원 전달

현성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1일 수재의연금 5백10만원을 동아일보사에 기탁했다.



日 불교학술회의 참석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5~6일 요코하마 츠루미대에서 열린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한국불교조선(祖先)숭배의례의 형태'를 발표했다.



수재민·북동포에 성금

지선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은 수재민과 북녘동포를 돕기 위해 무차선대회에 모금한 금액 중 1백만원을 MBC에 전달했다.



실직자녀 25명에 장학금

도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장은 8월28일 실직가정의 중고생 자녀 25명에게 5백6만6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불암사 교양대 입학식

일면 불암사 주지는 3일 오전 10시 30분 불암사 교양대학 제2기 입학식을 가졌다.



무료체질검사 상담

정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8일 '체질과 건강'을 주제로 불국토 한의원장 정중씨 초청 강의를 열고, 무료체질검사와 건강상담을 실시했다.



지역 종교문화 이끌 50인에

장곡 논산 관촉사 주지는 1일 중도일보가 창간 47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전 충남을 이끌 50인 가운데 지역종교문화를 이끌어갈 일꾼에 선정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돈관 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은 최근 불교문화정보센터의 도움을 얻어 8월16일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을 시작했다. 경주문화유적안내와 주요사업, 나눔의 방 등이 운영된다. http://kbsc.buddhism.org/



제천 장애인복지관장에

진효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 수행사서는 10월1일 개원 예정인 제천 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임명됐다.

日 불자 "침략사 참회"

Focus

일본의 한국 강점과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기 위한 대규모 일본 불교 순례단이 1일 방한했다.

이들은 일본 불교종파의 하나인 죠도신슈혼간지하(淨土眞宗本願寺派)의 시가(滋賀)현 교구 산하 1백93명의 승려와 신도들. 한국관광공사 오사카지사와 일본 오미철도㈜ 야하타 여행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불교 순례상품인 '한국의 불교, 전쟁사실을 배우는 여행'에 나선 이들은 방한중 천안 독립기념관과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독경과 헌화의식을 갖고 한·일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은 9월3일 오후 조계사를 방문한 일본불교 순례단.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이회창 총재 월주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4일 오전11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예방을 받고 "여·야가 서로 협력하여 국민들을 편케하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총재의 예방에는 김태호, 이상배, 허대범, 김찬우, 임진출, 박헌기, 황규선, 전용환의원과 변정일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무등벌에 생명사랑 심을터"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부창립 영조스님



"헌혈과 장기기증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육신을 나눠줌으로써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큰 자비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19일 오후3시 광주 무각사에서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를 창립하는 광주지부장 영조스님(증심사 주지)은 "빛고을 광주는 물론 호남지역에 생명나눔운동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광주시불교청년회와 대불련 광주지부, 광주불교문화대학 졸업생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등체대비사상과 자리이타행을 확산시켜 호남불교의 중흥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신병치료후 절에 들어가 생활"

출감한 장영자씨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던 큰손 장영자씨가 최근 한 여성지를 통해 '입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절로 들어가 당분간 지낼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15일 특사로 출감된 장씨는 장씨는 지난 80년 2월 해남 대둔사에서 이철희씨와 조촐한 결혼식을 치르는 등 불교와는 남다른 인연을 맺고 있다. 올해 초에는 대둔사로 책과 함께 참회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협심증, 조울증, 관절염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완치되는 대로 자전소설 〈환영의 창〉도 출판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법성스님



◇송성수씨



◇김성동씨



◇안숙선씨

역경 법성스님 송성수씨 문학 김성동 예술 안숙선

제7회 행원 문화상 발표

제7회 행원문화상 역경상에 법성스님(대승사 주지)과 송성수(동국역경위원)씨, 문학상에 김성동(소설가)씨, 예술상에 안숙선(국악)씨가 선정됐다.

법성스님은 큰수레출판사를 설립해 큰수레총서와 불학총서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역경과 교학발전에 힘써왔으며, 송성수위원은 역경사업의 선두주자로 30여년간 난해한 불전번역에 애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역경상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안숙선씨는 불교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표현한 공로로, 김성동씨는 불교문학 창달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원상 시상식은 24일 오후2시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은자 기자

제4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에서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제4회째를 맞게 됐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뜻깊은 신행의 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는 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돼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게재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5일

△주 제: 생활 속 수행 신행이야기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분 량: 2백자 원고지 30매 안팎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담당자. (02)722-4162
△당선작 발표: 현대불교신문 99년 신년호
△시상내용
▣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교차로 재가

'사는 것과 살아지는 것' 특강



권기종 동국대 사회교육원장은 4일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사는 것과 살아지는 것'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동국대 교수회의 회장에



유덕기 동국대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8월26일 열린 교수회의 제6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새정치 후원의 밤 열어



조성준 의원(국민회의 연등회 간사)은 11일 오후6시 국회도서관에서 새정치를 위한 후원의 밤을 연다. (02)784-1270

파주시에 수재물품 전달



성순경 한국불교 전국여법사회 회장은 8월18일 파주시청을 방문해 수재의연품을 전달했다. 한편 성회장은 1일 일본관음사에서 봉행된 '일본관동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천도재'에 참석했다.

경희대 아태대학원 교수에



유영 국제정치경제학 박사는 경희대학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로 부임,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레이키요법 상담실 열어



박희준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장은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에 사무실을 열고, 심신의 불건강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자연치유법인 레이키요법에 대해 수시로 상담한다.(02)720-5682

북경대서 1년간 연구



차차석 박사는 1년6개월간 중국 북경대에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8월30일 출국했다.

간병인 영습교육



현 정 충북자원봉사센타원장은 9일부터 제4기 직업간병인 영습교육을 청원군 지장정사에서 실시한다. (0431)254-2258

하버드 유학생 학비 못구해 애태워

흥정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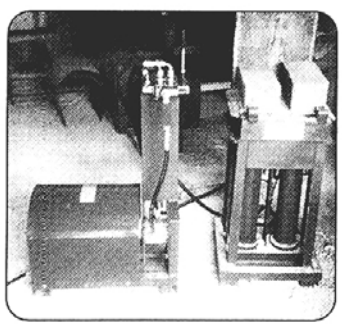


지난 5월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 국제경영학과를 2년6개월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조기졸업한 유학생 홍정훈군이 명문 하버드 대학원 정부학부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학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군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0345)402-9934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황토흙벽돌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사용간편 5분교육후 생산 여성, 노약자등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이외규격은 별도주문생산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편리한 생산, 저렴한 가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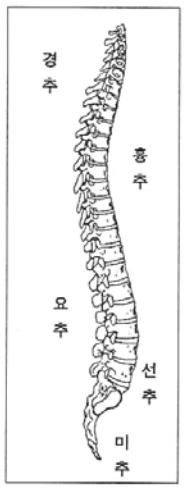
■ 황토관련 전문회사 봉송 황토마을 소개

향토주택시공, 토굴시공, 찜질방시공 및 구들시공, 기타황토관련제품을 생산하며 황토학교를 개설하여 황토주택시공법등 다양한 집 짓기교육을 매월 2박 3일 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공해주택인 황토집짓기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34-0223 / 팩스 : 0671)34-1237

명예퇴직창업

MBC출발 달리는 새아침 김우현회장 활법 6개월간 강좌



▸특 전
1. 법개정으로 누구나 본협회 자격을 취득후 사무실의 평수와 관계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활법원을 운영할 수 있음.
2. 교육수료자는 "세계공인활법사 5단증, 사범기공사, 스포츠 맛사지사, 카이로프락틱사, 운동회복사 자격증" 부여

스님·법사·포교원운영자·
올리치료사·침구사·대체의학연구자

경추 1~7번:
두통, 신경질, 불면증, 고혈압,
만성피로, 편두통,
뒷골아픔, 어깨통증 목덜미가 뻣뻣함

흉추 1~12번:
심장, 폐, 간장, 당뇨, 위장질환,
신장, 불임병

요추 1~5번:
요통, 하지순환불량, 좌골신경통,
하복부통증

선추:
생식기계통, 정력증강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 (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 (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맛사지교육 (지압)
4. 카이로프락틱교육 (짝다리교정법,즉시효과)
5. 사지관절교육법
6. 기공술
7. 운동회복법 (저항운동법)
8. 자연건강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혈도자극운동법

※연락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림.

▸교육안내
교육기간:5박6일(속성반), 3개월반.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수업시작

준비물:
1. 교육비 및 회비2. 사진 3×4:10매
3. 주민등본:1통4. 신청서:협회에 비치됨

【특허청등록원 제13235호】
사회단체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연수원: 0571)855-6461/859-4156, 0502)522-1122, 011)522-1122

인재불사 공개권선 및 고불식 안내

1. 인재불사 안내

한국 사회의 지도층은 철저한 불교적 소양과 신행을 갖춘 능력있는 불자 인재들로 교체되어야 하며 그들의 모범적 행동은 불교가 사회속에서 현실화하고 인류구원의 유일한 희망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이것은 모든 불자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인재불사연구원은 고시생포교를 통한 불자 사회지도층 양성을 원력으로 90년 5월 모임을 결성한 이래 오늘날까지 묵묵히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사찰이나 어떠한 단체와도 무관하며 관계되어있지 않고 자립적 범위안에서 역량만큼 고시생포교에 정진할 뿐입니다. 현재는 문서포교의 1단계를 진행중이며(97년 3월 첫발간)칠보사 강석주 큰스님께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며 10월부터는 제2단계 실질적인 내용의 인재불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2. 고불식 안내

일간지의 취재로 언론에 의해 타의적으로 공개된 저희 활동은 이후 타종교의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벗삼아 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9월 27일 인재불사연구원은 교계 큰스님들을 모시고 고불식을 할 예정입니다.

3. 최초의 권선(공개)

인재불사를 위한 고시촌 포교에 뜻을 함께할 분들의 정성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주의 공덕이 실질적임이 여실히 검증될 것입니다.

무염 김 성 산 합장

인 재 불 사 연 구 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7-2 광운빌딩 503호
■ 전화:888-3077,3078 ■ 팩스:888-3078
▶ (국민은행) 812-01-0134-690 예금주 : 김 성 산
▶ (상업은행) 167-08-046862 예금주 : 김 성 산

현대불교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아산 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연천 '향지모임' "봉사와 사랑으로 군포교 앞장"

자비회등 3개모임 연합…내달 기념법회
군법당 불사 · 군부대 위문활동 등 주력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군부대 자원봉사하는 불자들이 결성한 '향지(香智)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4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가운데 1일 연천군 전곡읍 舊전흥레스토랑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회원들은 발원문을 통해 "만나기 어려운 불법과 인연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봉사와 사랑으로 뭉쳐서 자그마한 이 꽃밭에 당신이 주신 인연의 씨를 뿌려나가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했다.

'어렵고 힘든 이웃,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부처님의 보살정신을 몸소실천하여 불심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된 향지 모임은 그동안 연천지역에서 군법당 건립불사와 군장병들 위문에 앞장서온 자비회등 사찰신도회 모임이 연합하여 구성됐다.

향지모임은 앞으로 25, 5, 27사단 등 경기도 북부지역 군법당 불사와 군장병 위문활동, 자연재해 및 어려운 이웃돕기등의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군법당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이어서 군불교 포교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기대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초대회장에 20년간 일요일을 이용하여 군법당을 찾아 위문하고 군법당 불사에 화주로 참여해온 양춘연보살(다래쇼핑사장)이 선출됐다.

양춘연 회장은 "얼룩무늬 옷을 입고 국방의무에 임하면서 가끔씩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활력과 달콤한 감로수가 되어주고 싶어 모임을 만든 만큼 가족을 그리워하는 장병들 모두의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회장단은 부회장에 임정순(초원장 대표) 허미순(본원사 신도회총무)씨, 총무에 박미영(前 자비회 회장)씨, 재무에 명공주(교석서점 대표)씨, 감사에 황해련(흥국생명 설계사) 신승자(가정주부) 오복순(농장운영) 김경년(한탄강노래방 대표) 이금분(현대당구장 운영)씨가 선출됐다.



◇연천 향지모임이 1일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편 향지모임은 첫 행사로 10월 경 지역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불자나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중이다. 가입문의 (0355)32-0719 박미영 총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청불회 2기 임원 구성

청와대불교신행회는 9일 오후 6시30분 길상사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청불회는 16일 조계사에서 제2기 개원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우회 관음대비원 위문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9일 관음대비원을 찾아 위문활동을 갖는다. 이날 심우회는 관음대비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점심 대중공양을 철 예정이다. (02)529-3861

국회보좌진 용문사순례

국회보좌진불자회(회장 정병국)는 27일 용문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갖는다. (02)784-3860

불기협 '법보사태' 논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8월 31일 38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법보신문사 사태와 관련 집행부와 각회원사 대표기자 1인이 참가하는 확대운영회의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경 1997 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축

동국대 97학년도 후기졸업식

동국대(총장 송석구) 9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8일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학사학위 수여자는 총 3백53명(서울캠퍼스 2백28명, 경주캠퍼스 1백25명)이며 석사학위 수여자 2백96명, 박사학위 수여자 50명 등이다. 송석구 총장은 "국가 경제위기로 어려운 때일수록 실력을 갖춘 동국인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8월 25일 소강당에서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위덕대 대학본관 준공식

위덕대(총장 손제석)는 8월 28일 대학본관 준공식을 가졌다. 지난 96년 6월에 착공, 2년여의 공사로 완공된 대학본관은 지하1층, 지상4층, 건평 2,888㎡의 대리석 건물로 세계 각국과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LAN 시스템 등 각종 첨단시설을 구비했다. 대학본관에는 대학운영의 핵심부서들이 자리잡게 된다. 한편, 대학본관 옆에 위치하게 될 인문사회관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화엄사 회주 종원스님 영결식

제19교구본사 화엄사 회주 원응당 종원스님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8월 31일 원로의장 혜암스님을 비롯 총무원장 월주스님 등 종단스님과 불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도회장으로 엄수됐다. 혜암스님은 법어를 통해 "청정한 계율로 모범이 되어온 스님의 입적은 불교계의 크나큰 손실이다"면서 "평소 스님이 펼쳐온 지역사회 포교사업과 중창불사 등 스님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입학식

불교귀농학교(교장 도법)는 1일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과 교감 이해경씨,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을 비롯 교육생 18명, 명예학생 5명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실상사 장기귀농학교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도법스님은 "건강한 삶과 튼튼한 귀농으로 멋진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기귀농학교는 11월 30일까지 귀농적응훈련을 갖는다.

금융단불교연합 OB모임

퇴직불자 주축 금융인법회 주관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하용이) OB모임이 발족한다.

26일 오후 4시 한일은행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인 금융단불교연합회 OB모임 발기대회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불자들과 과거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주축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금융단불교연합회 OB모임은 오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앞으로 금융인법회를 개최하는등 여러 신행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기대회에 앞서 상업은행과 합병되는 한일은행의 불자회(회장 한우진) 마지막 창립기념법회가 열린다.

한일은행불자회는 86년 창립됐으며 현재 회원은 2백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일은행불자회는 앞으로 상업은행불자회와 통합하여 새롭게 활동할 전망이다.

이날 법회는 금융단불교연합회 회원들도 참가한다. (02)3481-1801

수계자 1천명 돌파

하불동 하계수련…수재성금도 전달

하이텔불교등호회(회장 김주서) 제7회 하계수련및 수계법회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법주사에서 1백1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첫날 참선과 기도정진에 이어 둘째날 새벽에 열린 수계법회에서 법주사 전법계사 혜광스님은 계사승락 설법을 통해 "이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중들에게 자비심으로 십시일반 중생구제의 복덕을 지어야 한다"며 "불자는 '나'라는 것을 버리고 텅빈 마음이 될 때 인격의 완성인 부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련회 참가회원들은 수재의연금으로 32만3천원을 모아 법주사에 기탁하는등 수계의 의미를 지키며 진실된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했다.

한편 하이텔불교동호회는 이번 수계법회로 수계회원이 1천여명을 넘어서 통신포교가 효과적이고 유익한 포교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인식 명예기자



◇하이텔불교동호회는 8월22일부터 23일까지 법주사에서 제7회 하계수련 및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탐방 한국통신대구진여회

통신포교로 불법홍포 이바지

88년 창립…회원 4백여명
예천 연꽃마을 결연 후원
이웃돕기 불교강연회도



◇88년 창립된 대구 진여회는 19개 전화국 불자회 연합모임이다. 사진은 대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가한 진여회원들.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한다. 외진 산사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는등 곳곳에 천이통을 열어가는 곳.

한국통신불자회 대구진여회(회장 전상윤 · 48세)는 88년 4월 대구시내 3개전화국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후 그해 8월 14개전화국 1백70명을 회원으로 하는 대구경북진여회연합회로 발전했다. 현재는 19개 전화국에 회원수는 4백여명.

참된 불자로서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한다고 판단해 모임을 만들었다는 회원들은 자아완성이라는 주춧돌위에 보살행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그위에 직장불교증흥이라는 지붕을 얹겠다는 서원을 세워놓고 있다.

진여회는 월 1회 연합법회를 가지며 지회별로 신행활동이 왕성한 편이다. 태평전화국처럼 예천연꽃마을과 자매결연, 매월 30여만원을 보시하는 곳도 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다방에서 불교사상 강연회를 연 것은 유명한 일화. 담배갑만한 미니법요집을 만들어 상외호주머니에 넣고다니며 학습하도록 한 것은 앞서가는 진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통신에는 PC통신을 이용한 자체의 근거리통신망(LAN)이 구축되어 있다. 그중 진여회도 한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곳은 예불, 불교의 이해, 초심자를 위한 법화경강의등 회원들이 올리는 다양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오는 10월 18일 대전에서 한국통신불자회 전국대법회가 봉행되는 것을 계기로 대구진여회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제10대 회장으로 추대된 전상윤씨는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회원중심의 단체로 거듭나 불법홍포에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삼화불교대학 학생 및 편입생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야간■통신	· 고등학교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 한민족 불교진흥회 스님, 단체추천자.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통신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통신		

2.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체결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위탁교육 수료후)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8년 9월 21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511-2026~8)
◑ 인터넷홈페이지:WWW.Buddhapia.Co.Kr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대 원 불 교 대 학
학 생 모 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 강의시간
출강 / 통신 : 주5일 오후7시 ~ 8시30분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9月 30日까지

● 교과목 : 주5일 수업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불교복지론	불교학특강	의식실기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 원 불 교 대 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 팩스 : 756-7258

이렇게 들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최고 12배까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쓴지는 이미 오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률이 전체 교통사고의 4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법과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다.

멀쩡한 다리와 건물이 무너지고, 승선인원을 지키지 않아 배가 뒤집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 이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키면 모두가 편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큰 화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법과 질서다. 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법·질서 준수 "道 벗어나 富 누리는 일 없어야"

▨계율을 잘 지키면 명예를 얻고 남에게 베풀면 큰 재물을 얻으며 거짓없이 진실하면 덕망이 높아지고 은혜로우면 착한 벗을 얻게 되느니라. 〈집아함경〉

▨과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 갔고 어떤 것은 오래 가지 못했다.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하여 제자들이 지키게 하였다.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말라. 이 일은 생각하고 이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끊고 저것은 잘 지켜라." 〈사분율〉

▨수행자여, 너희들은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 들여 행동거지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좌우를 보고 몸을 펴고 구부리기와 옷입기 등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앉고 눕고 오고 감에 질서가 있고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장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만약 비구·비구니가 미혹해서 계를 어기든가, 부끄러움 없이 율의를 업신여겨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 그런 사람은 죽어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목련소문경〉

▨차라리 목숨을 버려 죽음으로 달려갈지언정, 마음을 방종히 가져서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에는 다만 일생을 파괴하는 데 그치거니와, 계를 깰 때에는 백만생에 걸쳐 악도에 잠길 것이기 때문이다. 〈대승계경〉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내가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탓으로 악취에 도로 떨어져 윤회를 받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 도리를 잘 알아서 길이 계를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필고 불환과(不還果)를 얻어서, 이 세상에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본사경〉

▨선악의 행위는 제 마음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복(禍福)이 사람 탓으로 생김은,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좇고 산울림이 소리에 응하는 것 같아서, 계행과 덕은 저절로 응하게 되어 있다. 〈아난분별경〉

▨많은 도리를 배웠어도 방일해서 바른 행위를 좇지 않는다면,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을 뿐이다. 〈출요경〉

독자의 소리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도박승은 불교망신 보시금 제대로 쓰이길

얼마 전 사찰에 기도하러 갔다가 스님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한달 생활비(30만원)를 몽땅 보시하고 돌아오면서 더 많이 하지 못함을 아쉬워 했다.

신도들의 땀과 정성이 깃든 소중한 돈으로 도박을 즐기거나 고급승용차를 굴리거나 무위도식하는 스님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 스님들은 다소 부족해야 올바른 수행을 하게 될 것이다. 스님이라는 신분만으로 불자들에게 군림하려는 것은 결코 계율에도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올바른 곳에 쓰여지지 않는 보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차라리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보살피는 것이 훨씬 값진 보시라고 생각한다. 이반아심〈서울 신정7동〉

가정-직장-사찰 신행 생활화 연계

외환은행불자회 회원들이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외환은행에 근무하는 아들에게 불자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 교사인 딸에게도 교사불자회에서 활동하도록 했다.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불자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일에 무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의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자성종교인 불교를 가족들에게 대리종교로 만족하게 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는 부처님의 향기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전법에 나서보자. 장영숙〈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출판기사 비평 곁들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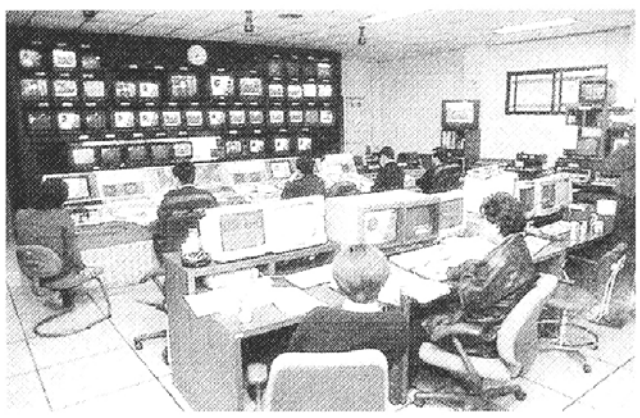
-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

현대불교신문에서 매주 한 면씩을 할애해 출판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에 먼저 고마움을 전한다. 책은 매우 소중한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불교교육 교재이자 전법의 자료이기 때문이다.

불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신문의 출판면은 좋은 안내자이다. 따라서 한두권의 책을 중점적으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비평을 곁들여 소개해주길 바란다. 오경미〈서울 동교동〉

열린마당

케이블TV 채널티어링제



◇8월28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채널티어링제와 업증변경 허가 등을 골자로 한 케이블TV 지원대책으로 업계의 지각변동이 시작했다. 종교TV는 유료 의무전송이 안될 경우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 업계의 지도가 바뀐다. 문화관광부와 국민회의는 8월28일 당정협의를 갖고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케이블업계의 회생 방안으로 종합유선방송국(SO)의 채널티어링제(채널묶음제)허용과 프로그램 공급자의 업종(장르)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실시해왔던 전채널 의무전송 규정을 폐지, 1사가 다수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자생존'을 통한 구조조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전송규제가 폐지된다면 시청률이 저조한 종교TV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종교TV측과 케이블업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종교채널 정신교화 '공익'

남현스님 〈불교TV 기획실장〉

불교TV와 같은 종교채널을 재미와 흥미를 위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종교 채널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여타의 채널에 비해 상업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채널 티어링제에서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한다는 규정없이 타채널과 함께 경쟁시킨다면 종교채널의 존립은 어렵게 된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많은 힘을 준다. 자기반성을 통해 내면을 성찰할 기회를 주며 자신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의 정신도 길러준다. 따라서 종교채널은 인기의 척도인 시청률 이외의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비가입자들이라도 종교 채널만큼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의무 전송을 실시해야 한다.

상업-종교방송 구분돼야

심정일 〈기독교TV 총무부장〉

기독교TV는 수익보다는 방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국이다. 하지만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운영 경비가 필요하다. 공공채널처럼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업계의 지각변동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선 타채널과 함께 경쟁해서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특성을 정부와 업계는 충분히 고려해 종교TV를 유료로 시청자들에게 송출해야 한다. 의무전송이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돼 종교의 가르침에 귀기울일 것이다. 케이블업계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정서를 좌우할 수 있는 종교방송을 외면한다면 어리석은 판단일 것이다.

종교인구 감안 의무전송

김병만 〈평화방송TV 총무부장〉

좋은 방송과 좋아하는 방송은 구별된다. 좋아하는 방송이 반드시 좋은 방송일 수 없듯이 좋은 방송이 꼭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방송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 시청자들의 구미에 갖는 방송만 살리려고 하고 있다. 종교TV는 분명히 타채널에 비해 방송의 달콤함은 없다.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처럼 종교TV가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송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철저히 시장경제 원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채널티어링제에서 종교TV는 살아남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비종교인보다 종교인구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한다.

티어링제 선택 불가피 종교채널 자구책 찾길

조재구 〈케이블TV협 사업국장〉

채널티어링제는 4년전 케이블TV가 출범할 당시부터 종합유선방송법 20조 2항에 명시돼 있었다. 다만 첫 출발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면 인기채널에만 편중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3년간 유예한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공공성이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 공급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채널티어링제는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해 놓은 법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 뿐이다. 채널티어링제의 실시는 그동안 사업자 위주로 진행돼 왔던 사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본요금 1만5천원에 유료채널 7천8백원을 더해 2만2천8백원을 내야했던 시청자들은 5천원~1만5천원대로 4~5가지 다양한 가격대의 묶음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체된 업계의 상황으로 보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각 지역은 물론 개인에 따라 소득 수준과 문화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할 것이다. 이 다양성을 잘 파악해 채널티어링 상품을 개발한다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할 것이다.

종교채널을 공공채널로 규정한 의무전송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는 타당치 않다. 프로그램공급업체의 설립이 등록제인 현행법상에서 종교채널을 의무전송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블업계에서 종교TV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세 개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세 개의 종교 외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는가. 그 종교들 속에서는 사이비적인 요소가 많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종교도 포함돼 있다. 만일 이 종교들이 간단한 서류절차만 거치면 되는 방송국을 설립해 놓고 국민들에게 의무전송을 시킨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다.

처음부터 종교TV도 업계의 한 방송국으로 출발했다. 채널의 특성이 다른 채널과 구별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자구책을 마련해 채널티어링에 참여해야 한다.

채널티어링제란 4~5개 채널 묶어 시청자 선택

채널티어링(Tiering)이란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29개 케이블방송을 모두 시청했던 기존 제도와는 달리 시청자의 기호에 맞는 4~5개의 채널군으로 편성, 각기 다른 가격으로 프로그램 묶음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미시청채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시청료를 인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채널티어링의 유형에는 요금과 연계한 계단식티어링, 유사내용별로 묶은 내용별티어링, 수용자의 성별 나이에 따라 묶은 소구력별 티어링, 영화·뉴스 등 소구력이 강한 채널을 버팀목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채널을 혼합한 혼합형티어링 등이 있다. 이중 외국에서는 혼합형 티어링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허·가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등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간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영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장생불사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의 신선(仙山人)의 주식(主食)은 사계절에 푸른 소나무에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리.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앰으로써 불을 생(生)하기 (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인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三八木)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사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아는 여래치신(치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만을 연구한 토종지 소나무임업장주(業場主)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강정(强精)종합식품이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봉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흑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인데,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仙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b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일 날아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8.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강정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구입문의**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대구여래원

원효스님 삶과 사상 대하소설 나온다

박태순씨 '무애가' 집필중 … 全 5권 2000년 출간

'원효'.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그 이름(元曉)처럼 민족문화의 새벽을 밝혀준 위대한 선각자.

원효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첫 대하소설이 집필되고 있다. 중견 소설가 박태순씨(56)는 충북 단양에 있는 한 농가에 칩거하며 원효스님의 삶과 당시 시대상을 조명한 대하 소설 〈무애가〉(가칭)의 집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백자 원고지 1만장 가량이 될 이 소설은 전 5권으로 오는 2000년경 한꺼번에 '한길사'에서 출간 예정이다. 춘원 이광수와 남정희씨가 원효스님을 다룬 소설을 펴내 대중적으로 호응받았으나 원효스님의 이야기가 방대한 대하소설로 창작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태순씨가 원효를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한 것은 지난 70년대부터. 그는 지난 85년 한길사에서 펴낸 계간지 '오늘의 책'에 원효스님의 족적을 찾는 기행문형식의 '원효기행'(450매 분량)을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신문에도 원효스님에 대해 연재했을 정도로 원효스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왔다.

박씨는 "시대적으로 삼국통일(660년)의 전야에 태어나 화쟁원융사상으로 격변의 시대를 이끈 원효스님(617~686)을 한번 대하소설로 다뤄봐야 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다"면서 "원효스님은 고대노예제도사회에서 인간해방관을 가진 선각자로서, 왕과 귀족위주의 특권 이데올로기로서의 불교를 민중들의 불교로 이전시킨 보살행 실천자이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진정으로 구현한 위대한 자유인이다. 원효스님이야말로 분단상황인 현재 이 시대에, 그리고 산업사회에서 첨단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21세기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말한다.



소설은 불교가 신라에서 정착된 시점인 553년경부터 시작된다. 즉 원효의 할아버지대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당시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역학관계와 풍습 등 시대배경이 광범위하게 다뤄진다.

1964년 〈공알앙당〉으로 〈사상계〉의 신인문학상을 받고 등단한 박태순씨는 시대적인 비극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사의식으로 〈정든 땅 언덕위에〉 〈신생〉 〈낯선 거리〉 등 현실성이 강한 작품을 써 온 소설가.

춘원의 〈원효대사〉가 식민지사관에서 요석공주와의 사랑과 허무주의에 치중해 있다는 비판을 가한 박씨가 그의 소설에서는 요석공주와의 사랑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그 시대 왕족들은 정략결혼의 희생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정략결혼에 희생됐던 요석공주와의 사랑은 세속적인 로맨스라기보다는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한다는 인간구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원효스님이 이후 스스로 복성거사라 칭하고 하층민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게 풀이한 무애가를 가르치며 교화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불심시심 〈143〉

어린이가 되자

坐處凌頂雲 (좌처릉정운)	앉아 있는 곳 구름 이마 누르고
歸程踏鳥空 (귀정답조공)	돌아갈 길 새처럼 허공을 밟다
倚笻仍石上 (의공잉석상)	지팡이 의지해야 바위 위이고
回首更山中 (회수갱산중)	머리 돌려도 다시 또 산 속
落葉看流水 (낙엽간류수)	지는 잎에서 흐르는 물 볼 수 있고
疎鍾記晩風 (소종기만풍)	성근 종소리에 늦바람을 알겠다
還來留淨界 (이래류정계)	요사이 고요한 세계에 머물러 있어
頹髮覺成童 (안발각성동)	얼굴빛 머리칼이 어린이 됨 깨닫다.

징월(澄月)대사의 '봉서유거(鳳棲幽居)'라 한 시이다.

매우 높은 산사라 앉아 있는 곳은 항시 구름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거처의 높음을 전제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작자 자신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듯 높은 곳이니, 오고 가는 길목이 모두 새들이 나는 길과 맞닿아 있어 허공을 밟는 걸음이 된다.

'허공을 밟다(踏空)' 역시 묘한 시어이다. '허공'과 '밟다'라는 말은 결코 한 자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르는 길이 험하니 항시 지광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올라 봐야 결국은 바위 위이다. 더 지나간 것이 없다. 가도 가도 그저 바위라는 것이다. 얼마나 왔을까 하여 머리를 돌려 보면 또 산이다. 아무리 와 보아도 산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서 '다시(更)'라는 한 글자가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아무리 '다시'라는 새로움을 추구하여도, 결국은 산속이다. 시어의 묘미는 이러한 곳에 있는 것이다.

땅 위에 지고 만 나뭇잎은 시선에 잘 들지 않지만, 물 위에 떠내려가는 잎에서는 낙엽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 또 흐르는 물의 편에서 보면, 떠내려가는 낙엽에 의해서만이 물흐름의 실체를 오히려 여실하게 살필 수가 있다. 은은히 들리는 종소리에서 해져녁이 되었음을 아는데, 시어는 늦바람을 알다 하였으니, 소리를 실어나르는 도구로서의 바람을 말한 셈이다.

이렇듯 조용한 경지에 있다 보니, 어느 사이 어린이로 변해 있다. 이 어린이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부처됨의 상징이다. 사람의 참됨을 잃지 않은 순수의 경지, 이것이 성불이다.

이중찬 〈동국대 명예교수〉

17회 불교미술대전 작품접수 14~19일

불교미술 작가의 등용문인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작품 접수가 14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원서교부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1인당 2점까지 출품가능한 이번 불미전의 공모부문은 △회화 △조각 △탱화 △서예이며 출품 규격은 탱화의 경우 240㎝×180㎝ 이내, 조각은 좌대를 포함 가로 200㎝×세로 200㎝×높이 200㎝ 이내이다. 회화는 150호 이내며 서예(사군자 포함)는 135㎝×35㎝부터 200㎝×70㎝까지. 9월 24일 입상작이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14일 오후 5시 공평아트센터이다.

입상작은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 1, 2층에서 14일간 전시된다.

문의 (02)739-1830 조계종 문화부.

불미전 운영규정 제정 심사와 운영 분리키로

조계종은 1일자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 공포했다. 그동안 불미전은 심사와 운영에 있어 일부 시비가 일었는데 이번 심사와 운영의 분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공정성과 함께 교계 최고 미술작가 등용문으로서의 권위를 한층 부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불미전위원장으로 된 이번 규정의 골자는 △심사위원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객관성을 띄도록 하고 특히 △'불교미술관련 스님 및 저명인사' 경우 매회 심사분야를 변경해 선정, 특정인이 한 분야를 고정적으로 심사할 수 없게 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기존 불미전 수상자 및 순수창작 불교미술작가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후원키로 했으며, 불미전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불교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사용토록 했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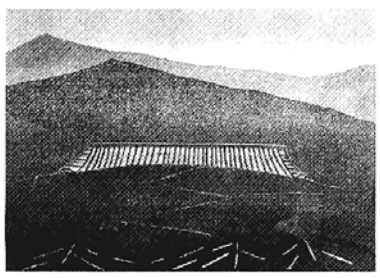
'천년의 향기-경주' 판화전

11~25일 경주문화엑스포 우정관 서울·대구·부산·포항서도 동시전시

불국사 에밀레종 남산의 탑과 부처님, 석담 등 경주의 유적 유물과 풍광이 중진판화가 24명에 의해 판화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나 11일부터 경주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선을 보인다. 강승희 강행복 곽수영 황남채 홍익종 임영재 김상구 박경효씨 등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판화가 24명이 참여한 '문화의 향기 나눔회'(회장 김태수)는 '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획전 '천년의 향기-경주' 판화전시회를 11일부터 25일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우정관내 월명실에서 개최한다.

수차례 경주를 현장답사하여 이루어진 이번 작품들은 목판화와 동 석판화 실크스크린 등 다양한 형식과 기술로써 경주가 가진 역사·정신적 가치와 아름다움, 신비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에 기획된 작품들은 복수 제작되어 서울의 김내현화랑(15~30일) 학고재화랑(15~25일) 대구 맥향화랑(15~30일) 부산 홍하갤러리(15~23일) 포항 대백갤러리(15~27일)에서도 동시에 전시된다.



◇황남채作 '사치고개'.

이경숙 기자



◇성각스님作 '길은 멀어도'.

성각스님 선서화특별전

10~15일 부산 국제신문사전시실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의 선서화 특별초대전이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국제신문사 4층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난 6월 서울에서의 전시에 이은 이번 부산전시에서는 산 물 해 달 새 나무 등 자연을 소재로 그린 그림 '길은 멀어도' '만다라' '자비의 꽃' 등과 달마도 관세음보살도 등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통선화기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님 특유의 개성적인 표현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실직자 가족돕기에 쓰여진다.

이천 도자기축제 18~27일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전통도자기의 본고장 이천 온천광장 및 도예촌에서 열린다.

이천문화원(원장 이은구)과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도자기축제에는 △국제전통도예전 △현대도예공모전 △흙과 불의 정신전 △전통가마 불지피기 △전통옹기전 △도예교실 △물레돌려 도자기빚기대회 △한국도자기 특별유물전 △도자기전시판매 △다례시연 △도자기와 분재, 화훼전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벌어져 일반인들도 직접 참여해 초벌구이한 도자기에 글씨나 그림을 써넣어 작품으로 소장할 수 있고, 물레에서 직접 도자기를 돌려 만드는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우수 도자기를 30~50% 싸게 살 수도 있다. (0336)635-7976



◇18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에서는 '내가 만든 도자기코너' '물레돌려 도자기빚기' 등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문화 단신

수월관음·지장보살도 국가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관광부는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 대악후보, 자치통감강목 등 4건을 국가 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수월관음도는 14세기 경의 고려불화로 합장한 선재동자가 위에 앉아 있는 관음보살에게 청법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인물의 자세를 비롯한 금니 연화당초문 등은 고려 수월관음도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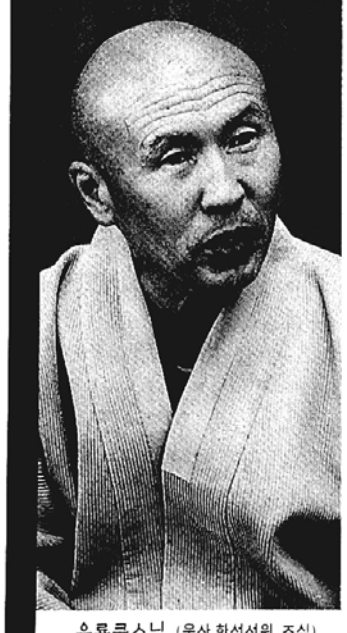
지장보살도는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함께 배치된 삼존도 형식과 표현기법 등에 있어 고려불화의 특색이 잘 나타난 여말선초의 그림이다. 주존인 지장보살이 바위위에 걸터앉고 좌의의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사선상에 위치한 이례적인 구도의 보살도이다.

12일 '길상 어울마당'

조계사 청년회 길상풍물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12일 오후 7시부터 조계사 대웅전 앞 야외특설무대에서 '길상 어울마당'을 공연한다. 길상풍물원 40여명이 택견 관굿 군영놀이 등으로 진행되는 마당놀이를 공연하고 보리수합창단과 관소리등호회 '소리랑', 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노수철씨가 찬조출연한다. (02)785-4050

문화재사범 신고전화

문화재관리국은 1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을 제보, 신고하는 문화재사범 신고전용전화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080-290-8000)



우룡큰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기도하는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절을 하는 횟수의 많고 적음보다, 마음을 잘 모아 염(念)을 하고 정성을 다해 한배 한배 절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믿음의 주춧돌을 견고히 놓아, 일어나는 번뇌를 좇아가지 말고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번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값 7,0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세계의 명승 금강산' '북한의 사찰' '북한불교 답사기' '북한사찰 연구'

책길따라 금강산 절 구경

"이곳에서 수행하지 않고는 선승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고의 수행지였던 금강산. 산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불은(佛恩)의 향기가 배인 민족정신의 요람으로써 금강산은 실로 전후무후한 자연의 걸작품이다.

그 금강산을 이제 갈 수 있게 됐다. 관광길을 개설해 이달 말부터 연 50만명이 금강산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하연, 신계사, 유점사…. 고승들의 자취가 어린 금강산의 유서깊은 사찰들이 지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관광코스에 사찰은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불교와 금강산의 혼을 담고 있는 이곳 사찰들도 곧 답사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나온 금강산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불교 관련 책은 5종 정도. 금강산 여행이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어 북한 불교 관련 책의 판매는 거의 변동이 없는 실정.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출판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세계의 명승 금강산〉(호영 刊)은 금강산내 사찰을 비교적 명확히 볼 수 있는 사진집. 관음보살이 오색 구름 속에 나타난 듯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관음봉의 설경을 비롯해 유점사, 장안사, 정양사, 보덕굴 등의 유명 사찰과 탑·석등·마애불 등이 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다만 양장본 화보집이어서 들고 다니기에 불편한 것이 흠이다.

금강산의 불적을 사찰별로 쉽게 알아보도록 한 〈북한의 사찰〉(한국불교연구원 刊)은 비교적 얇고 가벼워 손에 지니기에 용이하다. 장안사, 표훈사, 정양사, 마하연사, 유점사, 건봉사, 심곡사 등의 말사까지 포함한 금강산내 사찰과 암자를 모두 소개했다. 이밖에 송도와 평양, 묘향산 등의 불적도 자세히 소개해 북한불교를 알기에는 더없이 좋다. 논문투의 설명이 읽기에 다소 딱딱해 현대감각에 맞는 재출간이 아쉽다.

사찰뿐만 아니라 북한불교의 실상을 함께 알기엔 〈북한불교답사기〉(민족사 刊)가 좋다. 금강산내 사찰을 포함해 북한내 주요 사찰과 유적을 담았다. 그리고 북한의 승려 등과 불교의식, 승려 교육과 양성, 각종 법회 등 법타스님(은해사 주지)이 89년 평양축전때 한달 가량 북한에 머물며 보고 느낀 오늘의 북한 불교에 대해 자세히 소개돼 있다.



◇ 금강산 사찰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책 속에도 있다. 사진은 관음의 화신 보덕각시 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금강산 만폭동 보덕굴.

〈북한사찰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 刊)는 북한 불교현황 및 사찰, 불교문화재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연구서. 7백여 쪽의 분량이 말해주듯이 일반인들이 읽기엔 다소 벅차지만 북한불교를 가장 소상히 알 수 있는 책이다.

이밖에 고려시대에서 조선후기까지 그려진 금강산 그림을 통해 미술사를 정리한 〈금강산도 연구〉(일지사 刊)는 금강산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살핀 유일한 연구물로 꼽힌다. 어렸을 적 금강산에 자주 올랐다는 우종수씨(지리산악회장)가 92년 펴낸 〈금강산 가이드〉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으로 손색이 없다. 또 금강산의 역사와 전설을 담은 〈보고 싶은 금강산〉(덕수 刊)과 금강산의 민족적 의미를 되새긴 〈1485년, 금강산에서〉(지식공작소 刊) 등도 최근 출간됐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원시불교·초기대승불교 흐름과 사상 '한눈에'

최봉수씨 '근본불교의 가르침'



〈근본불교의 가르침〉(경서원 刊)은 인도불교 발전 과정중 원시불교와 초기 대승불교 경전시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교학체계를 세웠다. 이 책은 붓다의 일생을 포함한 아함의 가르침과 반야·법화·화엄·정토 경전에 설해지는 가르침으로 구성되는 불교를 근본 불교로 통칭했다. 그리고 그 전체의 흐름과 사상을 구체적인 경전 자료와 함께 제공하면서 근본불교의 가르침에 접근하고 있다.

저자 최봉수씨(동국대 불교원전번역연구소장)는 "원시불교시대는 붓다의 일생과 함께 원시불교의 주 자료인 아함과 니카야에 나타난 붓다의 가르침은 반드시 언급할 가치가 있고, 초기 대승경전들은 사상적으로 원시불교를 계승하며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붓다의 친설(親說)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 아래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구성은 제1편에서 고타마 붓다의 불타관과 팔리 경전에서 본 붓다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2편에서는 불교경전의 이해와 아함부 경전의 교리 체계 및 아함경의 몇몇 경전들이 담고 있는 가르침을 설명했다. 제3편에서는 반야부 경전의 사상과 반야부의 보살 4위 등을, 제4편에서는 법화경의 사상 및 정토부 경전과 불설 무량수경에 대해 언급했다. 한명우 기자

해외신간

대중을 저버린 충성



참여불교운동가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술락 시바락사가 30여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기록한 자서전 〈대중을 저버린 충성-참여불교〉가 발간됐다. 이 책은 93·9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그의 인생과 태국 불교계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술락 시바락사는 "불교를 개인적 해탈만을 꾀하는 종교로 생각하지 말고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와 정치의 안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Parallax Pr. 刊. 〈p.p328 ISBN 1888375108〉

사성제



"사성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사성제-불교의 반석〉은 달라이 라마가 환경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 본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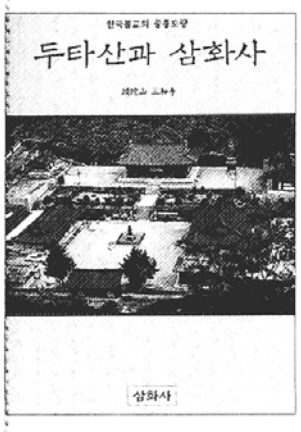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이 책에서 환경의 오염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성제의 '고성'(苦聖)과 '집성'(集聖)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로 적극 환원될 때 욕망과 탐닉을 막을 수 있고 불교환경윤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orsons Pub. 刊. 〈p.p224 ISBN 0722535503〉

일본불교사 중세

고대·근세·근대에 이은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의 일본불교사 시리즈가 최근 나온 〈일본불교사 중세〉를 끝으로 완결됐다.

〈일본불교사 중세〉에서는 고대불교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혁신적 종교운동을 통해 자기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중세불교에 대해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당시 지배층과의 대립과 긴장이 문화에 미친 영향, 불교와 서민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난 사회·정치·사상·문화사의 성과 등을 종합했다. 오오스미 나카오(大隅和雄)·가즈오 다카이(中尾堯) 編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刊



삼화사의 어제와 오늘 '조명'

홍사성-박상준씨 '두타산과 삼화사'

삼화사는 1천3백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의 명찰. 자장율사가 처음으로 초막을 짓고 개산한 이래 범일국사 나옹선사 등 수많은 고승이 머물며 수도하고 교화의 당간을 높이 들었던 가람이다.

이런 유서깊은 역사를 간직한 삼화사(주지 원행)가 최근 동해시의 협조를 얻어 〈두타산과 삼화사〉(민족사 刊)라는 제목의 사적지를 출간했다. 필자는 전 불교TV 편성국장 홍사성씨와 동국대 역경위원인 박상준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삼화사 창건에 얽힌 관련 설화에서부터 각종 문화재와 그 가치, 현재의 당우와 주변 사찰에 이르기까지 50여컷의 사진과 함께 한 눈에 알아보도록 정리했다는 점.

삼화사 창건과 역사, 관련 인물, 불교설화, 삼화사의 현재 등을 정리한 홍사성씨는 "홍수와 산사태, 화재 등 네 차례나 재앙을 겪은 사찰치고는 자료가 꽤 남아있는 편이다. 자기 역사를 남기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만도 큰 교훈을 남긴 셈"이라며 이 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삼화사 사적편에서는 인조9년 최시영이 저술한 〈두타산 삼화사 고금사적〉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자장조사전기 및 삼화사 중수기, 약사전 중건기 등을 실었다. 이밖에도 성암 김효원의 '두타산 일기'와 '삼화사의 신라철불좌상의 배각명기' 황수영) 등 삼화사 관련 논문 3편을 부록으로 담았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4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5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윤 순	신 우 당
7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8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토 방
9	현대인과 선	양 기 봉	대원정사
10	참선교육	현 담	수선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염불의 의미와 공덕 운주사 편집부 엮음

염불삼매등 실천적 정토신앙 소개



우리는 대부분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나무아미타불'을 나직이 읊조리던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한다. 물론 요즈음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나무아미타불' 이 한마디에는 실로 수많은 공덕이 담겨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염하면 누구라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토사상이다.

〈염불의 의미와 공덕〉은 염불신앙이란 무엇이고 정토신앙의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를 자세히 밝힌 입문서. 염불의 이익과 염불삼매에 드는 법, 임종시 염불의 공덕,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자세 등 실천적인 방법을 설명해 놓았다. 〈운주사, 3천5백원〉

티베트 사자의 서 마쯔노리-유까리 지음

'사자의 서'의 사상과 활용현장 '생생'



죽음을 눈 앞에 둔 체링괼덴에게 마을의 점성가 쵸장은 '발도퇴돌'을 일곱 번이나 읽는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으라는 의미에서다. '발도퇴돌'은 우리에게 '티베트 사자(死者)의 서(書)'로 번역돼 알려진 티베트어로 된 경전.

이 책은 일본 NHK 취재팀이 라다크의 한 마을에서 죽어가는 노인에게 '사자의 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사상이 무엇인지를 실례를 들어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티베트 현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병동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취재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허일범·허영범 공역 〈불교춘추사, 1만2천원〉

문화유산 상식여행 오주환 엮음

문화유산 제대로 보고 느끼려면…



어느 전문가는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느낀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아는 만큼 보기도 어렵거니와 본다 하더라도 아는 만큼 이해하기 힘들다. 체계화된 지식 없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유산 상식여행〉은 '답사의 기초 입문서'라고 할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운 안내서. 특히 우리 문화유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탑, 부도, 석등, 당간지주, 전각, 불상, 불화, 불구 등 불교문화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전문 학술 용어를 쉽게 풀고 주석을 달았으며, 삽화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이토, 7천5백원〉

우리 시대의 큰스님을 만난다!

삶승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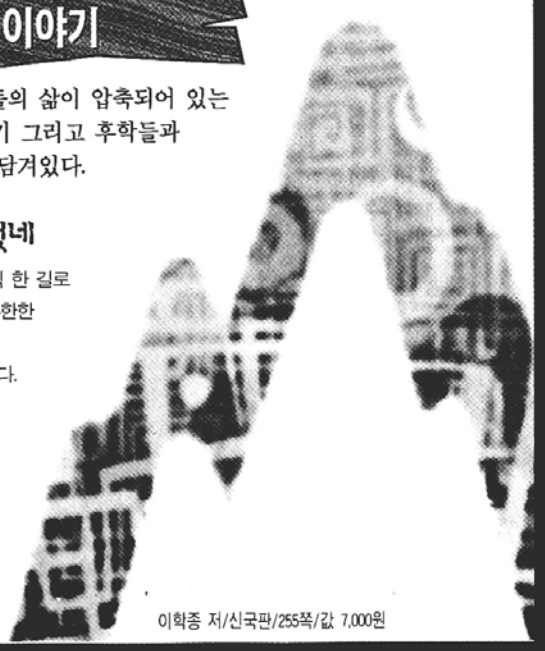
큰스님 25인의 살아온 이야기

현대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있는 큰스님들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이 책은 그분들의 출가이야기, 수행이야기 그리고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채찍의 말들이 담겨있다.

우리곁엔 언제나 큰스님이 있었네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로, 그분들의 삶이 발산하는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관응 큰스님 · 구암 큰스님 · 덕암 큰스님 · 문성 큰스님
· 범룡 큰스님 · 비룡 큰스님 · 서암 큰스님 · 서옹 큰스님
· 석주 큰스님 · 성수 큰스님 · 수산 큰스님 · 숭산 큰스님
· 승찬 큰스님 · 운경 큰스님 · 운문 큰스님 · 원담 큰스님
· 월산 큰스님 · 월하 큰스님 · 응담 큰스님 · 일타 큰스님
· 진제 큰스님 · 청하 큰스님 · 혜암 큰스님 · 화산 큰스님
· 달라이라마



이학종 저/신국판/255쪽/값 7,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기적의 순수한방 재생 크림

탱탱크림 이

불자여성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1 기미·주근깨·고민하시는 분
2 얼굴의 잡티, 또는 여드름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
3 모공이 넓고, 피부가 늘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4 눈가의 잔주름, 검은 얼굴로 고민하시는 분

바르고 3~4일만에 시작되는 피부 재생과정을 거친후 15 일이면 아기 속살같은 맑고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로 되살아납니다



피부가 밝아지면 관상도 변합니다. 하루저녁 한번으로 젊음을 찾으세요.

젊은 피부 밝은 얼굴 탱탱크림이 책임집니다.

※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체·험·사·례

저는 41세된 주부이면서 직장 여성입니다.
아이를 낳고 산후 조리를 잘못해서인지 기미가 짙어지면서, 잡티가 많이 생겨 늘 화장을 두껍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서, 피부가 늘어지고, 잔주름이 많아지면서 여러가지 좋다는 방법을 다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 어느날 탱탱크림 비르신 분의 좋아진 피부를 보고 저도 구입하여 바르게 되었습니다.
바른지 11일째쯤 피부가 깨끗해짐을 느꼈고, 15일이 지나고 부터는 기미가 거의 옅어지고, 피부가 하얘지고 맑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5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들 합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은 화장안한 모습이 예쁘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장도 엷게하고, 또 피부가 좋아지니 모든 일에 의욕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런 좋은 크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엄마)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32-10 무궁화B/D 4층
(주) 한 국 완 동
☎.3437-8282

氣 功

여러분은 진정한 기의 세계를 접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의식 작용을 떠나서 달리 있는 것이면서 의식작용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호흡의 실상을 알아서 있어야 할 상태 그대로의 올바른 호흡을 닦으려면 의식을 집중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려서 호흡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동시에 그 호흡이 무의식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호흡에는 정신집중이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도 있는것이나 이것이 바로 공의 호흡이다.
호흡이 들고 나감이 어찌 공의 도리를 벗어날 수 있으랴.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조직도 공 그대로의 생멸의 연속이다. 우리 마음 역시 공의 도리에 따르고 있으니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여 들고 남을 감지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오치는 단계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 실천인 것이다.

※ 뜻있는 모든 불자 및 스님분들에게 직접 전수
(왕림시 기체크 무료!)

재단법인: 대한불교 대성종
향림선원 ☎(0431) 292-9090~1

"일승법계도 저자 의상스님 확실"

해주스님 日 인도학불교학회 세미나서 주장


◇보광스님


◇해주스님


◇혜원스님


◇현종스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저자는 의상(義湘)스님이 확실하다."

지난해 11월 '화엄일승법계도'의 저자 논쟁에서 제기된 오스트렐리아의 불교학자 존 요젠슨 교수(John Jorgenson · 그린피스大)의 "지엄(智嚴) 저작"주장(본지 153호 9면 참조)에 대해 '일승법계도의 저자는 의상(義湘)임에 변함이 없다'는 반박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5~6일 일본 요코하마 츠루미대(鶴見大)에서 열린 인도학불교학회 제49회 학술대회에서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의 저자 시비(是非)에 대한 시비'를 통해 "요젠슨 교수가 '지엄 작'의 근거로 제시한 〈방산석경 · 房山石經〉은 그 사료적 가치가 의심된다"며 "일승법계도는 그 전체가 분명 '의상 작'임이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요젠슨 교수는 지난해 "법성게(法性偈)는 지엄이 짓고, 그 법성게를 해인도(海印圖)에 맞추고 주석을 붙인 것은 의상"이라고 밝혔었다.

이에대해 해주스님은 '일승법계도'가 의상스님의 저술임을 밝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방산석경〉에는 중국의 3대 화엄종조로 일컬어지는 두순(杜順) · 지엄 · 법장(法藏)의 저술 세가지가 각인돼 있음에도 두순과 법장의 저술은 친저자가 아님을 밝히면서 일승법계도만 지엄작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둘째, 석경에 각인된 서문은 요젠슨 교수의 주장처럼 법계도기(法界圖記)와 분리된 것이 아닌 법계도기의 일부로, 서문에는 반시(槃詩: 법성게와 법계도인을 합한 모양)와 서문이 동일인의 저술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문이 주석서인 법계도기의 일부라면 일승법계도는 모두 의상의 저작이다. 셋째, 일승법계도합시일인(合詩一印)이 방산석경에 각인되기 전(12세기)까지는 중국에서 지엄작으로 유통된 일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 등이다. 해주스님은 "일승법계도의 저자시비는 한국 화엄사상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승법계도의 의상 저술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광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등 4명의 국내 불교학자가 참석, 발표했다.

보광스님은 '보조지눌의 〈정혜결사문〉에 나타난 정토관'에서 "지눌스님은 정토신앙에 비판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혜결사문〉의 제7문에서 정토수행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지눌은 말법사관에 대한 부정 보다는 '유심정토(唯心淨土)'를 수용, 말법사관을 극복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종선과 보조선의 상통성(相通性)'에서 혜원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는 "보조선사상의 바탕에는 남종선의 맥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신수(神秀)가 강조하는 선교양립(禪敎兩立) 정혜등일(定慧等一)의 선사상도 내포돼 있다"며 "일반적으로 북종계에는 돈오사상이 없고 보조선은 남종계열이며, 따라서 한국선은 혜능계통의 선이라고 단정짓는 경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혜원스님은 "남북양종에 일관되는 선의 본질적 측면은 돈점(頓漸)과 정혜(定慧)가 불일불이(不一不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종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은 '신라유식에 나타난 종성론(種性論)에 대해서'에서 "신라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一切皆成說)을 취하는 일승가(一乘家)에 치우쳐 있다는 학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종스님은 〈대승기신론별기〉 등의 검토를 통해 신라의 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과 '오성각별설(五姓各別說)'에 대해 "치우침 없이 두 사상을 대등히 취급하며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보조스님 '유심정토' 수용 말법사관 극복하려했다"
- 보광스님 -

"보조선사상의 바탕에는 선교양립 선사상 내포"
- 혜원스님 -

신라유식사상은 일체개성설 오성각별설 둘다 인정
- 현종스님 -

무차선회 인터넷 1천5백건 접속

'고불총림 무차선회'의 '인터넷 생중계' 조회수가 약 1천5백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비백교학연구소 비공식 집계).

'인터넷 생중계'는 지난 7월부터 무차선회 홈페이지를 개설, '고승대법회'의 법어와 '한국선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자료 제공은 물론 토론참여와 현장음을 서비스한 기획으로, 안방에서의 간접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유게시판'에는 무차선회 이후, 참가소감 · 조사선에 관한 질문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ID '운암'님은 "인터넷 생중계는 새로운 개념의 불법전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ID '사리성'님은 "무차선회를 통해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게됐다"며 "고귀하고 엄숙한 스님들의 모습에 오히려 친근함과 정겨움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따끔한 충고의 일언도 눈에 띄었다. ID '도솔'님은 "한국선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라며 "전설같은 얘기가 아닌 중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며 난해한 선 콘텐의 대중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조사선을 뿌리내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논의는 없이 이론적인 '설'만 난무해 아쉬웠다"(ID 납자)는 지적도 있었다. 비백교학연구소는 '인터넷 생중계' 협찬사인 (주)나우컴에 의뢰, 무차선회에 대한 국외의 반응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정태혁박사 학문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총결산



인도철학의 거장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논총집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민족사 刊)이 나왔다.

정승석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등 정태혁 박사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 펴낸 이번 논총집은 정년퇴직 후 10년만에 나온 것으로, 올해 76세를 맞은 정태혁 박사의 생애와 학문활동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정박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스크리트어와 티벳어의 문법서를 저술하고 인도철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은 불교학의 원로.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에는 정태혁 박사가 동국대 재직이래 집필해온 논문 24편을 3부로 나눠 수록하고 있다.

제1부 '원리편'에는 △붓다가 본 절대자와 무아설 △불교의 삼존불(三尊佛)과 인도교의 삼신(三神) △불교에서 본 현대사회와 인간성 문제 등 실천사상의 원리라 할 수 있는 철학적 논문 13편이, 제2부 '수행편'에는 자리적(自利的) 실천수행에 대한 종교적 논문 △요가와 불교의 종교체험과 실천체계 △밀교의 실천철학과 요가 수법(修法)의 성취 등 6편이 수록됐다. 또 제3부 '응용편'에는 △불교의 정치관 △불교사상과 공산주의의 논리적 대비 △고려조 각종 도량의 밀교적 성격 등 정치 · 사회적 실천에 관한 논문 5편이 들어있다. 정태혁 박사는 서문에서 "불법을 만난 고마움과 불덕의 무량한 빛에 싸여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오랜 구도의 역정에서 법의 이삭을 주운 것일 뿐인 논문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논총 출판을 기념하는 강연회는 15일 오후5시 동국대 문화관 그릴에서 열린다.

김정은 기자

"불교고고학 정립 시급하다"

양정석씨 보조硏

사지(寺址)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가능케 할 불교고고학의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월22일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 제16차 월례발표회에서 양정석씨(고려대 강사)는 '사지고고학(寺址考古學) 서설'을 통해 "사지는 일반 건물과는 달리 입지 선택에서부터 건물의 배치, 중건과정 등이 철저히 종교적 의도에서 이뤄진 만큼 불교교리 이해에 바탕한 불교고고학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양씨는 일본은 이미 1937년에 불교고고학을 경립했음을 강조하며 "절터가 발굴조사되기 시작한지 1백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종합적 연구의 부재는 물론 발굴성과를 토대로 미술사학, 건축사학, 지리학, 조경 등의 연구에 대한 깊이만 더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학술단신

가산硏 수강생 모집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98 제2학기 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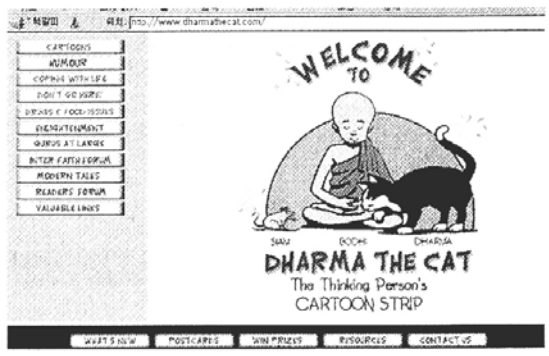
개설과목은 △〈경전전등록〉 강독 △한국불교금석학-조선편 △범어 · 티벳어 원전 △불교한문강독 등이다. 개강은 17일. (02)765-9602

'불교미술' 15집

동국대 박물관(관장 이기동)은 '기림사(祈林寺)의 불교미술'을 특집으로 한 〈불교미술〉 제15집을 펴냈다. △기림사의 가람구조와 그 의미(홍윤식 · 동국대) △기림사 목조건축의 특칭(김정기 · 문화재위원회) 등 6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02)260-3461

인도미술 학술회의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19일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인도미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미술과 한국미술의 관계성'을 주제로 8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02)260-3426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고양이 달마

미국 선만화가 로리 개설 사이트 4컷 만화로 보는 부처님 가르침

고양이의 기상천외한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 '달마(불법)'라는 고양이와 동승 '보디' 그리고 집쥐 '시암' 사이에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소재로 만화를 그려 인터넷에서 불법을 전파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의 유명한 선(禪)만화 작가 데이비드 로리가 개설한 사이트 '고양이 달마(Dharma The Cat)'에서는 동승 보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고 뜻하지 않는 함정에 빠질 때, 냉소적이지만 현명한 고양이와 집쥐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로 들어서 평정을 되찾고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4컷 만화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 제공되는 만화는 '시간' '집쥐의 도움으로 게임을 하는 고양이' '시험에 놓인 동승의 인내력' '죄' '법칙' '사랑이란' 등 총 11편.

이중 '시간'을 주제로 한 만화에서 고양이의 기지를 통해 동승은 존재란 실체가 없으며 단지 현상일 뿐이며 '지금 이 순간'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불교적 시간관을 배운다.

보디:달마야 5시에 밥을 줄께 그때까지 명상하고 있어.

(보디는 방을 나간다)

달마:시간은 실체가 없어. 이렇게 돌려 놓아야지.

(달마는 시계 바늘을 돌려 5시를 만든다. 잠시후 방에 들어온 보디가 웃는다)

보디:시간은 미망(迷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배웠으니 명상이 헛되지 않았어.

이 사이트에서는 만화와 함께 각 주제에 대한 불교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전 · 불서 등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텍스트 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왓트 페크남스님(베트남)의 〈삶과 시간의 법칙〉, 상가락시타(영국)의 〈시계의 시간과 유기적인 시간〉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중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현재)'을 념처(念處)로 삼고 정념(正念)하도록 가르쳤다. 세간의 시간이 비록 과거 · 현재 · 미래로 구분되지만 수행자에게 과거란 존재할 수 없는 곳이며 미래는 아직 닥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페크남스님의 시간에 대한 정의는 고양이의 괴곽한 행동과 동승의 반응을 그린 이 만화를 명확히 해제해 주고 있다.

'마음챙김'이라는 만화는 매우 우화적이다. 이 만화는 동승 보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몹시 기뻐하며 경충경충 뛰다가 '잔디를 밟지말라'는 푯말에 걸려 넘어지고, 동승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고양이 달마가 "미망(迷妄) 증후군!"이라고 일갈한다는 내용이다. 매 순간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음챙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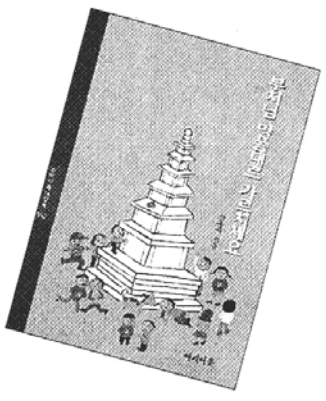
이외에도 로리가 그린 만화들의 11개 주제를 놓고 기독교 ·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만화가들이 그린 삽화도 제공돼 종교에 따라 변화하는 주인공들의 행동과 말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웃음의 창 서비스는 '찰라의 생각' 등 깨달음과 관련된 10여종의 유우머를 제공한다. http://www.dharmathecat.com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주머니 속 대장경 - 5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교육 현실의 병폐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지한 횡포에 가깝다.

김종서 지음/ B6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펴냄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한 형 조

무문관 밖에서

64

조주의 잣나무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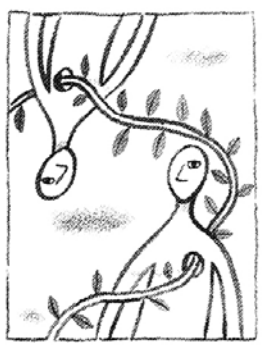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생각없이 대상과 하나 돼라"

언어는 불완전한 보조도구…이심전심은 '一心'

이때 언어나 논리적 장치도 거추장스럽긴 마찬가지이다. 언어는 사물을 기술하는 도구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규약이나 개념적 지도(地圖)를 공유할 것을 요청한다. 대개 그것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고 익힌 것이다. 그러나 선의 비밀을 꿰뚫은 사람은 그 범주를 저만큼 넘어선다. 그래서 "말은 일을 시러 펴지 못한다(言無展事)"라고 했다. 언어는 불완전한 도구이다. 언어는 한 인간의 내적 비밀을 온전히 드러내 주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 "말을 받드는 자는 잃고, 구절에 걸리는 자는 헤매게 되어 있다(承言者喪, 滯句者迷)." 일상의 감정이나 생각도 그렇거늘, 특히나 그것이 궁극의 비밀에 연관된 것일 때는 더욱 더 하다.

나의 내밀한 심리나 정서를 타자와 직통으로 연결시켜주는 언어적 통로는 없다. 언어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보조, 이를테면 공감(共感 sympathy)이나 감정이입(感情移入 empathy) 등이 필요하다. 선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 사이는 이 기제로 의사를 소통한다. 가령 깨달음을 얻고 난 후, 제자들이 스승을 대하는 다양한 반응이나 태도를 눈여겨 보라. 은근한 눈짓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동안 골탕먹인(?) 스승의 뺨을 냅다 갈기기도 한다.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큰 절을 올리기도 하지만, "당신의 불법도 별 것 아니었구만" 하고 콧바람을 뿜기도 한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모욕(?)을 지극히 당연스럽게, 나아가서는 대견하게(?) 여기는 스승의 태도이다. 그들은 그들만의 비밀스런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있다. 이른바 "마음에서 마음으로(以心傳心)" 말이다.

언어는 이때 보조적 수단일 뿐, 주요한 본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들만의 비밀'이 전제되지 않으면 말은 언제나 초점을 잃고 미끄러지며, 엉뚱한 곳으로 헤매게 되어 있다. 선사들은 그래서 말을 아끼고, 한번 내뱉은 말은 늘 다시 거두어들이려 조바심한다. 이건 창시자 이래의 전통이다. "나는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이래 48년동안 한 번도 내 긴 혀를 늘여 설법한 적이 없다." 왜 이런 터무니 없는 시치미를 떼는 것일까. 혜개의 말마따나 "말은 기틀을 던지지 못하기(語不投機)" 때문이다. 여기서 '던진다'는 말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 따위의 목표물을 건져올리는 것을 말한다. 기틀이란 주관적으로는 정신의 내적 움직임을 뜻하고, 객관적으로는 미묘한 궁극적 진실을 뜻한다. 이 둘은 본시 같은 실재의 두 얼굴이다. 원효의 어법을 빌리자면 일심(一心)은 곧 여래(如來)의 실상(實相)이고 법계(法界)의 실제(實際)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진실을 곧바로 지시해주지 못하고 늘 과녁을 벗어난다고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궁극의 핵을 묻는 학인에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대답했는가. 기실 조주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여기서 침묵으로 대답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코를 잡고 비틀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몽둥이 세례를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응답 또한 그 진의가 납득되지 못할 때는 직설적 언어와 마찬가지로 과녁을 빗나가긴 마찬가지이다. 아니, 그 방법이 래디칼한만큼 더 참담한 실패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조주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100여년을 무르익은 고불답게 온건하고 자상하고 치밀하다. 젊은이의 과격함이나 성급함이 세월과 더불어 깎인 탓인가, 그에게는 흰 수염 흩날리는 이웃집 할아버지가 어린 아이들을 이끄는 조심스런 손길이 있다.

뜰 앞에 잣나무는 일정한 대상이 아니다. 조주는 오히려 우리가 대상을 대하는 자세를 환기시키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늘 잣나무를 지나치면서도 한번도 그것을 바로 본 적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저녁 잠자리에 들면 하루동안 자신과 만나고 스쳐 지나간 사물과 사람을 그 디테일까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약속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 대상을 미끄러지면서 그 너머로 건너간다. 대개 그 지향점은 포괄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 불릴 수 있는 곳 근처이다. 어디 거래처의 사람뿐인가, 오래 같이 산 아내의 어깨에서 문득 우두 자국을 발견하고 새삼스러워하기도 한다. 우리는 늘 대상과 만나면서도 대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역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선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명상법으로 생각을 통하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볼 것을 권한다. 대상 너머로 건너뛰지 말고 대상에 사무쳐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 볼 것을. 그러나 이 수련을 해 본 사람은 안다. 1분 정도를 그럴 수 있다면 선의 비밀에 성큼 다가간 것이다. 대체로는 그렇게 못한다. 망상(妄想)이 명상(冥想)을 집요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무명(無明)의 뿌리는 깊다. 다 태우지 못한 과거의 업보가 발목을 잡고 있고, 미래에 대한 바람과 염려가 목을 짓누르고 있다. 전후(前後)를 단제(斷際)하여 현재에 즉(卽)할 수 있다면 구경(究境)은 멀지 않다. 우리가 뜰 앞에 잣나무를 보게 될 날은 언제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비우면 지혜로 채워진다"

잭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24



정념은 감추어진 몸과 마음을 보는데 가장 요긴한 수행법이다. 마음을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 좋아함, 싫어함, 즐거움, 괴로움들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항상 변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깨달아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지 대신 지혜가, 의심 대신 깨달음이 자리잡게 된다. 마음 집중은 그릇을 비우는 것과 같으며, 그릇이 완전히 비워지면 그 속에 지

정념 ③

혜가 차게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선승 스즈끼 스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상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커다란 횃불과 같이 완전히 태우라"며 "수행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고든 것을 그 불 속으로 던지고 완전히 태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끼 스님은 먼저 본질적인 대화를 중단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마음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생각의 흔적, 즉 상념을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망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날숨과 들숨, 즉 호흡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다.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를 때,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오르막 길을 오래도록 걸으면 몸과 마음은 쉬 지치고 간혹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고 싶기도 하다. 그 순간을 우

몸과 마음을 완전히 태워 상념을 남기지 않으면 내면에서 빛이 일어나네

리는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고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호흡에 정말로 집중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빛이 우리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육안(肉眼)으로 보여지는 빛이 아닌 마음 속에 타오른 빛이다. 미국의 유명한 수필가 루이스 토마스는 우주 창조의 순간을 '거대한 빛덩어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과학자들은 우주 창조의 순간을 '빅 뱅(Big Bang)'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 순간에는 어떤 충격의 소리(Bang)도 없었다. 소리는 대기 중에서 에너지의 상승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 그것은 비어있는(空) 검은 빛깔의 공간일 뿐이다. 그렇다면 '빅 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빛이다"라고 말했다.

마음이 항상 깨어있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나 정확히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집중이다. 자신의 육체와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당처에 완전히 밀착 집중시켜 그 진행되는 상태의 성질을 분명히 파악하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적나라한 자연적 성품을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자신의 육체적 활동 혹은 호흡의 진행 상태나 감각적 느낌이 변화되는 상태를 현상에 두어 관찰하여 알아차리지 못하면 먼저 마음이 산란해지고 경계와 현상 따라 작용하여 한량없는 분별심을 낳게 된다. 또 나의 행동 내 마음의 작용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집중된 마음을 갖지 못해 진정한 수행을 이끌 수 없게 된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 느낌, 마음의 작용 등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관찰하여 그것의 자연적 성품을 보게 하며 일어나고 사라지는 진리를 깨달으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아잔차 스님은 말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과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느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번뇌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 모든 자연적 현상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여 면밀하게 관찰하라. 모든 현상에 대한 자연적 성품을 보게되며 깨닫게 되며 자기 자신이 무엇이며 몸과 마음이 무엇이며 자신은 무엇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혹은 책이나 얻어들은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가장 바르고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지하게 반조하며 게으름없이 노력정진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73

불교와 수학

68

일본 불교 특성

김 용 운

일본 불교는 조사 신앙 수학도 한부분 집중 연구

고대 일본 문명은 한결같이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열렸다. B.C 4~A.D 3세기는 일본 농업혁명의 시기이다. 이때 주로 한국 남부지방에서 벼농사와 청동기 문화가 들어갔다.

농경문화에 관련된 일본 고대어는 한국어와 같은 어원을 갖는 것이 많다. 일본의 국가혁명(통일국가)은 4~5세기경 백제계의 기마군사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의 일본의 샤먼(무당), 곰신앙에도 고대 한국어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가령 일본어의 곰은 구마(くま)이며 신(神)을 뜻하는 가미(かみ)는 한국어의 검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

일본의 제1차 종교혁명은 백제로부터의 불교전래로 야기되었다. 당연히 당시 불교경문은 백제어로 읽었으며, 일본어의 사찰을 뜻하는 '테라(寺)'는 백제어의 '절'을 어원으로 둔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은 일본어의 '부처'라는 말이 한국어와 전혀 관련이 없이 '호또케(ほとけ)'라는 데 있다. 한국어의 '부처'는 '부다(Buddha)'에서 나왔으며 일본불교가 백제어에서 건너간 것임으로 '부처'와 관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과 전혀 무관한 '호또케'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수수께끼를 밝힘으로써 일본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백제로부터 일본 왕실에 보낸 것은 빛나는 금색의 불상과 경문이었다. 이때 일본 조정은 처음 보는 장엄한 불상에 놀라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저명한 일본의 불교학자 우매바라 교수는 일본불교의 밑뿌리에 '지옥의 사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불교에서는 지옥의 무서움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부처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 밝은 한국의 절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일본의 절이 모두 어둡고 금방 지옥의 사자라도 나올 것과 같은 섬뜩한 분위기를 주는 것도 이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또한 일본 신도(神道)는 한국으로부터 건너간 무당(샤먼)신앙인데 유별나게 탈을 강조한다. 신은 탈(재앙)을 부리는 무서운 존재이며 인간은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신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요컨대 일본의 불교가 지옥의 사상이라면 일본 신도의 본질은 '탈에 대한 무서움(탈의 사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한국어의 '탈'과 일본어의 '타타루(たたる)'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타타루(Tataru)'에서 가운데의 한 음절 '타(ta)'가 빠지고 한국에서는 '탈(Taru)'이 된 셈이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호또케(Hotoke)는 무엇일까? 한국어의 '놀라다'를 '호들갑'이라고 하는데 로마자로 표시하면

Hodulkap→Hodukap→Hoduka→Hodoke

이다. 즉 한국어의 '호들갑'은 위와 같이 변해서 일본어의 '호또케(ほとけ)'가 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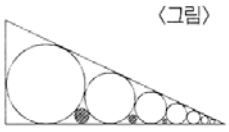
일본인은 집집마다 불단과 같은 신단을 차리며 한 집안에 모신다. 이들은 본질적으로는 신불(神佛)의 구별이 없다. 다만 불단은 즉은 조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신은 탈을 부리고, 부처는 놀라움을 주는 존재이며, 사람은 그 앞에 벌벌 떨며 위대한 초월자에게 기대어 구원을 바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높은 돌비석에 새겨진 '조일우(照一隅·한 곳만을 비춘다)'라는 구절이었다. 높은 산에 '광대한 천태산의 중심이 한 곳(또는 한 구석)만을 비춘다'라는 비석이라니? 일본불교는 어느 종파건 조사(祖師·종파의 창시자)에 대한 신앙, 또는 불교 가운데의 한 구절만을 열심히 외운다. 여러 위대한 스님 가운데에서 가까운 조사(祖師) 한 사람에 귀일(歸一)하고 경문 가운데의 한 구절 또 한 구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보편성보다는 탈을 두려워하고 놀라움을 달래는 것을 종교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전통 수학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편성(한국)과 한 구석만을 파고드는 성격(일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 그림처럼 일본의 전통 수학은 주어진 도형(원, 삼각형 등)에서 계속 작은 공간을 파고들어 가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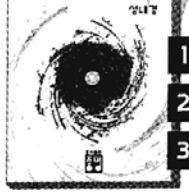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친경상 불림인 현화사상의 전모와 진수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I II III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무식으로의 여행이다.
계속 무식해지고 무식해져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불일 수 없을 때 진리가 드러나리라.
지식으로 도(道)를 얻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다면 세상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모두 다 도사(道士)가 되었을 것이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하룻밤 꿈 이야기
전 3권 완간!!!
1권 길은 길이 아니고 도는 도가 아니다
2권 걸림없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와 달이 빛나면 어둠은 없다

이 책과 인연있는 사람에게 바라거니와 받아서 가득 찬 마음보다 주어서 텅 빈 가슴이 될지니 이로써 보살행, 부처행을 하소서 성내경 지음/각 권 15,000원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보약도 나쁜이다■정력제는 없다■화장을 지워라■담배가 그렇게 유해한가■착한 일을 행하지 말라■애완동물은 사람이 아니다■운동을 하지 말라■참된 종교와 사이비 종교■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건강 염려증■병도 소질이 있어야 걸린다■여자는 자식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차라리 폐라! 교육은 이해나 설득이 아니다■몽둥이 외에는 약이 없다■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웃기지 않는 것은 도가 아니다■성불도 인연따라 일어난다■스스로 최상승의 근기를 만들라■묘법연화경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부처님 말씀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부처님은 왜 이 세상에 나오셨는가■악법은 법이 아니니 지킬 필요가 없다■

中明 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밝게하여 준다는 뜻의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도서출판 조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대수빌딩 201호 TEL 636-6873 FAX 636-6874

각종 암·백혈병 치료

(現代醫化學의 克復, 신비의 효능 책임치료)

♣ 생체의학 : 스님의 비법 ♣

우연한 인연으로 일본의 나고야에 있는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칸즈 다쓰이시박사를 접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의 선친과 형이 肝癌으로 사망했고, 그도 癌으로 胃와 十二指腸까지 절재했으나 癌은 肺에까지 파급되었고, 현대의학에 반기를 든 그는 고통스런 투병속에서도 자연과 약초 연구에 몰두하기를 30여년 동안 약초 1천 5백종을 연구 실험하였으나 효과보다는 무서운 부작용으로 인해 무수한 동물을 희생시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평소 즐겨먹는 자연식품으로 범위를 좁혀 숫한 연구와 실험끝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旣成醫化學에서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우수한 효과와 실적의 개가를 올릴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몸에 좋은 성장 신체의 원동력이 되는 무려 30여종의 항생물질이 형성되며 그 중에서도 특히 癌세포에만 달라붙는 아미티로진 또는 아지티로진 같은 특수한 물질이 형성되는데 암세포만 발견하면 즉각 달라 붙어 癌세포를 에워싸므로 3일이면 癌세포 활동이 중지되고 한달이면 癌세포가 자동적으로 인체의 體세포로 전환됨으로 초기에는 한달이면 가능하고 2-3기는 3개월 말기의 癌환자라도 1년-1년6개월이면 정상회복된다. 또한 이 방법으로 회생하면 體내의 면역이 생겨 다시는 癌에 걸리지 않는다. 임상 실험결과 豫防醫化學 硏究所의 로버트 죠 박사는 상상을 초월한 효능으로 1천여명의 치료대상 인원중 99%가 완전정상 회복되었고, 정상인에게 4개월 복용시킨 결과 20년은 젊어졌으며(체성장세포) 건강 진단의 생체리듬상 74세까지도 생리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나올수 있을만큼 체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발표한바 있다. 다만 절차상 까다로운 기술 요법상 다량화 또는 현대의학에 접목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아직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완치가 되고 난후 다소나마 불시에 도움이 되어 주실수 있는 분에 한하여 몇분만을 접수받아서 정성껏 모시고 치료에 임하고자 하는바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전국의 권위있는 병원등에서 검증후 완전 회복되지 않았으면 치료비는 물론 일체의 도움받지 않습니다. (백혈병 5~6개월 완치)

건강(健康)은 건강할 때 잘 지켜야

젊음을 더 젊게, 돌아온 回春

사람은 누구나 젊음을 간직하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生"의 주변에는 內外的많은 요인들이 시시각각 엄습해 옴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쇠해지고 건강 또한 잃게 되는것이 보편적 정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제한된 지면을 할애하는데 있어 전문적 이론등은 기술할 수 없음으로 요약하건데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人間의 體內에는 수많은 성장세포가 있고 그 성장세포의 촉진으로 하여금 태어나서 일정기간 상향곡선을 그리며 성장했다가 40대가 되면 다시 하향곡선으로 쇠퇴해가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차츰 늙음을 향해가는 노쇠현상이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생리와 자연현상을 뉘라서 막겠는가? 그런데 旣成醫化學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려 30여종이 넘는 성장體세포가 형성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위, 십이지장, 폴립, 심장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불면증, 팔다리 아픔, 피로, 비만, 근무력증 등의 환자는 한달치료로 가능하다. 요즈음은 의외로 건강한 사람들중 주문 요청이 많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고 또한 이곳에는 佛事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필자의 본분이 修行자임을 감안 약값을 받는 상인이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바이며, 청정도량의 공덕불사에 조건없이 보시 동참 하실분에 한하여 직접 배달해 드릴 예정이다. 굳이 가격을 논하지 않고 無常布施 하실수 있는 분만 來訪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부산등 대도시권에 한하여 배달가능함.
4일간격으로 계속 배달함.

※ 病환자중 현재까지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병원에서는 회생불능 판정으로 수술까지도 거부당한 극한 상태였으나 다행히 전원 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마지막에 단계에서 오시면 너무 많은 시일과 어려움이 따름으로 초기에 오시면 간편히 치료됩니다. 유방암, 자궁암은 말기라고 해도 2-3개월이면 흔적도 없이 완치됨. 각종 암 수술후 재발방지 필요한분 연락바람.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담전화 : 직통 ☎ 0547)437-4136 , 437-4135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왕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의 종이부처님 '건칠지불'.

'98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건칠지불'

'불교예술의 힘'

23년동안 불교작품 9점 대통령상…특별상 이상 30여점

불교 전통공예가 우리민족의 공예문화에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정덕용)이 올해로 23회째 개최한 전승공예대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 9점이 입상권에 들었다. 해마다 불교 작품이 전승공예대전에서 다수 입상권에 드는 것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공예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입상작은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상기호씨의 '건칠지불'과 함께 △특별상: 금니미륵하생경변상도(허천석) △장려상: 지장보살 목판(조정훈) △운룡도와 반자문양(김미숙) △입상: 목바리대(김영돌) 영산회상도목각탱화(허길룡) 지장도(문종입) 화장찰해탱화(최운정) 법고(이정기)등.

불교 작품이 전승공예대전에서 수상권에 든 것은 제4회(79년)때부터다. 박균석씨의 법고가 대통령상을 받은데서 시작해 그간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만 8번에 걸쳐 불교작품이 최고의 기량을 인정 받았다. 특별상 이상의 순위에 든 것은 모두 30여점에 이른다.

93년 '16나한도'로 대통령상을 받았던 김의식씨는 "불교 전통문화는 우리민족의 공예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왔다"며 "민족의 문화를 이끌어 온 종교로서의 불교의 공예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예품이 갖는 생활용품으로서의 의미여 종교적 의미를 부합시킴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예술 장르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 전승공예대전의 대통령상 수상작 '건칠지불(乾漆紙佛)'은 특별하다. 그간 제작기법이 전해지지 않던 지불을 재현해 냈기 때문이다. 건칠지불이란 종이부처님을 말한다. 닥종이로 불상의 기초를 세우고 종이와 삼베, 모시를 얇게 붙혀가며 옻칠을 거듭한 후 마지막으로 금분을 도금해 불상을 완성하는 것. 그러나 종이부처님을 만드는 비법은 근대이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고려시대에 종이부처님이 다수 제작됐으며 그 전통은 조선후기까지 전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은 상기호씨는 그 잊혀졌던 제작법을 한지공예의 기법을 응용해 만들었다.

때문에 상씨의 작품은 심사과정에서 전통 불교문화에서 잊혀진 장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계기로 높히 평가 받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는 전승공예대전의 기류를 불교 전통 공예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

그러나 전승공예대전은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상의 권위에 해손을 입기도 했다. 지난해의 경우 대통령상에 선정됐던 전권석씨의 '버선농'이 선정취소되기도 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심사과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개정해 실사작업을 통해 작가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상기호씨의 개인 경력과 제작과정에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이 일고 있어 수상자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심사과정의 실사경위와 작업과정 등을 새삼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승공예대전은 조계종이 주최하는 불교미술대전과 함께 불교전통 공예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란 인식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상작들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중요문화재전시관에서 볼 수 있다.

암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역대 전승공예대전 불교관련 수상작 (특별상 이상)

제4회(79년)대통령상: 법고(박균석)
제5회(80년)대통령상: 연(강대규)
제6회(81년)대통령상: 자수괘불(한상수)
특별상: 수가사(이현향)
제9회(84년)문화공보부장관상: 자수지장보살탱화 (최유현)
특별상: 법고(김진철 이정기)
제10회(85년)특별상: 금니가사탱화(박정자)
제11회(86년)대통령상: 금니부모은중경병풍(박정자)
제12회(87년)특별상: 자수탱화(김태자)
제13회(88년)대통령상: 자수만다라(최유현)
특별상: 여래삼존도괘불(김영방)
특별상: 자수태장계만다라가사(남상민)
제14회(89년)대통령상: 법상(박찬수)
특별상: 금니영산회상도(이인섭)
제16회(91년)대통령상: 자수법화경보살도(김태자)
특별상: 단청문양금니병풍(양선희)
제17회(92년)특별상: 대방광불화엄경화엄법회도 (양선희)
제18회(93년)대통령상: 16나한도(김의식)
특별상: 불자(김기찬)
제19회(94년)특별상: 나전경함(김성호)
제20회(95년)문화체육부장관상: 목각수월관음도목판 (조정훈)
특별상: 천불도(이영란)
제21회(96년)국무총리상: 철제입사염주함(이경노)
특별상: 사방천불탱화(김용우)

"완벽한 지불 재현 몰두"



"20년이 넘는 세월을 전지공에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간 맥이 끊어졌던 '건칠지불'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상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내려 준 것은 이 분야에 더욱 매진해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라는 격려라 생각합니다."

제23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상기호씨의 소감이다. 상씨는 한지공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 기림사 지불(보물제415호)과 장육사지불(보물제993호), 백양사 극락보전, 불국사, 다보사, 불회사 등의 사찰에 모셔진 지불들을 친견하며 지불 제작기술의 복원을 발원했다. "제작기법이 소개된 특별한 자료가 없어 고생이 심했다"는 상씨는 "전지공에 기법과 아버지에게 전해들은 내용 등에서 제작기법을 고안해 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물기법을 응용해 불상의 외형을 종이로 뜨고 닥과 모시, 삼베, 생옻 등의 재료를 안으로 붙혀 나가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몸에 옻이 올라 며칠간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여를 매달려 수없는 실패끝에 기어이 한 작품을 성공했다는 것.

"앞으로 보다 완벽한 지불의 재현에 몰두하겠다"는 상씨는 수상작 발표이후 자신의 제작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과 관련, "도금방법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을 두고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올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상기호씨



◇특별상 '금니미륵하생경변상도'.





①장려상. 운룡도와 반자문양.
②입상. 법고.
③입상. 지장도.
④입상. 목바리때.



간절한 마음과 공경 표현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15

합장

두 손을 마주대는 합장은 원래 고대 인도 사람들의 인사법의 하나로, 이것과 저것이 하나이고 몸과 마음, 너와 나, 선과 악, 중생과 부처 등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 담겨있다.

합장한다는 것은 두 손을 하나로 합침으로써 하나로 모아진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상대방을 지극히 공경한다는 마음의 표시이기도 하다. 합장에는 '12 합장'이라 하여 12가지 모습의 합장이 있다. 합장은 세계 불교신도들의 공통된 인사법이지만 기독교에서도 기도할 때 손을 모은다.

왼쪽 그림은 감로탱화의 일곱 여래가 합장을 하고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그림은 말구유에 놓인 아기예수를 성모마리아가 합장으로 경배드리는 모습이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청룡사 감로탱화(부분). 1682년.



◇카를란다이오 作 '목자의 경배'(부분). 1485년. 사세티에배당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생사품(生死品) ②

身四大爲色 신사대위색
識四陰曰名 식사음왈명
其情十八種 기정십팔종
所緣起十二 소연기십이

이 몸뚱이는 사대로 형체 꾸미고
의식의 네가지 쌓임을 이름 삼으며
그 정은 열여덟가지
연기는 열두가지 이네

神止凡九處 신지범구처
生死不斷滅 생사불단멸
世間愚不聞 세간우불문
蔽闇無天眼 폐암무천안

영혼이 머무는 곳 무릇 아홉 곳
돌고돌아 생사 끊이지 않건만
세상의 어리석은 이 듣지 않아서
덮이고 어두우니 하늘 눈 없네

自塗以三垢 자도이삼구
無曰意妄見 무왈의망견
謂死如生時 위사여생시
或謂死斷滅 혹위사단멸

탐진치 세가지 때 스스로 겹 바르고

如火隨形字 여화수형자
着燭爲燭火 착촉위촉화
隨炭草糞薪 수탄초분신

정신이 몸을 빌어 이름 붙여지은 것
마치 저 불이 물질의 생김새 따라
초에 붙이면 촛불이 되며
숯·풀·마른똥·섶에 따르면 그 불이 되네

心法起則起 심법기즉기
法滅而則滅 법멸이즉멸
興衰如雨霑 흥쇠여우박
轉轉不自識 전전불자식

마음에서 한 법 일어나면 마음도 일어나고
법이 멸하면 마음도 멸하는 것
흥하고 쇠함이 마치 비와 우박같아
돌고 돌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네

識神走五道 식신주오도
無一處不更 무일처불갱
捨身復受身 사신부수신
如輪轉着地 여륜전착지

식신이 다섯길로 내달아서
한곳도 바뀌지 않음이 없네

"남 모르게 행하고 말없이 이르는 곳 가는 곳마다 메아리가 응하듯 한다"

눈이 없어 견해가 망녕 되니
이른바 죽음이 생시와 같다 하고
혹은 죽으면 끊어진다고 한다

몸 버렸다 다시 몸 받는 것
마치 바퀴가 구르면서 땅에 붙는것 같네

識神造三界 식신조삼계
善不善五處 선불선오처
陰行而默到 음행이묵도
所住如響應 소왕여향응

如人一身居 여인일신거
去其故室中 거기고실중
神以形爲廬 신이형위려
形壞神不亡 형괴신불망

의식·정신 작용이 삼계 만들고
좋고 나쁜 다섯곳 만들어 낸다
남모르게 행하고 말없이 이르는 곳
가는 곳마다 메아리가 응하듯 한다

마치 사람이 한 몸으로 살면서
살던 낡은 집 버리고 떠나듯이
정신은 형상으로 집을 삼다가
형상이 무너져도 정신은 죽지않네

欲色不色有 욕색불색유
一切因宿行 일체인숙행
如種隨本像 여종수본상
自然報如意 자연보여의

精神居形軀 정신거형구
猶雀藏器中 유작장기중
器破雀飛去 기파작비거
身壞神逝生 신괴신서생

욕계 색계 무색계 있어
그 모든것 숙행에 인연한다
마치 씨앗이 본래 형상 따르듯이
자연스런 그 갚음 뜻한 바대로 이네

정신이 몸뚱이서 거처하는 게
마치 새가 그릇 안에 갇혔다가
그릇 깨어지면 날아가듯이
몸이 무너지면 정신은 딴 곳으로 간다

神以身爲名 신이신위명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언제나 이생 떠날

지혜스님 〈밀양 대법사 조실〉



약력
- 1924년 진주 生
- 37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은사로 입산
- 38년 동산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범어사 강원 대교과 수료.
- 40~43년 금정선원 3년 정진
- 44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수지
- 44~45년 해인사 선방서 정진
- 45년 3~8월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 등서 만공스님계사로 구족계·보살48계 전수
- 45~54년 범어사에서 해방맞은 이후 전국 선방서 수행
- 55~62년 충북 단양 조계산 원통암 나운화상 토굴에서 오도정진
- 62~69년 월정사 등 전국 선방 주석
- 現 밀양 대법사(옛 표충사) 에 주석

입산 득도한지 61년 세월을 선(禪)수행만 했습니다. 오직 은사이신 동산스님께서 "너는 참선수행만 하거라"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의지한 채 말입니다. 어려서 통진출가해 은사스님은 내게 부모이자 스승이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속 깊이 은사스님의 은덕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훌륭하신 은사스님 덕에 제방의 크고 작은 선방에서만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 되도록 큰 절 주지 한번 하지 않았으니까요.

은사스님의 가르침을 곰곰히 새겨보면 일대사 인연을 다 깨달으라는 것이고, 내안의 불성(佛性)을 잘 드러내는 지름길로 이끌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불교와 인연지어진 불자라면 몸을 받은 금생에 반드시 닦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두가지 문(門)이 놓여 있어요. 이 두 문을 모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손바닥의 앞 뒷면과 같아서 함께 지녀야 합니다. 그 하나는 교문(敎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문(禪門)입니다.

교문은 보살48계 구족계를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선문은 선방에서 7~8년 있어야 비로소 기초를 알게됩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이 다하는 날까지 정진해야 하는 것이 선문입니다.

나는 선문에 들어서서는 특히 복(福)이 터졌다고 생각해요. 당시 한국불교 선맥의 큰 봉우리이신 범어사 동산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공부했고, 해방직전 금강산 유점사 마하연에서 만공스님으로부터 보살계 48계를 전수받았으니까요. 그후 전국 선방에서 20안거를 했으니, 꼬박 10년을 매달린 셈입니다. 그후 용성 효봉 청담 한암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과 두루 교류하며 지냈지요.

한때 단양 원통암 나운화상 토굴에서 오도정진할 때 였습니다. 소백산 동쪽기슭에서 부는 바람소리를 듣고 나갔어요. 처다보는 바람결이 불 보살님의 깨달음을 알리는 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뒷날 그것이 오도정진인 것을 알았지요.

그후 오대산 월정사에서 주석하다가 남쪽 바람을 따라 현재 이곳인 밀양 영축산 옛 표충사(表忠祠)로 들어오게 됐어요. 조선조 임진왜란때 선조임금께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킨 사명대사를 기리는 뜻으로 하사하신 곳이거든. 그래서 원래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신 곳이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문무왕때 의상대사가 영주 부석사를 창건하고 학이 남쪽으로 날아와 앉은 곳에 지은 절이 백학암(白鶴庵)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가 이곳을 수행처로 삼고 있는 것은 사명대사의 혼을 잇고 불자들이 본분을 깨닫도록 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산중에 대웅전과 보궁선원 요사채를 중수하는, 크다면 큰 불사를 일으켰던 거지요. 이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보니 호국불교의

문제가 생기면 '네탓'으로 돌리니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어려워져요 크던 작던 공업이니 각자 참회해야죠

상징이신 사명대사의 큰 원력이 절실하게 와닿는군요.

불자들은 내 한몸에 얽힌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근본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4가지를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는 우선 생명의 인연을 지어준 조상을 위해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이 됐으니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참 지혜를 알게 됐으니 불교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사회를 위하는 회향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된 도리를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이 네가지를 일깨우고 실천하게끔 마음의 인연을 지어주는 도량이 이곳 대법사입니다. 형생을 절살림에는 관여한 바 없이 수행만 해온 사람이 무슨 힘으로 이 큰 불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처님 일이니까 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 도량에서는 여러분들이 불자의 도리를 익히고 새겨서 다시 마을로 가서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인연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외국에서 돈을 꾸어다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지만, 결국 총칼만 안들었지 경제전쟁이 터진 셈인게지요. 이 난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임진왜란 당시 보였던 선대 우리 스님들처럼 위기극복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탓 내탓 가리고 따지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크건 작건 우리 모두가 초래한 공업이기 때문에 각자 탓이라 여기고 철저하게 참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십을 비워야 합니다.

또한 각자 위치에서 오매불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 몸뚱이 자리가 다르지만 마음자리가 하나로 되면 그 순간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국난은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 이자, 극복하는 과정에서부터 극복이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교훈으로 새겨야 할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잘 살수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아서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한다 이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스님 한분은 다른 종

장가안가길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로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목판·동판·인쇄 복사본보다 생필인 진품이 영기와 영험이 더 있습니다.
※ 정통으로 배우는 사경예술 실습, 사군자, 달마도, 용자그림, 전수자 수강생모집. (통신도 가능)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242-0255 (야)216-0307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고 그외 나머지는 37%~84.8%의 치유효과를 보았다. (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제품 옥목걸이외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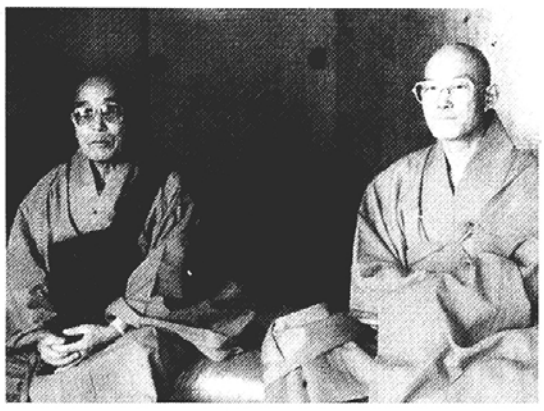
金堂藝建
목조건축(신축 및 보수전문), 단청, 탱화
개금 불상, 시왕개채, 불사 문의 및 상담



문화재 관리국 등록
보수 357호 황규원 단청 352호 박정환
보수 502호 박정환 화공 1008호 심철호
(711-830)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197-7 화원빌딩 4층
사무실 : (053)639-0407~8
F A X : (053)639-0407

큰스님 수행한담

준비하며 금생에 최선”



◇사진을 찍지 않는 스님은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거의 없다. 이 사진은 8~9년전 한 사찰 부처님점안 법회에서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사진 왼쪽)과 자리한 것을 한 신도가 찍은 것이다.

사람몸 받은 금생에 깨달아야죠
다음생을 무엇으로 보장해요
성불의 원 세워 믿고 의지하여
참선하고 염불하고 자비행 펴세요

교인 천명의 역량을 내신다는 뜻입니다. 먹물옷을 입고 계 받는 스님들이 해탈하면 사회에 베푸는 공덕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인류 중생들로 하여금 당신이 닦아놓은 탄탄한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 길따라 가는 중생들은 부처님과 같이 고통을 여의고 해탈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부처님 한 분이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세세생생 복덕을 구족케 하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세속 나이로도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았지만 내 자신이 아직 성불하지 못했는데, 그저 불교를 조금 안다는 것 만으로 함부로 안다고리 하는 것은 사실 무거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법 제자들을 만나고 대중

“육신의 욕심 좇으면 업장만 두텁게 할 뿐”
몸은 달라도 마음 하나되면 위기극복

법문을 하는 것은 내가 뭘 알아서가 아닙니다. 내 원(願)이 다른 스님들이 다 성불해도 나는 지옥고에서 헤매고 있는 중생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다 비고 없을 때 그때 성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발원을 한 것은 은사스님께서 “언제나 이생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는 말씀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고, 살아있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서 늘 쉬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사회인들이 세속 생활고로 번뇌하듯이 출가 수행자들은 어서 도(道)를 이루어야지 하는 조급함이나, 근기와는 달리 도에 대한 욕심 등이 번뇌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 보는 그 순간 또 항상 마음속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하는 염을 하면 번뇌는 눈녹듯 사라지고 맙니다.

육신은 허망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인연따라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몸뚱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 애착하고 전부인줄 아니 안타까워요. 우리의 현실 역시 그러합니다. 색안경을 쓰고 환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때요,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란 게고,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불타듯 붉은 것이거든. 사람들은 현실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믿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 환상이요 환각인 겁니다. 우리의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라는 6근을 통해 쌓인 주관을 통해 뭉쳐진 현실의식들이 마치 색안경처럼 작용한다 이말입니다.

선(禪)에서 깨달은 경지는 사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자리 참모습입니다. 선이라 해서 특이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도 선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있는 것 등 모든 행위가 바로 선이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대단히 기막힌 인연공덕의 결과입니다. 물론 인생이 풀잎끝에 맺힌 이슬처럼 허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받은 것은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난 사람인연을 허망하게 써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 참모습을 올바로 알고 깨닫는 참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선이라는 것은 생사의 절대 모순에 대해 깊이 의심해 들어가서 결국에는 움직이지 않는 평정의 상태가 돼서 마침내 생사가 없는 자기 참 모습에서 자유자재 속되는 밝은 지혜와 자아 속에서 이를 관단하고 일을 추진해 감으로써 자연히 부처님자리를 밝히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육신이야 내가 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양 살다보면 목구멍에 풀칠하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 “다음생에 어쩌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천만의 소리예요. 다음 생을 무엇으로 보장한다 말입니까.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내가 설사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드 사람의 몸을 받은 금생에 반드시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달아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을 확실히 알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또 간절하게 하다보면 반드시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아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 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쌓인 업장이 두텁습니다. 우리는 마음먹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업장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사는 것이 고통이라고 호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삽니다. 각자 얼굴은 각자의 행위와 생각의 소산입니다. 착한 생각과 행위에 의해 착한 얼굴이 나오고, 악하고 사나운 행위와 생각에 의하여 사납고 악한 얼굴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지난 업의 행위로 인하여 가난한 얼굴도 출세하는 얼굴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착실한 마음씨로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얼굴로 변해가고 그렇지 않고 남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나쁜 얼굴로 변해갑니다. 얼굴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속일 수도 없고 그 마음의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해서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몸으로 입으로 쌓은 업장을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이 당면과제의 하나입니다. 이 숙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수없이 절하고 독경하고 자비보살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불자의 본분인 조상과 나라와 불교, 그리고 사회를 위하는 일을 다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 하나만의 자유는 방종입니다.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전인류 차원의 자유와 당아있을 때, 그때 진실된 자유가 되는 게지요. 지금 우리는 지나친 자기이익에만 급급하고 부의 축적을 도모하고 있지나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나 하나만의 안전과 복락만을 꾀해서 마침내 전체가 파국에 직면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지탱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탐욕스런 자기모순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전체가 자유와 복락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안의 부처자리를 믿고 동체대비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김 병 규

〈문화일보 논설위원〉

십만배 하니 몸과 의식 큰 변화
“수행을 한가한 일로 생각 말자”

나는 매년 한번씩 일정기간을 정해 백일기도를 올린다. 일년 365일 가운데 백일동안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한 삶을 영위하려고 한다. 이 기간중엔 말, 생각, 행동 등을 단속하려고 특히 신경을 쓴다. 매일 아침에 올리는 변식, 예불, 백팔배,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하는 백일간의 참회기도 등 두가지가 평소 수행의 큰 줄기인 셈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2년전엔 하루 천배씩, 백일동안 십만배 올리기를 한 적이 있다. 늦어도 아침 6시 반엔 집을 나서야 하는 직장인으로서 시간에 쫓기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

천배를 두번으로 나눠 아침에 6백배, 나머지 4백배를 저녁에 올리기로 시간표를 짰다. 내 체력으로 백팔배를 하는데 약 15분이 소요된다. 변식 예불 봉행에 이어 한시간 반에 걸쳐 6백배를 하고 출근하려면 새벽 3시께부터 서둘러야 했다.



퇴근이 늦어져 저녁에 해야 할 나머지 4백배를 마치지 못하는 날엔 고생이 더욱 심했다. 다음날 해야 할 천배와 전날 끝내지 못한 4백배를 합해 모두 천 4백배를 하루에 마쳐야 했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당초 결심대로 십만배를 마쳤다. 늦은 봄에 시작했는데 끝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 와 있었다. 그 해 여름 한 철은 절만 하다가 보낸 듯하다.

십만배를 마치고 난 이후 나는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몸과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불규칙했던 심장박동 등이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 웬만한 질병은 절로써 완쾌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한시간 이상 절을 계속할 때 삼매에 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솟아나는 땀과 함께 빠져나오지 않을 인체내 독소는 별로 없을 것이다. 무아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열심히 절을 해서 암(癌)을 고쳤다는 말이 그제서야 믿어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얼굴색이 희고 투명한 빛을 띈 색깔로 바뀐다는 점이다. 피부도 전보다 광광해졌음을 발견했다. 열심히 수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검누런 얼굴색이 탈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외형상의 변화는 무수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과거엔 전해 느끼지 못한 직관력, 아이디어 창출력 등이 크게 향상되고, 의식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음을 지금도 자주 느낀다.

불가항력적인 어려움들이 비켜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돌이켜 보면 불보살님과 화엄성중님의 ‘가피’라는 말 외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고 있다. 직장인, 특히 수험생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올리는 절을 많이 하길 권한다.

현대는 프로의 시대이다. 우리 불교에도 프로정신이 도입돼 불자들이 내면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도출해 내도록 힘써야 한다. 대다수의 불자들이 가진 아미추어리즘, 다시 말해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라는 나약한 수행자세로는 업(業)에 예속된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부가가치는 경제활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능력 계발, 의식의 확대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철저하게 수행하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등급을 높여주는 ‘마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

IMF고통의 극복은 물론, 지식산업, 첨단산업 등이 주도할 21세기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 불자들도 이제는 프로 신자가 돼야 한다. 깊이 간직돼 있는 지혜의 힘을 발굴해 내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행을 한가한 일로 생각지 말자. 프로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기량을 연마하듯이 불자들에게도 몸과 마음을 던져 수행하는 프로정신이 요청된다. 〈끝〉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秘)"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 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지하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 불/자/정/보(사찰) ♣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북 옥천군 군북면(故 육영수여사 생가 뒷산)
◇대전에서 15분거리
◇대지 : 180평 ◇건물 : 30평씩2동
▶ 총면적 1천평
◇양도가 : 1억 3천 정도(절충가능)
※ 전세도 가능
042)283-0990/011)426-2534 강대업합장
※ 특징 경허선사 주석도량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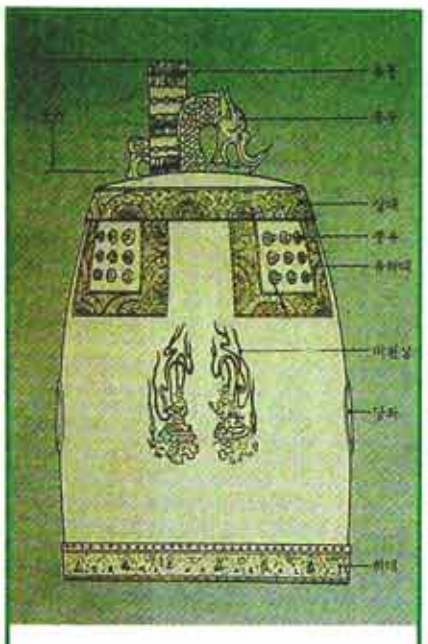
사찰 설립하실 분
◇위치 : 진주시내 산엎
◇법당 약 45평, 방 4칸, 임식부엌, 욕실 및 화장실 2개, 기름보일러 금년도 신축
◇전세금 : 4천만원
0591)746-7350/017)552-7350
김 강 철

사 찰 매 매
◇위치 : 충남 목천 국립기념관 뒤편에 위치
◇지상건물 35평 및 시설물 일체
◇법당 : 12평, 요사 30평.
◇가액 : 2,700만원
◇특징 : 저수지, 주차장, 밭
0417)567-9240

사찰운영하실분
(무상기증)
◆위치 : 경주시 / 면적 : 林 1435평
가액 : 무상기증(응자 약간 有)
건물 : 법당 11평/요사 : 15평(조립식)
◆위치 : 김해시/부지 : 田+垈 1,300坪
법당 : 20평/요사 : 24평
조건 : 노보살님하고 공동 불사 원함.
◆위치 : 양산시 원동면/부지 : 田+垈 800坪
◆법당 : 21평(한옥)/요사 : 25평(토담집)
◆조건 : 87세 노보살님 생전 및 사후 평생봉양.
◎ 각 사찰 공히 부처님 전법도량이므로 스님외 무속인, 일반인, 보살 및 투기성이 짙은 상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진국 사찰, 포교원, 시정상 양도하실 스님이나 인수받으실 스님은 부담갖지 마시고 즉시 연락바랍니다
21세기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동국불사
담당 : 조법사합장
서울본사: 02)512-4447/011)736-4447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고양신도시 능곡 행신-화정지구
◇ 건 물 : 4층의 2층 45평
- 법당, 사무실, 방 2, 주방, 욕실
◇ 고급시설, 문화재 목조 아미타불
◇ 가격 : 2천만, 월 50만
(관리비 무(無), 시설비 - 1천 3백만원)
0344)979-0212
011)667-0212

제행무상 일깨우는 영겁의 소리



범종 각부 명칭

음관 · 유곽 · 유두는 한국종만 갖춘 특징

◇용뉴(龍鈕): 용의 모양을 취한 범종의 가장 윗부분. 이곳에 쇠줄을 연결하여 종을 매달게 된다.

◇음관(音管): 용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음관은 용통(甬筒) 음통(音筒)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소리대롱이다. 외국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

◇상대(上帶)·하대(下帶): 상대는 종의 어깨 부분에 둘려진 무늬띠이고 하대는 종의 아랫부분인 종구에 둘려진 무늬띠이다.

◇유곽(乳廓)·유두(乳頭): 유곽은 상대 밑쪽의 네 곳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며 이 유곽속에는 각각 9개씩 볼똑 솟아있는 도들꼭지가 있는데 이를 유두라 한다. 그 솟은 부분 주위에 꽃관이 있는데 흡사 젖꼭지 모양과 같다고 하여 유두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유곽과 유두도 다른 나라 종에는 없는 한국종만이 갖는 뚜렷한 특징.

◇당좌(撞座):당좌는 종을 치는 당목이 직접 접촉되는 부분이다. 신라종은 이 당좌에 주로 연꽃 무늬를 새겼고 당좌를 종의 양쪽에 두었는가 하면 고려종은 사방에 네 개를 조각하였다.

◇비천상: 천의를 너울거리며 연꽃방석 위에 무릎을 꿇거나 꼬리가 긴 꽃구름을 타고 푸른 하늘에 떠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비천상은 신라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고려종은 비천상 대신 꼬리구름 위에 놓인 연꽃자리에 홀로 앉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조선종은 연꽃위에 꽃꽂이 선채로 합장한 보살이 유곽과 유곽 사이까지 올라와서 네곳에 새겨져 있다.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4

범종

종은 동서고금을 통해 때와 곳을 알리는 상징이다. 시계가 보편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종을 쳐 시간과 사건의 시종(始終)을 알렸다. 한자어 종(鐘)은 쇠로 만들고, 때리면 '동동' 소리가 나기 때문에, 뜻을 나타내는 '金' 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童' 자를 합쳐서 만든 형성자(形聲字)이다.

독특한 범종의 형태와 주금술, 그리고 영겁의 소리와도 비견되는 아름다운 종소리로 세계 명종(名鐘)의 하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우리나라 범종은 그래서 '한국종'이라는 학명(學名)을 얻게 되었다. 용뉴에서부터 종신의 각 부분에 이르기까지 금속공예가 총집합된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범종은 신라, 고려 조선 등 각 시대별 특징과 양식, 사상성을 가지고 변천해 왔다.



◇시방세계에 퍼지는 한국의 범종소리는 중생의 번뇌를 소멸시키는 법천의 소리, 법계의 원음으로 상징되고 있다.

마음으로 들어야 번뇌 소멸

상원사 범종 가장 오래된 신라의 소리

비천·연화문 대표적 한국美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
철위산의 그 어둠에서 벗어나 모두 다 밝아지소서
삼악도의 고통을 여의고 도산지옥을 허물어
모든 중생이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지이다.
願此鐘聲遍法界 鐵圍出暗悉皆明
三途離苦破刀山 一切衆生成正覺
〈새벽예불 종송〉

신새벽, 그리고 저녁 어스름, 법고 목어 운판에 이어 장중하게 28번 종이 울린다. 웅장하게 시작된 범종소리는 은은한 여운을 길게 남기며 시방세계에 두루 퍼진다. 육계의 4천, 색계의 18천, 무색계의 4천의 모든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불타는 마음을 다독이듯 가리앉히고 제행무상을 일깨운다. 장중하면서도 이슬처럼 영롱하고 밝은 그 소리는 가슴을 뒤흔들어 설레게도 하고 벅찬 감동에 가슴뭉클하게도 하며 부한한 환희심을 느끼게도 하고 긴 여운을 따라 태초의 적막에 이르게도 한다.

범종소리는 모든 중생의 각성을 촉구하는 부처님의 음성이다. 그 소리는 지옥의 고통을 쉬게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며 꿈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지혜의 소리다.

범종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일승(一乘)의 진리를 설파하는 원음(圓音)의 시자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라인의 불심과 미학, 음향학, 과학기술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혼연히 이뤄낸 한국종의 대표작 성덕대왕신종의 몸체에는 종소리를 통해 시방에 끊임없이 울려퍼지는 부처님의 원음에 항상 귀기울여 구도심을 잃지말아 깨달음의 길에 오를 것을 강조한 명문이 새겨져 있다.

현존하는 신라범종으로는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상원사종(725년)과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771년), 6·25때 불타버린 선림원종, 일본에 있는 5점 등 모두 11점이 남아 있다. 고려종으로는 용주사범종 등 총 97점(일본에 23점)이 있으며 조선시대 범종은 선암사대각암범종 등 96점이 남아있다.

연화문, 비천(飛天)상, 당초문 등 범종 몸신에 새겨져 있는 문양은 우아하고도 세련되어 한국의 공예미를 대표하고 있으며 현대 디자인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한국종으로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성덕대왕신종.



◇용주사 범종의 몸체에는 천의가 날리는 삼존상이 새겨져 있다.

■상원사 범종(국보 36호)

현존하는 신라시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8세기 전반 우리 고대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안동의 문루종이었다가 1469년 오대산 상원사로 옮겨왔다. 총 높이는 167cm 구경 91cm로서 사실적이고 힘찬 용두를 위시해 종신의 각부 조형이 극히 아름다운 수작이다. 종신의 상하에는 연주문(連珠文)의 띠를 둘리고 아름다운 화문과 당초문을 가득 채웠으며 그 사이에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을 양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곽 바로 아래 종신의 넓은 공간에는 상대되는 곳에 종을 치는 부부인 원형의 당좌를 놓았는데 이 당좌는 8잎의 연화문으로 구성되었고 종신의 양쪽 대칭되는 곳에는 일면 2구씩 악기를 연주한 쌍 비천상을 조각해 놓았는데 한 쌍의 주악비천상이 생황과 공후 등을 연주하며 우주공간을 날고 있어 법천의 묘음(妙音)을 상징하는 것같다.

■봉덕사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

높이 333cm로 신라 경덕대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위해 황동 12만근으로 큰 종을 만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승하하자 그 아들 혜공왕이 즉위 7년(771년)에 완성했다. 종구는 부드러운 팔릉형을 이루고 있으며 구대 견대 유곽의 주련을 공려한 보상화문으로 장식하고 사면의 유곽안에는 각 아홉 개씩의 연화문 종유를 넣고 유곽 아래 공백엔 나부끼는 듯 아름다운 곡선으로 비천상이 양각되어 있다. 화려하면서 박력있는 용통과 용뉴 등



◇우리나라 범종에만 있는 종고리 부분의 음관.

모두가 세련되어 이 종 전체를 온아하게 조화시키고 있어 각부의 문양이니 조형이 전형적인 한국종으로서 세계 최고의 걸작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주사 범종(국보 120호)

신라범종의 양식을 충실히 나타낸 고려시대의 범종이다. 상대의 문양은 신라범종의 문양대와 같이 반원권 문양을 서로 상하 교대로 배치하여 사이 사이를 당초문으로 장식하였으며, 하대의 문양은 연속되는 당초문으로 장식했다. 특히 하대의 주문양대 당초문은 당초가 한번 구부러지는 중앙에 8판 내지 9판의 연화문을 옥립시켜 배치하고 있는 특이한 장식법을 취하고 있다. 높이 141cm 구경 87cm.

■내소사 동종(보물 277호)

높이 103cm 구경 67cm로 고려후기를 대표하는 범종이다. 유곽내에는 돌기된 9유가 있고 유곽밖으로 중관 연화로 된 당좌가 네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종신 중간의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반개한 연화가 받치고 있는 구름위의 삼존상이 네곳에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a.com)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 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 표 김 성 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 5리 822-2
■전 화 : 0357)31-8736 ■팩 스 : 0357)31-5549
■호 출 : 012)321-6044 ■핸드폰 : 011)284-5101

20년 경험 불자 건축
·무·료·상·담·

귀의 삼보하옵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의 토목, 건축공사에도 상담을 원하시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공사
요사채, 사찰건물, 불자건물
● 토목공사
진입로 확장 · 신설. 산림제거
● 하자보수공사
누수, 구조적 결함
● 계획 및 설계
소규모라도 수시 무료 상담
● 시공 협의
완벽한 공법제시

대종건설 노광운 합장
연락처: 011)405-0703
042)863-0756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 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3개월만 복용하면 20kg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익수영진고
경옥고보다 10배이상 우수한 약효력, 9일간 밤낮으로 불로 다려서 만듬.

왕기치신환
한국에서 유일하게 1200년전 당나라 선도의술의 의성 주진형의 놀라운 비법 알약
※ 100% 우리 농산물로 가공

늦은 가을 전통죽염, 최고급 죽염간장 출시 예정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 출장) (053) 655-302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돌고 도는 이치에 자유인 도리 있어요

조급한 마음 털어내고 돌에 피가 배일만큼 "주인공 너만이 할수 있어" 간절히 놓고 관하세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문 영혼이란 무엇인지요. 모든 생명들이 몸 받을 때 한순간 생성 되었다가 몸벗으면 소멸되는 허상인지, 아니면 영원성을 가진 실상인지, 또한 영원한 생명의 뿌리인 불성과는 무엇이 다른지 자세한 가르침 바라옵니다.

답 불성이란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이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는 말이 필요없겠지요. 불성을 달리 말해서 영원한 생명이다. 한마음이다 한 것은 다 이름인데 불성으로 인해 일체만물이 들고 나게 되니 영원한 생명의 뿌리라고 해도 되겠지요.

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자주 물어오는데 내 영혼 네 영혼 하는 식으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마음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나다, 내 것이다 하며 살던 습 때문에 몸 떨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나니 너니 분별을 하게 되고 새 몸을 애타게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명을 벗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 없다를 따질 게 아니라 일거수 일투족에 얽매이지 않고 놓고 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아들이 연애에 빠져 방황해요

문 저는 57세로 1남1녀의 아버지입니다. 몇 자의 글로 큰스님을 뵈옵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처남의 안내로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가진 지 3년이나 됩니다(현대불교신문 구독도 3년이나 됩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관' 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나, 저의 마음공부 부족으로 아들은 대학 4년생인데, 고등학교부터 사귀던 소녀(고졸)가 있어, 양기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귐이 지나쳐 대학 공부를 못하고 정시 졸업이 안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방학으로 서울에서 시골집으로 왔으나 직장에 다니는 소녀와 만나 외박이 허다하며, 낮에는 집에 와서 자고 오후와 밤 활동으로 생활합니다.

아들은 1년 전에 소녀와의 불화로 목숨을 끊을 뻔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출근이 두렵고, 집에서 외출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내는 그로부터 아들 생각으로 불면증에 고생합니다. 큰스님, 저의 아들이 소녀를 가까이 않고 학생으로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관' 하는 말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으며, 이 기회로 마음공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 자녀문제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렸지요.

몸뚱이를 잡아 매려 하지말고 마음으로 통신이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관하고 계신데 공부가 부족한 모양이라고 하시지만 부족하다 넘친다로 볼 일이 아닙니다.

왜 저 돌에 피가 배일 만큼 사무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털어 내시고 오로지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간절하게 놓고 관해보세요. 놓고 관하는데 내 욕심이 끼어들어도 안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극한 믿음으로 놓고 관하는 게 아닙니다. 놓고 관하는데는 따로 조건이 불질 않습니다. 다만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 이 도리를 알아서 생활하게끔 마음을 낼 뿐이지 내가 그려놓은 모습대로 되어주기를 바라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니 그것마져도 되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사망후 큰 소송에 걸려…

문 안녕하세요?

3년 전에 저희 남편이 등산갔다가 갑작스런 사망으로 벌려논 사업을 수습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나쁜 사람만 많고 도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감각과 이론으로 지금은 제자리에 올려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똑똑해서 잘 처리하고 이끌어 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육신은 갔지만 영혼은 내마음 속에 자리잡고 나를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봐도 대견스럽게 느껴지고요, 뭔가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제게 마음공부를 권해서 접한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남편과의 채권, 채무, 토지 등기 이전에 문제가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남편 도장을 만들어 찍어 공문서 위조를 하고 모든 것을 망인한테 떠밉니다. 형사소송을 해야 돼서 당시(97년 4월)지원장 스님께 상의를 했습니다.

전생에 악연이 있어서 그런지…

착을 두지 말고 놓고 지켜 볼까?

결과는 소송을 하고 주인공 자리에다 열심히 관하고 저는 열심히 심부름만 해준다고요. 일심에서 무혐의 처리가 되어 다시 항고해서 지금은 불구속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중입니다. 검사도 심증은 가지만 증거가 없어 불리하답니다.

망인이 증인으로 나와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영혼이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과거의 업으로 보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주인공 자리에 열심히 관할까요?

이 생에서 부부 인연을 맺어 20여년을 살다가 말 한 마디 없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남편한테 배신감이 느껴져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살다가 가는 것인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전자에 뿌려놓은 씨앗이 현실에 싹이 터서 그렇고 그 아픈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은 또 그사람대로 인과성이지요.

그래서 내게 닥쳐오는 애고가 다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재료인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열심히 믿고 말겨서 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인과성 업보성을 잘 모르니까 팔자운명이 어떻다고 하는데 전자에 녹음한 것이 솔솔 흘려 나오는 것을 나온 자리에 되 놓는다면 테이프가 지워지듯이 그렇게 지성으로 놓고 관해야 병고액난도 녹아내리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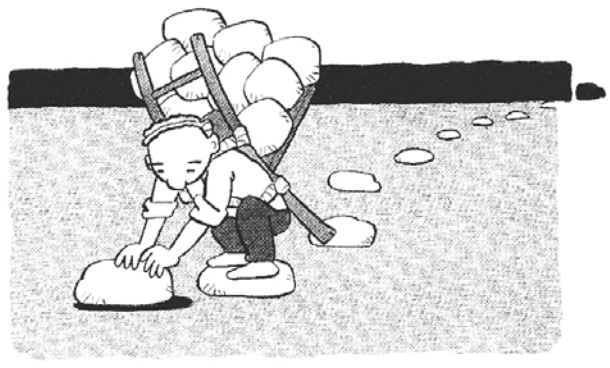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고 맡기고 관하는데 웃고 사는길 있어 잘살고 못사는게 다 자성부처서 나온것

이혼녀인데 재혼 두려워요

문 깊이 삼배 올립니다. 제가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됐을 때 10년 안에 헤어진다는 말이 있어 신랑과 함께 큰스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스님께서 "잘 살거야" 하셨는데 제가 결국은 살아내지 못하고 3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전의 사람과 같다며 저번처럼 살고 싶으면 살라고 그런 말이 들려서요.

스님께 우문 드려 죄스럽습니다. 전철을 다시 밟게 된다면 그 많은 죄를 어쩌게요. 스님 꼭 참회하는 방법과 제가 붙들고 갈 말씀이 있다면 도와 주십시오.

답 자기 주장자를 믿고 자기 주장자에 의지해야지 밖으로 누굴 믿고 다른 형상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나를 형성시킨 그 자리, 나를 이끌고 가는 그 자리, 건강하게 사는 것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자성부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로 누굴 믿고 누굴 따르겠습니까? 자성부처라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 불러도 좋고…, 바로 나를 형성시키고 이끌고 있는 한마음 주인공 그 자리를 믿고 항상 놓고 관하세요.

팔자운명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입니다.

사는게 돌고도는 이치 같아요

문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본다면 고양이가 쥐를 좇는 현상이지만 고양이가 고양이 모습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한 쥐가 쥐 모습만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좇는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이치다 생각됩니다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잘 아시는 군요. 그렇게 돌고 도는 이치 속에 대자유인이 되는 도리가 있으니 그건 어쩌시려구요?

딸아이가 거짓말을 합니다

문 저희집 딸아이가 재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답니다. 학원비를 주면 내지도 않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학원에 몰래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빠 카드를 몰래 가져다가 은행에서 돈도 찾아 간답니다. 저희가 어떻게 지도를 하여야 되는지요. 올바른 지도를 가르침 주십시오.

답 본래 둘이 아닌 도리를 굳게 믿고 '주인공, 너만이 바르게 인도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열심히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딸아이에게도 관하는 법을 일러주시고 말입니다.

성격차로 아내와 불화잦아

문 평소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스님의 마음 공부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마음 속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 삶의 과정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신병 등 여려 가지 고뇌, 고충과 고통이 많습니다만 그때마다 큰스님의 삶의 지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마음공부 노력을 조금 합니다. 그러나 그 고충들 중에서도 해결 안 되는 고민 한 가지를 하소연하오니 가르침을 청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가정화목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집사람과의 불화입니다. 제나름대로 맞추려고 애씁니다만 화목은 저 혼자 노력만으로 안 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성격부조화, 생각의 이질 등으로 말할 때마다 부딪치고 감정이 상하여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밝지를 못합니다. 화목하고 밝은 가정이 저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지혜로우신 가르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답 전화 벨이 울려도 받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겠지요.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부인께도 마음공부의 도리를 일러주세요.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격이 안 맞는다, 생각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규정짓지 마시고 그것까지도 놓고 관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사 실패하고 생계 힘들어요

문 장사하다가 운영이 어려워 많은 손해를 보고, 남편은 제부의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했습니다.

같이 의논하다 보니 제부와 남편은 서로를 비하시키는 실정까지 되었습니다.

저 역시 동생에게 섭섭하고 예전 같지 않은 위치, 체면에 갈등이 큽니다.

이제 벗어나겠지 하지만 한편으론 건물이 팔려 이 자리에서도 쫓겨나지 않을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3)

우상을 믿고 마군을 모시고 살면서 복을 원하나.

"마음을 잘 쓰라, 생각을 바르게 하라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모름지기 자성부처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 놓은 상태에서 묵묵히 한 발 떼어 놓는 것, 그것이 생활하는 가운데 바름에 이르는 길이다.

내게 닥치는 일체의 경계에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대신, 그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여 한 생각 선하게 돌리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요 부처를 닮는 길이요 내 속에 부처를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된다.

반면에 경계마다 남을 원망하거나 또는 착을 두어 욕심을 낸다면 그 생각 하나에 그만 모든 일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삶의 길은 지옥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 생각에 천당 ·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니 그래서 마음을 잘 쓰라고 하는 것이다."

안되면 조상 탓 잘되면 제 탓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일 즐거운 일은 모두 다 제가 잘해서 그리된 줄로 알고 나쁜 일 괴로운 일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인 줄 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는 나머지 좋은 건 내 몫, 나쁜 건 남의 몫으로 돌린다.

물론 깨달은 이가 아닌 다음에야 불행한 일을 즐겁다 할 수 없고 나쁜 일을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을 내 탓으로 돌려 녹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스스로 업을 짓는 결과가 될테고, 스스로 업을 지었으니 다시 스스로 보(報)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면서 스스로 손해볼 짓을 하는 셈이니 이기적인 계산치고는 참으로 어리석은 계산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왜 그런 계산을 모르는 것일까.

내 안에 불성이라는 참보배가 있어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마음 안에 부처를 모시고 사는 까닭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부처가 곧 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속의 부처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그 이치를 믿는 불자라면 누구나 그리해야 마땅할 것이다.

더우기 내 속에 이미 모셔진 부처를



받들고 예경하는 일은 곧바로 나를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하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이 될 터이니 중생의 얄팍한 자기사랑식 계산법으로도 그편이 훨씬 나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그점을 잊고 사는 것일까.

내 속에 부처를 모셔놓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부처를 외면하고 대신 우상을 숭배한다. 도둑을 모시고 마군을 받든다.

탐 · 진 · 치 삼독이 우상이요 오욕칠정이 도둑이요 삿된 소견이 마군이다.

청정한 부처님은 골방에 쳐박아두고 우상 · 도둑 · 마군을 안방에 모시며 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도둑과 한 집에 살고 마군과 동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도 내 삶이 즐겁고 내 가정이 행복되고 내 사회가 잘 될수 있기를 바란다면 이는 애초부터 어불성설, 말이 안된다. 스스로 불법을 훼손하고 스스로 부처를 멸시하고서 어떻게 좋은 보(報)를 기대하고 희망할 것인가. 썩은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농부는 없을 것이다.

그런 농부가 있다면 그를 어떻다고 평할 것인가.

쇠를 잘 버려서 불순물을 제거하면 녹슬지 않는 쇠, 스테인레스강철이 된다.

거울을 잘 닦으면 거울은 밝아진다.

부처를 내 집에 모시고 내 몸에 모시고 잘 받든다면 삶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빛나게 된다.

탐심 진심 치심, 음심 도심 오욕심, 삿된 소견을 멀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가르침의 뜻을 지키면 부처를 모시고 살고 부처와 함께 사는 삶이 된다. 거기에 무슨 불행이니 괴로움이니 하는게 따라 붙겠는가.

스스로 부처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어도 부처를 내 속에 모시지 않고 마군을 대신 받든다면 그 과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러니 그 과보를 앞에 놓고 나 아닌 누구를, 무엇을 탓하겠는가. 괴로움이 싫고 불행이 야속타 싶거든 지금 당장에 우상을 깨고 마군을 쫓아내고 부처를 모시며 살자. 내 속의 부처를 예경하는 삶으로 돌아서자.

협 찬 : 유 병 진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놓고 또 놓으세요 그것이 정진입니다"

☞ 15면에서 계속

까? 지금도 모자라는 생활비로 있는 돈을 쓰고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자격증이라도 따야 하나?

기도를 일과를 정해서 하는 게 나을텐데…. 여러 생각만이 스칩니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스님께 글을 올립니다. 욕심이 부끄럽지만 저에겐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커 부끄럽지만 스님 도와 주십시오.

답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지 누가 있어서 도와주겠습니까?

살아가기가 어렵기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이 도리를 모르고 사는한 삶은 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공부의 도리를 배우고 가는 한에는 삶은 고가 아닙니다. 설사 괴로운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은 주인공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것이니 오히려 기회이겠지요. 열심히 믿고 관하세요. 설마하니 산 목숨 굶기야 하겠습니까? 믿고 맡기고 관하는 중에 허허! 웃고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저의 공부 재료로 삼아 관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무슨 인연이 있어 지금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예수재를 올리면 좋아질 것 같은데 예수재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병명도 없이 저의 몸이 생활하기에도 얼마나 아프고 기운이 없는지 정말 고통스럽게 업무를 해온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큰스님 친견도 여러번 하였지만 수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아프고 힘든 문제가 저의 인생에서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단련하는지요.

또한 묵묵히 관하며 믿고 놓고가야겠지만 조급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좋은 가르침을 청합니다.

답 아버님께도 마음공부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려보세요.

물질로 도와드리는 것만이 돕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권하신다면 아버님도 받아들이실 겁니다. 예수재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결과를 바라고 재를 올리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그점은 스님들께 여쭈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재료삼아 믿고 맡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생각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후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마세요 지극한 마음으로 놓으면 답 찾게돼요"

청년은 금강경 읽지 말라는데…

문 저는 올해 31살 된 불자입니다. 평소 출퇴근하면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길에서도 시간나는 대로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 친구분 중에 불교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 젊은 사람은 〈금강경〉을 읽으면 재앙이나 어려움이 생기니 읽지 말고 큰스님과 의논하여 다른 경전을 읽으라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금강경은 나이가 40~50세쯤 되어서 읽으랍니다.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런 형식에 얽매이는지…. 과연 그 보살 말씀이 맞는지 궁금하군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한편으로는 속도 상합니다만, 과연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가르침 주십시오.

답 내가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말씀이 다 마음 심(心)자 한자로 설하신 것인데 거기에 무슨 구별이 있고 나이따라 읽고 말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 말씀은 자칫 '다 공했다더라' 하는 생각에 빠질까 봐 그러시는 모양인데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허무를 가르치신 곳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능합니다

문 저는 선원에 다닌 지 6년이 되어 갑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특히 저희 아버지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평생 사업을 하여 왔지만 제대로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늘상 쪼들리게 살아왔습니다. 무능력하여 가난한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외도와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저의 어머니와 삼형제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는 삼형제 모두 결혼하여 독립하여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저와 동생들을 자주 찾아오셔서 사업자금을 대라든지 용돈을 달라 하십니다.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속이 상하기도 하고 너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부모자식 사이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어머니도 참다참다 못하여 집을 나가라고까지 하시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해서 일확천금을 벌 궁리만 하시기를 무려 1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물론 집에는 생활비 한 푼 갖다 주시는 것은 없이 타다 쓰시면서 사기꾼들의 말만 듣고 그들과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다.

조상 업장 녹이고 싶습니다

문 칠석과 백중 그리고 저의 가족 천도재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스물 아홉인 학생입니다. 직계조상의 묘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인 자식을 버리고 떠나고, 그 후 생계가 곤란하여 찾아온 자식에게 모진 박대를 하여 죽을 생각까지 한 것이 저의 가계의 한 단면입니다.

친할아버지 형제분들도 제각기 흩어져 어디에서 돌아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삼년전 어느 대처스님의 말씀에 잘된다하여 천도재를 올린 적이 있고, 작년에는 저도 과외를 하고 해서 백중에 조상님을 위해 발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더욱이 저의 아버지는 소위 '조상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시며 불교라 하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힘담을 하십니다.

아버님은 나이를 드셔도 제대로 사회물정 모르고, 뼈빠지게 모은 이십억재산 남에게 다 날리고, 큰형은 중심없이 이리저리 왔다가 증산도란 종교에 심취하고 큰형수는 점과 부적에 매달리고, 작은 형은 철저히 정신을 부정하고 자기만 잘난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마음공부를 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앞서간 조상님의 업장을 녹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도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일어나는 생각을 놓지 못하고 눈물까지 나게 되어 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더욱이 큰스님의 법문을 받드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차마 묵과 할 수 없어서 마음 굳건히 먹고 큰스님께 목놓아 이렇게 발원합니다.

답 내 앞에 닥쳐오는 일체 경계는 다 나를 성숙케 하려는 공부재료라고 한 말 기억하시지요.

그런 경계 속에서 바르게 한 생각 돌리기가 쉽지 않겠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대로 놓고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감사하며 놓으라고 했습니다.

공부가 무르익기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누구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놓고 또 놓아라, 그것이 정진이다' 한 겁니다.

가족의 사연은 딱하지만 본인의 힘이 미치지 않는데야 오로지 마음공부의 길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오직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입니다. 허공으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의문 안풀려요

문 물음이 있어 삼가 여쭙게 되어 송구하옵니다.

오늘도 과거에 내가 행한 일들과 여러 인연들의 생각에 휩싸이다가 문득 어! 이곳이 나온 곳이 어딘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가 움직이고, 공부하고, 지금 자리 앉아 있는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하다가 속 시원한 물음을 구하고져 감히 스님전에 말씀 여쭙니다.

주인공 공부를 처음에는 어느 유일신처럼 느끼고 반항아닌 반항으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고, 선원에 다니면서도 가르침을 외면하고, 가피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부적이나 점을 통해 무진 애를 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득 그것이 나 아닌 다른 것이다, 그럼 나란 누구인가?

되묻고, 여러 생각 나오면 좋은 지, 나쁜 지 관단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스님, 지금 나를 움직이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가 어디인가?

무심코 일어나는 생각을 놓으면 전에 보다는 고요해 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어리석은 법우에게 무량광대한 법을 설하여 주시오면 대단히 감사히 여기겠나이다.

답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한답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매달린다면 빈 맷돌 밖에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걷지도 않고 뛰는 격으로 '나?'를 찾으려 하지말고 무조건 놓고 가세요. 놓고 또 놓고 가다보면 '나'가 발견 되는 것이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찾는다는 생각, 무엇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놓고 '주인공, 있다면 나와봐라' 하고 몰아 보세요.

환청들린 동생 행패심해요

문 다름이 아니옵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동생이 환청현상이 있고 이따끔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적도 있어 한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2층에 세든집으로 가는 전기선을 끊어버려 가족들을 당황하게 한 일도 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옳은 것인지 답답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놓는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관하는 가운데 한 생각 일으키면 사대로 통신이 된다고 했지요.

가족이 모두 한마음으로 놓고 관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통생과 내가, 또는 부모자식이 한마음 주인공자리로는 둘이 아니니 어찌 통신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까? 일심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잘 될 겁니다.

주인공에 놓으니 편합니다

문 너무 자주 질문 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지만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 탓에 또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공부하다 보면 관념이나 사량, 나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나 하니 그것도 주인공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생각으로 나라는 생각 아만, 아상, 사량 그런것들을 없애야지 하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겠거니 너 알아서 해 하니까 골머리 썩을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니 하면 더 생각할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스님에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답 그냥 편안하다는 느낌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공부는 놓는 가운데 지켜보는 도리가 있으니 말씀하신대로 아만, 아상을 놓고 가되 내 주장자 심봉으로 몰아 넣으세요.

주인공이라 해도 좋고요, 강한 믿음으로 몰아쳐야 더는 빠질데가 없어서 '그래, 나왔다 어쩔래' 하고 터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놓고 가면 종전보다 좀 편해진 듯 싶겠지만 그 보다는 심봉이 딱 박혀야 맷돌이 힘을 받듯이 그렇게 몰고 들어가야 샘물맛을 보게 됩니다.

유학중에 귀국을 고민합니다

문 저는 지금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스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쭈어 보고 싶어서 감히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졸업이 몇 학기 안 남았는데, 지금 주위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이 곳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할지 저 자신도 결정을 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이 곳에 와서 더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후회가 생깁니다.

답 이 생각 저 생각 사량에 의지하는 마음부터 놓으세요.

오직 '주인공, 너 만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아!' 하고 사무치게 일념으로 몰아치세요. 조급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후회 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놓고 지켜보면 답을 찾게 됩니다. 흔히들 이럴까 저럴까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게 탈인데 그까짓 한번 죽지 두번 죽겠느냐 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놓고 관하면 반드시 알게 되실겁니다. 그게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진실치 못한 제모습 괴로워요

문 스님 제 마음속에서 녹아지지 않고 걸려있는 생각들을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보는 것이 괴롭습니다.

둘째는 저의 말과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셋째는 출가를 하지 않는다면 진심으로 이 길을 갈 수는 없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스님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 불쑥 솟아오를 때마다 놓고 또 놓으면서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기에 여쭙습니다.

답 항상 말씀드리듯이 선도, 악도 혹은 언짢은 생각 좋은 생각이 모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잠재의식에 입력되어 있던 것이 무시로 풀려나오는 것이니 즐거워도 내가 뿌린 씨앗이요 괴로워도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그러

선도 악도 모두
내속에서 나오는 것
즐거워도
괴로워도
내가 뿌린 씨앗

기에 나오는대로 그 자리에 다시 놓으라고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말하자면 나의 녹음테이프에서 흘러간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새 것을 재입력한다면 새 노래가 나오게 되겠지요. 지우면 공테이프가 되고요.

생각만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돕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나툼인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탓하는 마음부터 놓고 또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주인공 저것도 주인공 몫이다' 하면서 나오는 족족, 놓고 맡기세요. 그래야 '나가 진실되지 못하다' '내가 괴롭다'는 거기서 '나'가 빠질 수 있습니다.

출가를 하든 않든 마음공부엔 그런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반야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24시간이 그대로 참선입니다.

부처 · 중생으로 갈라진 이유

문 즉심시불이라는 법문에 의하면 마음이 곧 부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라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은 중생과 많은 수행을 하시여 진리를 깨치신 부처님과는 천양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마음으로 인해서 범부도 되고 마음으로 인해서 부처도 되는데 같은 마음을 작용하면서 중생도 되고 부처도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편집자)누구든지 본래의 마음자리, 근본 성품은 청정하고 여여합니다. 즉심시불이란 바로 그런 마음자리가 곧 부처의 마음자리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관을 통해 대상과 접촉하면서 애착 · 탐욕 · 분노 · 두려움 등 갖가지 느낌과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그에따라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 즉 현상계의 참모습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해서 본래 청정하던 마음이 더렵혀지게 된 것이지요. 비유하자면 하늘에 구름이 낀 것 또는 색안경을 낀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알게 되니까 부처와 중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사물의 참모습을 바로 깨달으려면 여덟 겹의 바른길(팔정도)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실상을 바로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에 낀 때를 벗겨내고 본래의 마음자리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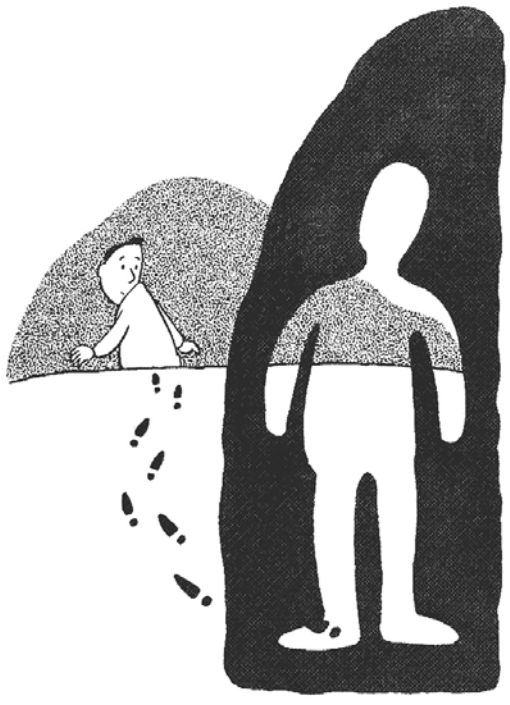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이 자신을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나 반야줄 놓치지 않는다면 24시간이 참선

협찬 한마음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암 · 간경화 · 완지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 (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시 레비디오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모집
(스님 혹은 불자신자)

만 40세이하 간호사 및 간호보조원 자격증 소지자로써 미혼 혹은 독신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능한 자

◆ 특히 스님 혹은 불교신자 환영
◆ 대우 : 국가공무원 대우규정에 준함
◆ 운전가능자 우대

불교 사회 복지법인 **소 향 원** (무료양로원)

주소 전남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495-1
전화 : 0612)373-6406
FAX : 0612)373-8767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피는

불자 간병인

◇ 환자 간병 / 산모관리
◇ 12시간 3 만원
24시간 4만 5천원(환자)
◇ 산모관리 숙식1달기준 130만원
출퇴근 1일기준 3만 5천원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03-15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 강 좌 •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경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영축아봐타센터
0523)381-1143/011-882-1149

이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Avatar.

아봐타는,
14개국어 61개국으로 확산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氣明緣峔↔禪상담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맑고 쉽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철저한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길을 찾아 드립니다.
어린이 상담도 합니다.

02)897-7731 예약상담합니다.
● 108-51471-277 KAA ●

학생모집(통신생포함)

◆ 과 목 : 동양역학, 침술, 물교학, 일본어
◆ 자 격 : 인령 · 학력 제한없음
◆ 각과정 3개월 졸업 - 졸업장 수여
◆ 철학관 및 도교원 개원시 지원배려함
◆ 강 사 : 철학박사(스님 승가대 교수)
◆ 풍수, 운명, 침술 : 직접 감정도 하고 있음
◆ 수업시간 : - 오후 3시~5시
- 야간 7시 30분 ~ 9시 30분

⊙ 과목에 따라 1주에 2~3회 수업 ⊙ 개인 수강자는 방도지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25-1
(목화오피스텔 605호- 지하철 3호선 수서역 3번출구)
T. 3412-4582
대길승가대학 교무처

사주(명리) · 주역(육효) · 작명 · 택일

● 늘 배우고 싶었던 왕초보
● 혼자 공부하다 지친분들
● 처음 배워서 개업하실 분(포교당, 철학관)

노력 여하에 따라서 3~5개월 개업가능
※ 3개월 책임지도 ※
철학인 명인 **고운처사**
051)442-3108
017)566-5223/012)1582-0437

天下大道육신통(육경신)과 進道인 符를 아십니까?

태양의 선덕미묘법으로 천백억화신.육불.선도의 힘을 안어 생래의 죄업과 인류의 영혼과 지옥의 영가해탈법과 천지만물 응화법등에 新光의 天氣을 안는 대비밀법입을 명심할지어다! 특히 정신일에는 각종빙마와 혼미해진 정신과 잡성에 고달리는 신병과 몸이 비대한 몸과 망상의 취객자들에게는 스스로 악힘이없으며 과사현정과 선증괴묻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는 제석천 사대주의 대비밀장과 대우주대양의 天氣을 받는 기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

잉 98년 9월 9일 해시에 입제하여 알 98년 9월 10일 해시에 해제
●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 모자원고개하차)
(주) 02-821-6622 / (야)02-923-3110
016-239-3110
육신통(육경신) 도통회장 **태일법사 합장**

• 구인구직 •

55세이상 75세미만
불심이 돈독한 혼자사시는 불자 친구들을 찾음.

고향이 이북이시면서 자식이 없는 불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011)775-807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연령제한없음)

⊙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742-2057
중화사 주지

사찰 종무원이나 법당 화주보살로 일하고 싶습니다.

011)716-3193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수련원 •

◆ 청학사 수양원 ◆

■ 수양 · 요양 · 기도 · 공부
■ 경전강의, 참선기도
■ 月 숙식비 ₩300,000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도원불교 수련원

개인 및
신행단체 수련

0374-32-7464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청우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2) 427-5369	0347) 794-2818

• 탈종공고 •

공 고

대한불교조계종 귀하

◆ 위 치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구읍리 550
◆ 사찰명 : 용화사
◆ 주 지 : 민 춘 식

상기사찰은 현대불교 신문 184호에 탈종공고 되었으나 본인의 착오로 잘못 게재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1998. 8.

• 기 타 •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혜월당 회향암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달마보급 선양회
017-540-3591

• 사찰안내 •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부지 : 1,100평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창고 : 1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청도 / 부지 : 500평
법당 : 18평 / 가액 : 1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상담전화 02)723-4082
광 진 불 사

사찰(기도처)

◆위치: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산 69번지
◆보증금 3백 월 10만원
※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0346)592-8891

사 찰 안 내

◆위치:중랑구 상봉2동(상봉터미널 부근)
◆평수:50평
◆ 방3개,주방1,욕실1개,기름보일러, 에어콘 완비
◆삼존불,부처님개금,백팔불 불사되어 있음.
◆가격:보증금 5천만원(월세8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입주시 바로 법회 볼수 있음. 주지스님 공석 관계로 사정상 내놓음.

011)775-7656
02)496-7656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시장통
◆18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총 3천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7)282-1998
02)482-4550

새주인을 찾습니다.

울산 경주간 국도변 00산 분지형태의 보기드문 적멸보궁터로서 편리한 교통과 수려한 경관이 최상이며 경내에 석조대불이 있고, 연못에는 항상 물이 넘쳐흐르며 조경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기도처임.

◆법당, 산신각, 요사 3동(방사 12)
◆ 경내지 350평 – 매 3억

정읍시 감곡면 동석리 천애산 휴게소 뒷편 (산림도로 있음.)

◆ 임야 18,183평 / 평당 10,000원

사찰안내

◇위치 : 부산시 진구 범천동
◇평수 : 약 1000평, 국유지
◇법당 : 27평, 스레이트 건물
◇요사 : 1동(스레이트)
◇삼성각 : 기와 ◇가격 : 2억 3천
◆ 특징 : 송림속의 사찰로서 부산 오륙도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고 서면거리가 5~10분, 감포등 10분. 부산 중심가

051)644-6936
017)569-5540

※ 스님 신병관계로 직접 내놓았음.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3천만원(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

포교원 안내

◇ 위 치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 건 물 : 4층 40평, 옥상 사용가능
◇ 방 3개, 주방, 욕실, 법당
◇ 가격 : 전세 1천,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51)204-6868
0373)78-0808

◆사찰양도안내

◇ 대지 : 85평
◇ 법당 : 17평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요사 : 27평
◇ 위치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매가 :1억 7천만원
◇ 특징 : 산밑 관음기도 영험도량. 시내와 근거리, 지하철 이용가능한 포교 최적지임.

사찰전문용역 금강기획
736-3579~9/011)789-2255

◆ 백운산 계곡(암자터)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1016번지
◆ 함양(안의) →서상→ 상부전 마을에서 2Km
◆ 현지 밭 실사용 평수 2,000평
◆ 등기 필 평수 465평
◆ 급매가격 : 3,000만원

053)767-5635

※ 토굴터 및 묘터 최적지임. 남해 서면 정포리(남해바다 및 묘도 보임)
◇부지 : 1,775평 준농림지
◇가격 : 3,500만원

◆ 토굴팝니다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 대지 : 90평
◇ 건평 : 15평(황토흙방 3)
◇ 가액 : 4천만원
◆ 최고의 명당(황토흙 방 3개)
◆ 차도에서 800m 떨어진 깊은 산속

0667)772-540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산(대구 인접)시 옥산동 소재
◇대지 : 상가겸 126평 (도로 인접, 철도 굴다리옆)
◇법당 : 가건물 40평
요사 : 25평 (※ 시설완비)
◇가격 : 1억 5천만원
◆ 특징 : 대구 인접지역 대단위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으로 포교당으로 적합
◆ 포교용도로 시설설비후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현 7천만원 능협 융자 포함)

0346)62-6903/011)308-4225
02)215-7978

명산사찰부지

◇위치: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온천부근
◇대지: 임야 합1,000평
◇건물: 약 70평 적벽돌, 지형은 자청용우백호 주룡 완성, 금계포란형이며, 뒷산은 관음산이며 안산은 금주산이니 불교와 인연이 있음.
◇ 국도와 약 150m 오르막지대이며 천연계곡에 접.경관이 뛰어난 곳
◇매가: 2억 8,000만 - 약간 조정 가능함

011)228-8092/02)474-8268
권 기 태

사찰안내

◇위치 : 장호원 (서울에서 약1시간거리)
◇대지 : 437평
◇층건평 : 83평
- 법당(27평), 사무실(15평)방4개,
- 요사채(41평)방11개, 주방, 화장실
◇가액 : 4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의 명당 (직접면담-스님 인수시 가격절충)

0331)32-4999
012)925-6118

토굴 및 별장

◇위치 : 가야산 밑
◇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 곳
◇대지 : 152평
◇건평 : 15평
◇가격 : 4,500만원(절충가능)

0543)955-7768

※약수좋고 기와집 신축 건물입니다.

◆사찰 및 부지

◇ 위치 : 경남 진주시
◇ 부지 : 약 2,000평(평토작업완료)
◇ 요사 :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가 격 : 2억 5천
◇ 특 징 : 제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 · 전기 · 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위치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시내 중심지)
◇법당 약 45평, 방 2칸
◇시설일체

011)538-5159
허 응 스 님

사찰(포교원)안내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정리 774-1번지
◇조건 : 좋은 위치,목조기와,단독주택 전면주택가,후면임야 대지 95평, 건평30평-등기분
◇구조 : 법당 1(삼존불, 탱화 4점) 방 세개,거실 및 조리장 1,샤워및 보일러실 (마루 현관 있음.)
◇급양도가 : 3천 6백만원
※ 대지 775번지 90평(현재 밭으로 사용)

0451)641-7569
011)401-8259

포교원 안내

◆위치:홍은동 대로변 2층
◆평수:25평(법당 20평)
◆방 2, 욕실
◆사정상 급매

02)391-3663

사찰부지안내
(타용도 가능)

◇위치 : 경북 상주군 외서면
◇평수 : 45만평(분할판매 가능)
◇가격 : 평당 2,300원

051)625-6359

※ 감·밤·잣·표고버섯 등 유실수 있음

사찰운영하실분

◆위 치 : 강원도 홍천(市 승격 준비작업 완료) 2,000년대 서울서 1시간 거리
◆부 지 : 대지 198평, 임야 125평, 전 1,159평(合 1,482평)
◆법 당 : 13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요사 : 28평(고전 한옥기와) 등기 필
◆부속건물 : 17평(창고, 외부샤워장, 외부화장실) ◆가 액 : 3억(절충가능)
◆특 징 : 수려한 산세(천하절경 명산의 기암괴석 청정자연계곡)와 사계절 1급수 물이 흐르는 계곡과, 넓은 주차장 지하 80M 암반을 굴착하여 나오는 엄청난 양의 암반수,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700m(사찰 전용도로)기리인 편리한 교통환경, 산속에 소재한 기도 도량으로 대덕스님에 적격한 가액으로 양도합니다.

※ **현지 답사 환영** ※
상담 : 홍천 0366)33-2171 011)361-3260
주지 혜선 스님

포교당 운영하실분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전철역 앞
◇대지50평, 실평수25평(단독주택)
◇전세 2500만원, 월세 10만원 (보증금-시설비 · 권리금 합 5천만원)
◇보살도 가능, 삼존불모셔져 있음

0344)956-7717
018)382-0280

포교원 안내

◆위치: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가격:전세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천만(시설 일체완비)

02)215-7978
011)308-4225

사 찰 양 도

◇위치 : 서울 시흥동 대한전선 건너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 옆산
◇부지 : 750평 ◇법당 : 30평
※주산포 목조 문화재급(시설은 A급)
◇요사채: 지상 20평(목조),지하: 50평, 산신각: 5평(돌벽),채공실: 17평,(조립식)
◇양도가액 : 15억
◇특징 : 산세 수려하고 물좋고 남골당 근린시설요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121) 종점 5분거리, 주차장 완비(50대)
※ 운영하실 스님만 연락요망.

02)899-4281

사찰겸 포교당

◇위치 : 대구시
◇규모 : 2층 법당 25평
◇삼존불, 동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법당시설 완비
(1층 - 요사채 30평, 방3, 주방, 욕실, 종무소, 반지하 식당 13평)
◇매가 : 1억 3천만

011)790-7162
053)654-6219

◆기도도량(사찰)

◇ 위치 : 서울 삼각산 (정릉 국민대 뒤)
◇ 국립공원 임야 약3천평 건물 5동
◇ 계곡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천연의 약수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격 : 5억원 5천만원정

02)512-3092

사 찰 부 지

◇위치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외천리(토목완료)
◇면적 : 총 5,900m²(1,785평) - 준농림지역 (이중 400평은 건축 허가 완료 및 전용 부담금, 세금 납부 완료)
◇환경 : 전망 최고, 현지에 작은 계곡있고 3~5부 능선
◇교통 : 대전↔청주 국도(4차선)변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2분 거리 청주에서 10분, 대전 광역시에서 25분 청원 톨게이트에서 5분
◇도로 : 4차선에서부터 4~5M (대형차 진입 가능)
◇매매가 : 1,785평 × 11만(주변 시세보다 50% 저렴)

011)484-4555/012)453-4555/자택 0431)257-3573

"火葬으로 금수강산 지키자"

서울시 · 시민단체 '화장유언 남기기' 캠페인
故 최종현 회장 화장…의식 변화 계기
교계 납골당 · 영탑공원 등 장묘제 개선 앞장

건국토의 1%, 서울 면적의 1.6배나 차지하고 있는 묘지,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묘지로 조성돼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화장장 기증을 계기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장 장려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시는 오는 15일경 36개 시민단체모임인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의장 이세중변호사)와 함께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달초 장묘문화 개선 공청회와 화장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를 벌이고 시 묘지시설 설치관리조례를 전면개정할 방침이다.



◇최근 '火葬'이 새 장례문화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영탑공원을 찾은 불자가족의 모습.

시와 시민단체들은 화장 장려를 위해서는 지도층이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건 시장을 비롯한 각계 지도층 인사들에게 '후손에 금수강산을 물려주기 위해 화장에 기꺼이 동참한다'는 유언장 작성을 권유, 이를 2부 만들어 본인과 사회단체가 각각 보관토록 할 방침이다. 또 화장동참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는 한편 SK와 LG측이 추진하는 화장시설설치계획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화장장려 운동은 지난 8월26일 별세한 최종현 SK그룹 회장이 재벌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을 화장하고 화장장을 지어 사회에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시작됐다. 특히 지난달 수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분묘 7백63기중 52.4%인 4백기가 매장대신 화장을 택한 것도 화장제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가족묘·평장묘 등을 시민들에게 권장해 왔는데 반응이 대단히 좋았다"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한국형 가족묘 1백44기를 시험조성, 평균 9대1의 높은 경쟁률로 일반에 분양한 바 있다. 한국형 가족묘는 전통적인 봉분형 분묘형태를 가진 납골묘로 유골을 최대 24위까지 안치할 수 있다.

'무상 무아(無常無我)'의 인생관에 입각, 철저한 검약과 위생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불교의 다비(茶毘)의식. 옛부터 승가에 정착된 전통적인 불교의 화장문화를 널리 알려야 할 때다. 화장장려 캠페인에 불교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불교 영탑·납골묘 현황, 본지 182호 11면 참조)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틀교의 눈 "육신은 4대로 흩어지니…"

"4대(大)를 받은 사람은 목숨을 마치면 지대(地大)는 땅으로 돌아가고 수대(水大)는 물로 돌아가며 화대(火大)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風大)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모두 무너지고 부숴져 모든 기관은 공(空)으로 돌아간다. 어리석은 이나 지혜 있는 이나 목숨을 마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숴져 단멸법이 되고 만다."〈아함경〉 국토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매장문화는 죽어서 4大로 다시 돌아갈 육신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되었다. 불교의 다비의식에서는 마지막에 영혼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발원하는 '환귀본토진언(還歸本土眞言)'을 외면서 끝낸다. 따라서 "형상이 무너지되 정신만은 없어지지 않는 것"(불설보요경)을 죽음으로 보는 불교의 화장제도는 묘지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충분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성공적으로 영탑공원을 운영중인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장 무애스님은 "조상의 시신보다는 올바르게 조상의 마음을 모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후손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화장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족집게 과외…빗나간 자식사랑

서울대총장등 지도층 부도덕성 드러내
학벌지상주의 근절등 전인교육 절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은혜 가운데 아홉번째는 '자식을 '위해 지옥에 떨어질 각오로 악업을 마다 않는 것(爲造惡業罷)'이라고 설했다. 그렇다면 법을 어기며 자식들 과외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까.

'족집게 고액 과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우리 교육 풍토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통탄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 세무사, 대기업체 중역, 공무원, 은행간부 등 사회 지도층의 엄청난 과외비가 서민층 부모와 자녀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한편 담임 교사들이 돈을 받고 과외학생 '중간 모집책' 노릇을 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스승의 위상도 흔들린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학교의 총장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부유층 인사들의 비뚤어진 자식사랑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前 한국펜클럽회장 전숙희씨는 손녀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에 대해 때늦은 참회의 편지를 강남경찰서에 보냈다. 전씨는 편지에서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나같은 사람까지 제 자식만을 생각하다니 후회스럽고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끝간데 모르는 거액 과외 파문, 시험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인데다 학벌위주의 사회가 오늘의 병리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실력위주의 사회풍토와 자능을 살려주는 전인교육, 사회 지도층의 각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2의 건국'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교육부는 8월31일 앞으로 자녀에게 불법 고액과외를 시킨 학부모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예 · 복습 열심히 하면 과외 필요없어요"

고졸검정 최연소 합격 김금임 양



"학원수업 열심히 듣고, 예습 복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면 과외받을 필요 없어요"

98학년도 제2회 고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전국 최연소 합격자인 김금임(13)양. 지난 4월 고입 과정에서도 최연소 합격의 영광을 누린 그녀는 "모든 것이 부처님과 보살펴 준 보원스님 덕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세때 부모님을 여의고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미타사에서 자란 금임이는 초등학교 졸업후 건장이 좋지 않아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해 왔던 것.

"부처님 같은 자비심을 지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공부의 재미를 알려주고 싶다"는 금임이는 요즘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면서 2년쯤 뒤에 대학 입학을 준비할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국민 54% "뇌물준적있다"
공무원 10% "부패가담경험"
연성진 박사 '공무원 부정부패' 설문

우리나라 국민 3명중 1명은 97년 8월 이전 1년동안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2명중 1명(54.1%)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식통계로 나타난 1%보다 10배가 많은 전체 공무원의 10%가 부정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4~29일 열린 제12차 세계범죄학대회에서 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박사는 지난해 8월 현재 일반인과 공무원 2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일반인 9백70명중 3백49명(36%)이 97년8월 이전 1년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의 48%가 뇌물을 건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흥업 46%, 건설분야37%, 판매업 33%, 일반직장인과 요식업 분야는 각각 28%와 27%가 뇌물을 제공했다

한보로부터 기아사태까지 IMF구제금융을 부른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뿌리인 뇌물. 〈사제경〉의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바른 생활(正命)'인"이 절실한 때다.

김재경 기자

시론

과외와 교육개혁



이계홍
〈서울신문 논설위원〉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자녀의 불법 고액과외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그 문제점과 대책이 심층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유야무야 덮어두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사고있는 것같다.

고액 불법과외는 5공초 그 전모가 드러나 엄벌주의로 한때 다스려졌고, 그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혁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독버섯처럼 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상태다. 단속을 한다고 했지만 이런 처벌위주의 대책은 대증요법이었을 뿐,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왜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는가. 그것은 학벌주의 사회가 주는 폐단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회 구성체의 엘리트로서 기득권을 고스란히 향유할 수 있다는 풍토가 오늘의 불법과외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일류병의 메카로 자리잡은 서울대, 거기에 품잡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는 일류의 관문으로 인식하는 명문대, 이곳에 들어가고자 이들은 온갖 부정한 돈을 끌어모아 학원강사와 학교교사에게 갖다 바친다. 일류를 맹신하는 이 집단이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며 사회단층 심화, 위화감 조성이란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을 것이다.

> "학력 만능사회 돈으로 성적사려는 부모들의 졸부근성 이제 뿌리뽑아야"

그런데 최근 교육당국이 이들의 불법 고액과외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중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액과외의 내용으로 보아 엄벌주의가 마땅하다. 고액과외라고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불법 고액과외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학진학의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복수심마저 가질만 하다.

그러나 불법과외 학생을 처벌한다는 것은 반교육적 발상이다. 그들이 불법과외를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궁극적인 책임은 그 부모에게 있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하다. 부모의 과욕과, 자식이 일류대를 다니는 것이 덩달아 자신의 사회적 신분상승으로 착각하는 졸부근성이나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또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돈으로라도 경쟁에서 이겨보자는 논리가 이런 불법 과외를 부추겼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식만 잘되게 하자는 극단의 가족이기주의를 드러낸 '돈가진 천민'에 대한 엄벌주의가 사회계도 측면에서 온당하다고 본다.

우리의 일부 중산층을 포함한 부유층은 서구의 중산층 및 부유층과 달리 부정과 비리, 또는 독과점에 의한 부패커넥션에 매달려 재산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 세력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여전히 부도덕한 빵부스러기에 탐닉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배타적·이기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끼리끼리 파이를 부풀려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기득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로 인해 그들은 변화나 개혁의 주체로서 또는 공동체로서의 책임의식이라곤 없다. 언제나 수구 보수의 반열에서 그동안 가졌던 특혜를 온존, 유지하기 위해 아이를 일류대에 보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권세도 재산도 독점하려고 한다. 고액 불법과외도 이런 병든 문화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모의 자식들이 불법과외를 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벌을 준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을 아이들에게 덧씌우는, 또 다른 이름의 단죄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반면 그 부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죄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정의 구현이다.

석용산 스님 출판 (수필집, 시선집) 기념대법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수행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모시는 글

회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시고 포교활동을 재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중 보여 주셨던 여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대구 공덕원 주지 석지광 합장

부산
첫째날 〈강연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둘째, 셋째날〈강연회〉
·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2시(이틀간)
·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051)625-2253, 2254 / FAX : (051)623-3946

대구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 (053)741-0077, 0088 / FAX : (053)741-0066

· 주최 :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 후원 : 부산불교신도회, 불교부산방송,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 대한불청부산지구청년회, 도서출판 문학수첩



교계 노인복지 '진일보'

경제난에 따른 절대빈곤층의 증가로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인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나 후원금의 절대부족과 정부 보조금 동결 등으로 운영이 갈 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교계 사찰과 복지단체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한 노인복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료급식·병원·보호센터 부쩍 늘어
목욕·이미용·간병 서비스도 활발

그간 교계 복지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난 노인 무료급식소는 지난해 말 이후 수요인원의 2~3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꽃마을 인천 동구 경로식당과 공주 금강사회복지관이 2월에, 서울 청담종합사회복지관이 3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부천 석왕사가 6월에 무료급식소를 개설하는 등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 아래 양적 질적으로 무료급식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자비의 집'을 비롯 노인대상의 무료급식소는 60여개에 달한다.

노인무료병원, 양로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도 잇달아 개설됐다. 연꽃마을은 지난해 말 수원과 안양에, 올 3월 인천에 노인무료병원을 각각 개소한데 이어 6월에는 노인 수련원인 대구 보살선원을 개설했다. 또 같은 달 서울 도안사가 무의탁 노인시설인 자혜방생원을, 삼소원이 무료양로원을 나란히 개원했다.

특히 올초 인덕원의 노인주간보호센터 및 단기보호소의 개소이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연이어 개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최근 두달 동안 문을 연 교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난 6월 개소한 옥수종합사회복지관과 8월에 개소한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9월 8일 개소한 자양사회복지관 등 세 곳. 지난해 개소한 연꽃마을에 이어 다섯 곳의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역 노인복지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같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잇단 개설은 일반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아직 드문 일이어서 불교노인복지의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조계종 강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7월10일 마련한 '초복맞이 노인 공양의 날'.

이같은 노인복지시설과 지역 사찰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 노인나들이 행사, 무료 영정촬영, 이동목욕차량 운영·이발봉사, 간병봉사, 무료 반찬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문복지회가 지난 8월26일 노인복지세미나를 개최하고, 대구 불교사회복지회가 '노부모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교계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려운 때 일수록 사회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자비문중 특유의 보살심이 가장 소외된 이웃인 노인들에게 다가서는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IMF 어려움 겪는 이웃에 따뜻한 法音 전합시다

현대불교 '1구좌 1천원 법보시' 운동 전개

우연히 접하게 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입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경찰·병원·교화기관에 보급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천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 (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5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지정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7-820 (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722-4162

'1천원 법보시' 3만구좌 돌파

비지정 법보시 발송현황

발송처	부수	발송처	부수
군법당	220	지역복지	21
경찰서	241	사회복지	72
교정청	2	신용협동조합	8
교도소	161	사회복지협의회	14
구치소/감호소	77	종별협회	9
소년원	12	기업복지기관	62
감별소	6	불교병원	65
아동복지	39	국군병원	45
노인복지	24	경찰병원	6
장애인복지	12	기타 사회단체	141
부랑인복지	3		
청소년복지	18	계: 960건 / 1,258부	

법보시 동참자 명단

간종흠 강경중 강말숙 강미영 강민정 강병현 강북복지관 강성욱 강숙희 강순영 강신택 강욱구 강인성 강인숙 강장욱 강정기 강정화 강정희 강지숙 강춘계 강태근 강태북 강현숙 강황진 경순자 고계환 고광진 고덕현 고영배 고영이 고은주 고재선 고필선 구필회 권갑남 권동희 권미경 권복자 권성행 권순 권순혁 권연지 권영숙 권영현 권오진권옥숙 권은경 권진순 권차순 권춘순 기현정 김경선 김경수 김경숙 김경열 김경옥 김경해 김경훈 김경희 김광숙 김광순 김광태 김교안 김규정 김근삼 김근영 김금순 김기춘 김길순 김남석 김덕임 김두영 김록인 김명덕 김명훈 김문자 김미란 김미명 김미선 김미숙 김미순 김범수 김병서 김병주 김병철 김복남 김봉운 김봉해 김상덕 김상림 김상분 김서분 김석순 김석용 김선남 김성경 김성민 김성순 김성자 김성진 김성혜 김성희 김수영 김수희 김순남 김순녀 김순덕 김순련 김순식 김순옥 김승재 김승지 김식자 김신염 김애란 김애리자 김애자 김여경 김연득 김연자 김연희 김영란 김영만 김영배 김영삼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아 김영자 김영희 김옥 김옥경 김외선 김용구 김용범 김원순 김원용 김원우 김유학 김은성 김윤중 김윤환 김윤희 김인성 김인희 김일동 김자경 김정란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이 김정자 김정주 김정희 김제철 김종미 김종애 김종옥 김준만 김준모 김준엽 김준형 김준희 김지헌 김철수 김춘호 김춘화 김춘희 김태현 김태훈 김택곤 김한나 김헌 김현수 김현숙 김형창 김형철 김혜경 김혜기 김혜숙 김혜옥 김호 김호종 김화남 김화수 김활수 김희남 김희수 김희순 남성수 남성진 남수경 남수미 남일우 남철수 노만호 노유택 노윤택 노진희 노향순 노혜숙 덕운화명형관 도옥희 도재권 동사섭 류경훈 류봉수 류영란 류조형 마정혜 마진호 명세정 모영희 무명 문명순 문병기 문상철 문숙자 문순조 문화자 민경주 민소영 민승자 민응식 박경선 박경숙 박광용 박광호 박금숙 박남순 박남순외 박내순 박명의 박미경 박미정 박봉주 박상규 박상기 박상섭 박석열 박성수 박성진 박수진 박숙경 박승희 박신영 박양님 박양임 박양자 박영애 박영준 박옥남 박용무 박용숙 박용자 박원규 박윤기 박윤식 박익형 박재련 박재진 박정산 박정순 박정자 박제원 박제원 박종두 박주연 박준호 박진환 박찬연 박찬혜 박철수 박춘자 박태규 박필원 박현순 박현주 박혜명등 박혜숙 박혜진 방금순 방명섭 배동금 배병진 배성호 배연수 배춘자 백상준 백성옥 백양심 백유선 백현기 백혜원 백경선 법인스님 법현스님 본사직원 본원신도 붕철웅 부산신도회 부산지원 사당5동법회 서귀연 서말희 서병학 서부웅 서옥경 서울은행 서윤아 서정숙 서준 서진 서최선 서춘건 서형관 석해월 선유진 선장재 선정호 선현자 설갑문 설정수 설지석 성동환 성민자 성재영 성필제 성호승 손금화 손봉희 손상률 손정숙 손혜숙 손화자 송규환 송미애 송복희 송양숙 송연숙 송인영 송정구 신기호 신미향 신복순 신상섭 신순희 신시균 신원민 신유진 신윤진 신재철 신조현 신진임 신택건 신호용 신홍재 심광엽 심단희 심묘희 심성학 심희주 안성모 안영선 안진후 양병덕 양영애 양은숙 양의군 양정순 엄정임 영통포법회 오동규 오두환 오미환 오병현 오선희 오송준 오순자 오승종 오주희 오창일 오창희 오현승 오현자 오형만 용산구법회 용환웅 우경애 우금식 우상용 울산한마음 원정옥 유금자 유미양 유양상 유은경 유인묵 유재춘 유정연 유정용 윤경애 윤경희 윤기수 윤병창 윤병혜 윤상문 윤석범 윤성 윤옥희 윤인자 윤재경 윤제학 윤준상 윤지웅 윤지은 윤창섭 윤태원 윤향숙 은경애 이강희 이경민 이경숙 이경아 이경원 이경인 이경자 이계선 이관형 이구자 이귀숙 이규만 이규환 이금순 이금주 이기오 이기철 이대섭 이덕의 이명규 이명순 이명자 이묘연 이미경 이미나 이미자 이범택 이범규 이병만 이보경 이복순 이봉순 이봉우 이분순 이상란 이상옥 이상윤 이성재 이송자 이순량 이순옥 이순자 이순천 이순호 이순희 이승은 이승훈 이신정 이씨 이아리 이양희 이연옥 이영숙 이영순 이영조 이영희 이옥석 이옥영 이옥형 이옥희 이유순 이윤옥 이은주 이은진 이의남 이인상 이인숙 이임순 이장혁 이재국 이재윤 이제화 이접자 이정녀 이정례 이정수 이정숙 이정순 이정자 이정혜 이정희 이종돈 이종철 이준석 이준재 이준희 이중근 이지영 이지형 이진경 이진수 이진영 이진철 이창하 이창호 이철주 이태우 이태인 이태훈 이태희 이필순 이한희 이현숙 이현실 이현안 이현양 이현주 이형호 이혜란 이혜숙 이화숙 이화영 이효순 익명 인천신행회 임기남 임명옥 임명진 임선원 임소연 임옥재 임완숙 임우식 임종미 임춘심 임해순 임형대 임희자 장금강심 장미 장미옥 장점 장정숙 장정자 장정희 장축자 장해기 전계연 전규백 전복순 전삼우 전순남 전승현 전연석 전위자 전정희 전현수 전현진 정계영 정구순 정금관 정금란 정동한 정모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련 정미형 정민아 정복순 정분선 정삼준 정상열 정숙점 정연동 정연봉 정연석 정연태 정연희 정영기 정옥녀 정옥찬 정은옥 정은옥 정점오 정정국 정정숙 정정자 정진욱 정필수 정필순 정학선 정해정 정해택 정현동 정훈채 조경자 조귀자 조남섭 조남주 조미란 조미숙 조상호 조양식 조영숙 조옥희 조원희 조유복 조은숙 조은호 조은미 조혜숙 조혜연 지로봉사모임 지유미 지청인 진경수 진영숙 진옥례 진욱상 진원중 진재영 진재용 차동호 차상환 차용옥 차현주 천재경 천현숙 천화조 청주교도소 최경락 최경진 최범순 최병언 최복내 최상철 최서윤 최석원 최성근 최성휴 최심형 최영도 최영명 최영봉 최영숙 최은희 최재두 최재철 최재혁 최정근 최정기 최정문 최정희 최주현 최행선 최형선 최희원 추철희 충남대교수불자회 표혜명 하금자 하명자 하흥용 한국여성불교 한기선 한마음선원 한명숙 한미순 한병소 한상현 한숙희 한순자 한아름 한일련 한철희 한춘영 한태희 한효심 함광점 함기석 함영숙 합지윤 허선숙 허성국 허수자 허재승 허종환 허찬응 허희숙 현수천 현월스님 현추월 혜월당 홍기장 홍명숙 홍소순 홍순아 홍영순 홍영호 환금철 황기용 황영분 황옥란 황옥석 황옥순 황점숙 황정옥

禪이 현대인에 주는 의미

M-TV 10일 '나를 찾아…' 서 조사선 집중 조명

선(禪)은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을 상징하며 불교의 수행법 가운데서도 가장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자기탐구의 방법이다.

MBC-TV는 선의 성격과 선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 등 선 세계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나를 찾아 가는 선'을 10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60분간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LA 서부에 있는 선방에서 참선에 몰두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이 소개된다. 또 8월18일부터 한국 조사선의 전통을 재확립하기 위해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열렸던 '무차선회' 장면도 보여준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옹·혜암·진제 대선사의 법문 후에 이뤄진 법거량은 직접 '무차선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조사선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의 하일라이트.

MBC-TV 교양제작국 임채유PD는 "이 프로를 통해 현대인들이 어떠한 사상적 권위나 지식에[집착하지 않고 선의 의미를 깨달아 주체적인 자기형성의 자유를 체득하길 바란다"며 "이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고자 하는 선의 궁극적 진리다"고 말했다.

北 답사기 5부작 방영
Q채널 16일부터

케이블TV Q채널(ch·25)은 최근 북한문화 유적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고은, 유홍준, 최창조, 김주영 등 4인의 명사들 눈에 비춰진 북한문화 유적과 자연 풍광들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그리운 북녘땅, 우리문화 답사기'를 16일부터 10월14일까지(매주 수요일 오후10~11시) 5회에 걸쳐 방영한다.

16일 방송될 제1부 '평양과 개성의 문화 유적지'에서는 1898년 동명왕릉에서 발견된 고분벽화와 수백 개의 병사상·궁녀상·선죽교·표충비 등 평양과 개성에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23일 방영될 제2부 '북한의 명산과 산사'에서는 묘향산·금강산·백두산 등의 명산과 그 산자락에 자리잡은 보현사·표훈사 등의 명찰들을 유홍준교수(영남대 박물관장)가 소개한다.

30일 방영되는 제3부 '북녘산하 북녘풍수'에서는 황해도 사리원의 정방산성·성불사 등을 소개하고 제4부(10월7일 방영) '북에서 만난 사람들'에서는 부끄러움 많은 접대원과 판매원 아가씨의 풋풋한 정을 김주영씨가 전달해 준다. 10월14일 방송되는 마지막회 '금강산아, 백두산아'에서는 만물상, 표훈사 등의 금강산과 천지·삼지연 호수, 장군봉을 품고 있는 백두산의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노인학교 다니면 생활 즐거워요"

성운스님 석사논문 '노인만족도 연구'서 밝혀

사찰 노인포교 관심을



"많은 노인들이 노인학교에서 교육받으며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소외 등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성운스님(인덕원 이사장·사진)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노인학교 학생과 기타노인과의 비교'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논문은 서울시 거주 노인 771명에게 여가·부양만족도 등의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논문에 따르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노인들 중에서 76%가 노인학교 학생노인이며 나머지 응답자는 노인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여가활용을 위해서'(42.9%) 노인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들에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 변화를 묻는 질문에 '생활이 즐거워졌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가 많아졌다(25.4%)' '건강해졌다(20.3%)' 등으로 조사됐다.

성운스님은 "유엔이 99년도를 '노인의 해'로 정해 놓고 있어 내년도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며 "교계에서 노인들의 교육·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찰에서 이것을 적극 수용한다면, 사찰이 노인들의 포교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단 신

문화유적 답사·봉사활동

청교련 대전지부(지부장 종실)는 13·20일 청소년 4백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재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회덕향교, 남간정사 등의 문화 유적을 답사하고 유적지 청소도 병행한다. (042)488-0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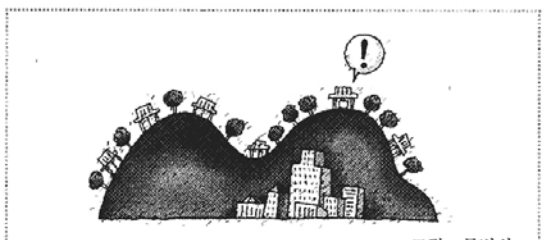
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은 10월19일 오전 10시 용산가족공원에서 '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건전한 어린이 놀이문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인간줄다리기, 꼬리따기, 판씨름, 투호, 윷놀이, 콩주머니 등 모듬놀이 30여종과 개별놀이 15여종이 진행된다. (02)433-1506

주부신행담

바른법을 찾아서 ②


그림·문병성

점 보고 복 빌며 불법인줄 착각

지금 나는 한편으로는 여러 형태의 신행자들의 면면을 직간접으로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자위를 해본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선지식을 만나 정법을 배웠다면 불법과는 다른 왜곡된 신행형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보살과 찾은 사찰은 폴이 넓은 한옥을 개조하여 삼불 부처님을 모셔놓고 창건주 보살이 비구니 스님 한분과 지장기도만을 주로 하는 사찰이었다. 때마침 우란분절을 앞두고 조상 천도 기도를 하느라 바빴다. 우리 두사람도 기도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날부터 열심히 조상님 왕생극락을 위하여 기도정진하였다. 몇 개월을 동참기도를 하면서 차츰 이곳 신도들과도 가까이 지내며 가정사 이야기도 서로 나누며 친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신도들은 거의가 기복 신앙자로 많은 기도비를 내고 불공드리는 신도들 뿐이었다.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금강경〉을 집에 모시면 집안이 편치 않다느니, 특히 기가 약한 사람이 독송하면 안된다는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초발심자인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님께 법문을 청하기도 하고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면 스님께선 대답을 회피하고 그저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에 동참하면 무슨 일이든 다 잘된다는 것으로 일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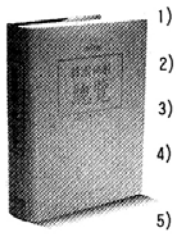
불법을 알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던 나는 여기서는 불가능함을 알고 같이 다니던 보살이 잘 아는 스님이 계신 어느 절을 찾았다. 그러나 이곳도 역시 다를바 없는 맹목적인 기복신앙자들만이 모인 곳이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는 창건주보살이 불당을 차려놓고 비불교적으로 신도관리를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당신 집에 재앙이 오고 있으니 산기도를 해라. 또는 몇대 조상이 탈이 났으니 착실히 기도를 해야된다는 등등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렵게 마련한 기도비를 내고 산으로 강으로 헤매고 있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디에 가야만 선지식을 만나고 또한 정법을 만날 수 있을까? 문제는 많은 불자들이 자기 자신은 옳은 신행을 하며 그것이 불법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나.

나는 이곳에서도 회의를 느끼고 바른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어느 포교원 앞에서 불교대학 수강신청이란 간판이 눈에 띄웠다. 나는 기대를 가지고 입학을 하고 여러 법우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했다. 진작 이곳을 못 찾은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제야 바라던 선지식을 만났고 정법을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무치에서 헤매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환희심과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백천만억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법, 정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도 흘렸다.

유밀다행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1998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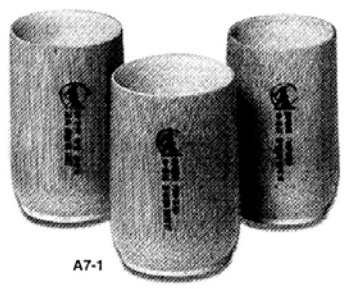


1) **한국불교의 현황** :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약술.
2) **종단** :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 불교 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불교관련업체** :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5) **사찰** : 국내외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 승가 및 재가불자 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문** : 초판 이후 추가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 초판 이후 한국불교 관련 사건을 수록.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가격 ₩ 120,000**

대나무 잔

완전 자연산 대나무로 가공한 제품. 대나무 한 마디를 가공 하므로 크기(지름)는 일정치 않으며 차와 대나무 향이 어우러진 차 맛이 일품 입니다.



A7-1

크기 :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법성게 걸망



A12

크기 : 500×460 (㎜)
색상 :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생광석 108염주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 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밀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A13

1. 손에 쥐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에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피로가 쉽신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가격 : ₩ 3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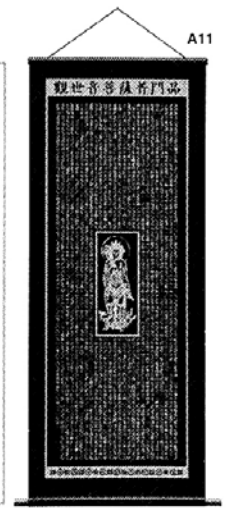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이 32가지 모습으로 나투시어 자비로 중생의 재난을 구제하고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신앙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이 널리 독송된데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는데, 이 경전을 외우고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일곱 가지 모든 재난을 피하고, 탐, 진, 치의 삼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소원이 원만하게 이루어 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관세음보살은 32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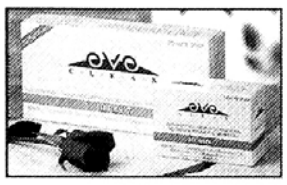
A11



색상 : 진녹, 검정 비탕색에 금색 인쇄
크기 : 55㎝(가로) 140㎝(세로)
재질 : 기모지
특징 색이 변하지 않음

가격 : ₩ 30,000 (족자걸이 포함)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14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 독특한 향+부드러운 촉감+미용과 면역기능
- 피부미용에서 미백효과는 물론 자연면역기능까지
- 한방 재료 추출물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99.9% 천연 소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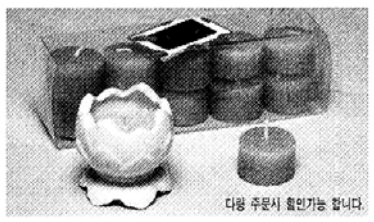
● **초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해꾼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무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 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도자기 연꽃 향초

은은한 향기와 함께 세상을 밝히는 도자기 연꽃 향초! 가정의 장식용 소품으로도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량 주문시 할인가능 합니다.

- 도자기 안에 있는 초를 모두 사용 하신후 낱개 초를 넣어 계속 사용할수 있습니다.
- 향꽂이로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크기 : 가로 5.5㎝, 세로5.5㎝
가격 : 도자기 연꽃 향초(레몬향) ₩ 3,000
향초(라벤다향) 1set(10개) ₩ 5,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A4-1 A4-2 A4-3

골동품형 개금형 브론즈코팅형

재질 100% 청동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크기 40.5 ㎝

가격 : ₩ 350,000 (코팅형, 골동품형)
₩ 580,000 (개금))

묘법연화경 책자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수 있는 포켓용 경전 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경우 원하는 문구를 책 뒤에 넣어 드립니다.



크기 : 4.5 (가로)㎝, 6.2 (세로)㎝ , 547쪽

가격 : ₩ 4,000

부다피아 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부처님의 말씀과 향기를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세요

주문방법 : 전화및 팩스로 주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L:02-732-1522 / 737-8881, FAX:02-737-0697)
배송 : 구매하신 제품은 입금 확인 후, 7일이내에 전국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50,000원 이상 구입시 무료 배송) ※ 다량 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기도 청자 세트

하나 하나 도공이 직접 구워낸 이천 기도 청자 세트
- 양,음각 세공을 도공의 손으로 직접 조각하였습니다.
- 제품 하나마다 도공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 제품마다 정성이 가득합니다.



용 도
- 추석 등 명절 선물용, 야외 기도, 가정 기도, 제사, 산소등 용도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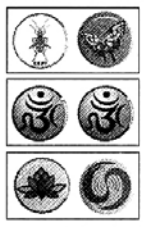
포장재질
- 천연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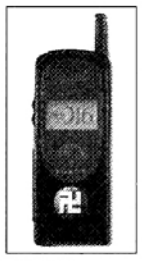
규 격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질, 촛대 바람막이2개

가 격 : 1세트 ₩ 25,000

신소재 전자파 방지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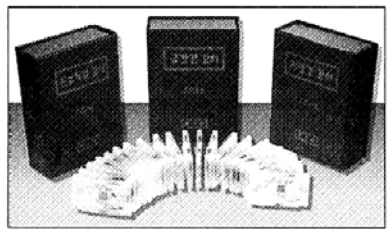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는 전자파, 우리주변에서 항상 건강을 위협하는 수맥의 공포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 인체공학적 생체 리듬 보호, 휴대폰 수신 감도 증가
- 붙이기만 하면 되는 편이성





용 도 : 휴대폰, 진공청소기, 믹서, 컴퓨터, 전기면도기, TV등과 수맥방지가 필요한 모든 장소
규 격 2개 1세트 **가 격 : ₩ 9,000**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지장경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원**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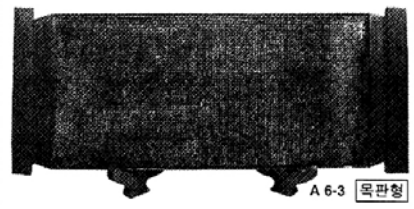
순금 99.9%

특 징 :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펼아 주머니속,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재 질 : 순금99.9%
크 기 : 5.2㎝ × 7㎝

가 격 : ₩ 20,000

금강경 대장경판

금강경 전품을 입체 사경후 판각한 성보 대장경판. 다양한 경판의 느낌을 주기위해 목판형, 청동형, 골동품형 등 6종의 경판을 제작 하였습니다.



A 6-3 목판형

재 질 : 100% 폴라코트
경판규격 : 500(가로), 260(세로), 8(두께) (단위 ㎜)

가 격 : 1개 ₩ 100.000



경판받침

앞치마

연꽃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제작한 생활 앞치마



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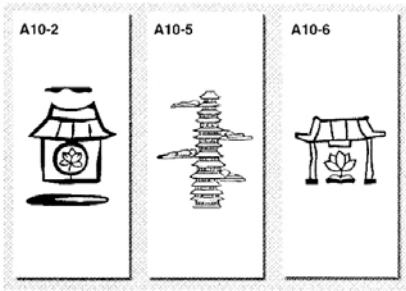
내부그림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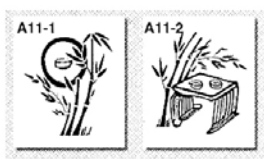
색상 : 자주색
재질 : T/C (면 혼합)
가격 ₩ 5,000
(100장 이상 주문시 원하는 인쇄 가능)

기도포



A10-2 A10-5 A10-6

대(大)
기장 84㎝ 폭 39㎝
가격 ₩ 1,600



A11-1 A11-2

다포

기장 : 50㎝ 폭 39㎝
재질 : 면
가격 ₩ 800
※ 원하시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100장 이상 주문시)

단주 열쇠고리

다양한 칼라 디자인



A9-1

가격 : 낱개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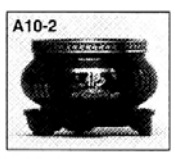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맑은 종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제품입니다.(종에 반야심경 인쇄)

가격 : 낱개 ₩ 9,000



A9-2



A10-2

반야심경 향로

청동제품으로 향로 주위에 반야심경 경전 문구 인쇄

가격 : ₩ 25,000

※ 법보시 하실 경우 할인 가능합니다.

금속 수공예 액자

지장보살께서 과거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친히 받으신 츰부다라니(중생의 온갖 지혜, 건강, 재보, 수행력, 수승한 진리 등의 힘을 증진시키는 다라니)를 범오 선생이 일심으로 염(念)하며 수공으로 직접 제작한 작품



※ 선택사항 : 수공예 작품이므로 다량 주문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A8-1
재질 : 동
특징 : 수공예 작품
가격 : ₩ 45,000

- 불보살의 가피력이 항상 함께 합니다
- 늘 마음에 새기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되며 불심이 돈독해 집니다
- 결혼하는 분에게 선물하면 부처님의 인연을 맺어 주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 현대적 감각에 맞아 집안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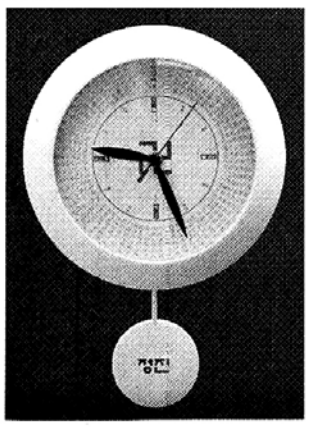


"7년 묵은 병에 3년 묵은 **쑥**을 먹어라" (중국 철학자 '맹자')

- 해풍에 3년 말린 사자발 약쑥 액기스 -

- 피부미용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으며, 술·담배 많이하는 남성은 더욱 좋습니다.
- 1팩으로 쑥탕의 느낌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술제휴 한의학박사 한택현 (前명지한방병원장) - **가 격:₩ 50,000 (100 g × 60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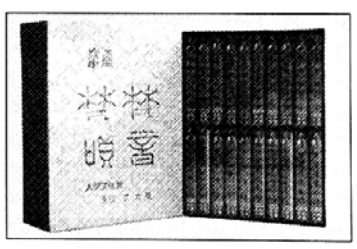
육바라밀 벽시계

항상 보는 시계에서, 정진의 힘을 얻는다!

색상 : 백색원판에 4도칼라
크기 : 200×260×60㎜
원판내용 : 육바라밀, 보왕삼매론
가격 ₩ 15,000

※ 50개이상 주문시 원하는 경전문구 삽입 및 디자인 해드립니다.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인간문화재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 테잎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되었습니다.

가 격 : ₩ 50,000

1. 불공의식
2. 심신이운
3. 신장청 · 신중권공
4. 상단청
5. 상단권공 · 거목
6. 대령 · 관욕의식 I
7. 대령 · 관욕의식 II
8. 대령 · 관욕의식 III
9. 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 영산작법 I
11. 영산작법 II
12. 영산작법 III
13. 영산작법 IV · 지장청사 I
14. 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 지장권공 II
16. 전시식
17. 배송
18. 운심게
19. 법사이운 · 명전점안
20. 종성 · 천수작법 · 요잡

법회안내



관응스님(김천 직지사 조실) 오전 11시 직지사 관음재일 법회. (0547)436-6174



인환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3일 오전 10시 정릉 동산선원 제8회 창립법회 및 정토법회. (02)943-1206



지암스님(불광사 주지) 매월 세째 토요일 오후 8시30분~일요일 오전 4시까지 구도정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청년법회. (02)413-6060



박완일법사 9일 오후 7시 전남 순천 대승사 불교청년회 법회. (0667)744-4902



목정배 교수(성철선사상연구원) 25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선문정로〉 강좌. (02)265-5215

한순옥무용가(아미타춤무용단장) 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동산법당 3층 아미타불춤법회. (02)732-1206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9월10일 (목)

■**무안 연꽃대축제**=13일까지 제2회 무안 연꽃대축제가 백련사에서 열린다. 백련사는 세계최대의 백련서식지 무안회산방죽을 불교성지로 조성하는 불사도 추진중이다. (0636)450-5224

■**전국비구니회관 기공법회**=오후 2시 강남구 수서동 건립부지에서 전국비구니회관 기공식법회가 봉행된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이 법문한다. (02)733-5467

■**주왕암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오전 7시 주왕산 주왕암 철야 정진과 고운사 참배를 떠난다. (02)279-1191

■**태고종 충북종무원 포살계 수계법회**=오후 2시 청주 국민생활관에서 충북종무원 산하 각 사찰 신도 및 불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02)745-1614

■**성각스님 선서화전**=국제신문사 주최로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15일까지 전시한다. (051)500-5114

■**고순호법사 출판기념법회**=오후 4시 국제신문 사옥 24층 크리스탈뷔페에서 〈제번역본 비교 주해 금강반야바라밀경〉출판 기념법회를 갖는다. (051)462-3427

■**남북통일 및 실업자대책위 한마음 기원대회**=오후 7시 광주 무등파크 다이아몬드실에서 실업자를 위한 토론 및 기금마련을 위한 한마음 기원대회가 열린다. (062)228-7660

9월11일 (금)



◇우리의 전통과 현대문화의 장을 펼칠 경주문화엑스포가 개막된다. 사진은 개막식 행사 연습장면.

■**경주 문화엑스포 개막**=12일까지 경주일대에서 '새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문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0561)745-1244

■**서울불교청년회 운영위 법회**=오후 7시 만해교육관에서 서울불청의 선후배들이 함께 청년불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는 법회를 갖는다. (02)730-9108

9월12일 (토)

■**동산불교 하반기 의식교육**=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동산법당에서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하반기 의식교육이 실시된다. (02)732-1206

■**전북 전주지역 포교사 연수**=오후 4시부터 13일 오전 11시까지 전북 전주지역 포교사 연수교육이 금산사에서 실시된다. (0658)548-4441

9월13일 (일)

■**청화스님 초청법회**=오후 2시 부산 KBS홀에서 대한불교사경회주최로 법회가 열린다. (051)554-7535

■**김종표씨 사진전**=16일까지 동숭동 예총화랑에서 '김종표 사진이야기-와우정사'가 열린다.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 30여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0331)203-6833

■**삼대 미륵 참배**=용진항공여행사는 국내 삼대 미륵성지인 관촉사, 미륵사, 금산사를 참배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한다. (02)279-1191

■**맑고향기롭게 연천 고대산 산행**=오전 9시30분 경기도 연천 고대산으로 산행을 떠난다. (02)741-4696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합동법회**=오후 8시 강화도 보문사에서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 금융불자인 발전을 위한 합동 기원법회를 갖는다. (02)398-6464

9월14일 (월)

■**제17회 불교미술대전 작품 접수**=19일까지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에서 접수한다. (02)739-1830

9월15일 (화)

■**통도사 부산포교원 무료급식**=영광도서 앞에서 무료급식을 시작한다. (051)816-2241

■**정태혁박사 논총 출판기념회**=오후 5시 동국대학교 문화관 그릴에서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출판기념회 및 강연회를 갖는다. (02)260-8701

■**불광 입문과정 교육 15기 개강**=불상사 불광입문과정 15기 교육이 24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12에 열린다. (02)413-6060

9월16일 (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자 교육**=10월 21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조계종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자원봉사자와 간병활동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02)723-5101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 수륙영산대재**=오후 1시 녹두광장 기념법회와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02)745-1614

게 시 판

♣ 인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지역개발대학원장 김영종 △법정대학장 우성기 △상경대학장 이시영 △이부대학장 윤진호 △교무처장 이계영 △학생처장 이준성 △도서관장 이갑득 △정보관리처장 임재걸 △여학생부처장 박명숙 △학술연구부장 고창택 △외국어교육원장 정내원 △컴퓨터교육원장 조영석 △동대신문사 부주간 심규박 △교육방송국장 이연환 △정각원교법사 정무환 △금장생활관장 김복순

명성여고 △교장 우하수

동대부중 △교장 이원주

♣ 알림

△전화번호 변경=불암사 전화번호가 최근 (0346)527-8345번으로 변경됐다.

△방과후 교실=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0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연다. (02)571-2988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육=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1시~2시30분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개인별 진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상담후 등록. (02)852-0525

△IMF실직자 가정자녀 돕기 알뜰장=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25일~26일 오전 10시~오후 5시 복지관 앞마당에서 IMF실직자 가정자녀 및 결식 아동 돕기 은행골 알뜰장을 펼친다. (02)806-1376

△중리복지관 헌혈캠패인=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12일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단, 마산 삼성병원 사랑리 봉사단과 함께 헌혈캠패인을 벌인다. (0551)231-8017

♣ 모집

△알뜰시장 의류 물품=개금증합사회복지관은 11월 열 예정인 알뜰의류시장을 위한 의류 및 생활스품후원을 받는다. (051)893-5034

△금화사 불교대학=금화사 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7시에 6개월 과정의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실시한다. 개강은 16일부터. (051)582-3042

△한국불고통신대학=한국불교통신대학은 기초교리과정, 전문교리과정, 연구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02)969-2410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는 제 10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 과정을 개설했다. 찬불가, 리더쉽, 싱어롱, 무대꾸미기, 특수효과, 캠프, 레크댄스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지도한다. 22일부터 12월 말까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02)738-7860

♣ 답사

△봉평문학기행=국토문화연구회는 13일 오전 7시 30분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현장을 찾아서 봉평문학기행을 떠난다. 소설의 무대가 된 물레방아, 흥정천, 봉평허브나라 농원 등을 들른다. (02)275-4333

♣ 이전

△도서출판 열린불교(대표 이영근)는 8월31일 서울 견지동 54 우일빌딩 6층으로 이전했다. (02)739-0108

♣ 화촉

△본사 취재 1부 이은자 기자가 19일 토요일 오후 5시 고척동 동양공업전문대학 5층 강당에서 이강희교수와 화촉을 밝힌다.

종 단 소 식

조계종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

교육원(원장 암도)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교무국장 회의를 갖는다. 불기 2542년 본말사 주지연수 평가와 2543년 본말사 주지 연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금하선원 108불 점안

금하선원(주지 청암)은 20일 삼존불 및 108불 준제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또 20일부터 10일간 큰스님초청 정진법회를 갖는다.

정진법회에는 자용(수국사 주지) 암도(교육원장) 성응(남장사 주지) 성타(불국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목정배 동국대 교수, 박완일 전 전국신도회장 등이 초청된다.

태고종

9~11일 승려연수교육

총무원(원장 인곡)은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 일정을 9~11일로 앞당겨 갖는다.

총무원은 이번 연수교육에서 수행력 제고를 위한 정진과 대중생활, 종지종풍, 신도조직 관리와 교화방법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종무원 교무국장회의

총무원(원장 인곡)은 1일 서울 종무처에서 교구종무원 교무국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종무원 신도회 임원 2명을 전국신도회 이사로 영입키로 하고, 신도회가 없는 곳은 신도회 구성을 독려키로 했다. 또 비구니회가 창립되는대로 태고사 내에 사무실을 마련, 비구니회 운영을 돕기로 했다.

천태종

삼문사 재건축 기공

대전 삼문사(주지 세운)는 8월22일 대전불교 중심사찰로 거듭나기 위해 재건축 기공식을 가졌다. 운덕 총무원장을 비롯 지역 말사 주지스님, 이양희 국회의원과 신도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공식은 시삽, 법어, 경과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륙영산재 · 예수재

총무원(원장 운덕)은 17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입재는 17일 오전 9시이며, 동참금은 수륙영산대재 20만원 생전예수재 10만원이다. (02)233-6210

진각종

관행유치원 확장불사

관행심인당(주교 경당)은 4일 관행유치원 확장 신축지진불사를 가졌다.

관행심인당은 그동안 4개 학급을 운영하며 1백여명의 원생을 수용해 왔으나 해마다 늘어나는 원생들을 수용하지 못해 고민해오다 1천6백38평의 부지에 1백50평 규모로유치원을 신축키로 하고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심인당은 지상 2층의 유치원에 여섯 학급과 식당, 놀이방 등을 증설할 계획이다.

종조법전 편수 회의

교육원(원장 일정)은 24~25일 동리원 회의실에서 종조법전 편수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조 법어록 발간에 따른 종조 어록 및 교학 정리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총지종

총인원 내 결혼상담소



전국신도회 서울 경인지구(지회장 민혜경)는 2일 결혼상담소를 총인원 내에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총지화 통리원장, 효강 법장원장, 서울경인지구 스승, 신도 등 3백 여 명 이 참 석 했 다. (02)553-0770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청송스님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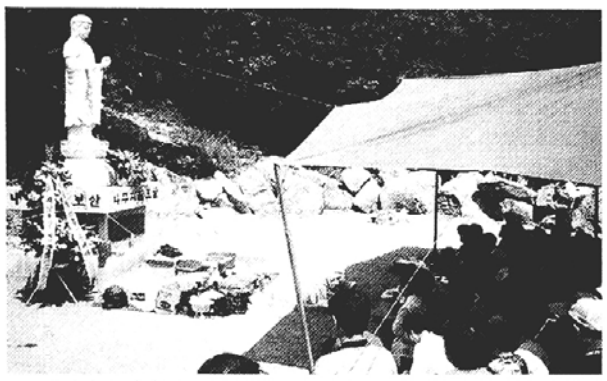
임시중앙종회가 8월26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종회의원 40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종회에서는 그동안 공석이던 총무원장에 청송스님(청송사 주지)을, 종회의장에 동명스님(관음사 주지) 부의장에 명종스님(청명사 주지)을 선출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통일 되는날 지장사 복원"



◇경기도 연천 보개산 지장암은 8월30일 지장보살상을 점안하고 마지막 법회를 봉행했다.

연천 지장암 8월30일 마지막 법회

신라~조선초 '영험있는 지장도량' 명성
군사지역 이유 철거…지장보살상 봉안

"남북이 통일되는날 지장사지 복원 기공식을 갖겠습니다."

8월 30일 연천 보개산 지장암(주지 수법)에서 마지막법회가 열렸다.

지장암은 절터만 남아 있어 수법스님이 대웅전과 산신각등의 가건물을 짓고 사지복원 불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부대 사격장과 인접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사찰을 철거하고 이날 마지막법회를 봉행하게 된 것이다.

지장사는 신라 범일국사가 창건한 지장 영험도량으로 이름이 높았던 사찰. 목은 이색이 지은 '오언율시'와 '보개산 지장사 중수기'에서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까 상당히 번창했던 지장도량이었음을 알게해 준다. 재미있는 전설도 전한다. 고려시대 자혜대선사가 증수하고 주석하며 홍년이 들자 사찰에서 나오는 백토를 이용하여 어려운 백성들에게 국수를 말아주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지장사 터에서 환희봉 정상을 보면 여섯분의 부처님의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하여 무학대사가 영주산에서 보개산으로 산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지장사 마지막 법회에서 주지 수법스님은 "보개산 인근에 임시로 지장사를 지었다 남북이 통일되는 날 복원불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서운한 마음을 비쳤다. 월운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 사부대중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얼린 이날의 마지막 법회는 지장보살입상 봉안식에서 절정을 이뤘다. 불자들은 남북이 하루빨리 통일돼 지장사지가 복원되기를 기원하며 지장보살 정근을 했다. 이날 지장사지 법당터에 세워진 지장보살입상은 높이가 5m이며 지장사지 복원을 염원하는 지역 불자들의 원력으로 조성된 것이다.

법회에서 월운스님은 "첩첩산중이고 군사지역인 이곳에 와서 비구니스님들과 여러 신도들을 보니 묵은 도량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다"며 "5일 우란분절을 앞두고 지장신앙의 원력이 깃든 이곳에 통일을 염원하며 지장보살을 세우게 된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법스님과 연천지역 불자들은 매달 지장재일날 지장암 지장보살에게 다례를 올리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경남통영 '연화사'



◇8월31일 창건법회를 연 연화사는 일주문과 천수관음전 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다.

연화·사명대사 수행터 새단장

고산스님이 불사 원력
대웅전 요사채 완공
천수관음전도 지을 계획

"'욕지연화장(慾知蓮華藏) 두미문세존(頭尾問世尊)' 이 게송이 욕지도, 우미도, 세존도, 문도 등 주위의 섬이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직감했습니다. 무작정 연화대사와 사명대사의 토굴터를 찾아 연화도에 왔다가 인연이 되어 사찰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고산스님(쌍계사 주지)이 들려주는 연화사(주지 도응) 창건의 계기이다. '연화장 세계 즉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알려거든 처음과 끝을 세존에게 물어보라'는 게송처럼 연화사는 연꽃 봉우리격인 산세 가운데 단정히 앉아 연화장 세계를 활짝 펼쳐 보이게 된 것이다.

4백년전 연화도사가 세 비구니와 함께 수도하다 열반에 들고 유언에 따라 수장되자 한송이의 연꽃으로 변해 승화하였다 하여 유래한 섬이름 연화도. 경남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24km 해상에 위치한 그 연꽃섬(연화도) 가운데 연화사가 창건됐다. 창건과 함께 연화도사에 얽힌 4백년전 역사도 되찾게 된 것이다. 연화도사, 사명대사, 자운선사 등 이 섬에서 수행한 옛선사들의 맥을 잇는 가람인 연화사 봉불 낙성식이 8월 31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됐다.

연화도의 유일한 사찰인 연화사는 1천3백여평에 연건평 1백20평 규모의 대웅전을 중심으로 요사채 2동 석가여래진신사리비, 연화사 창건비, 8각9층탑 등이 대칭을 이루고 서녘을 향해 나아가는 반야용선의 형상을 하고 있다.

망망대해에 솟은 연화사는 연화대사와 사명대사의 토굴터 등 곳곳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들을 이으며 신심깊은 불자들의 새로운 기도도량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전과 요사채 건물 불사를 마치고 일주문 불사에 매진하고 있는 주지 도응스님은 "고산스님께서 연화도 초행길에 발견한 샘터에 천수관음전을 세울 계획"이라며 "앞으로 3백여 섬주민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는 정진도량 기도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실직자·무의탁노인·장애인에 무료급식

대구에 '희망의 집' 개소

대구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는 11일 대구시 남구 이천동 동사무소에 실직자와 무의탁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무료급식소 '희망의 집'을 개소한다.

50여평 규모의 '희망의 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12시에 남구 '희망의 쉼터'에 등록된 실직자(전체 등록인원은 5백여명) 3백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노인과 장애인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이다. 또 매주 금요일 낮12시에는 지역내 노인이나 장애인, 실직자 등에게 급식을 실시한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무료급식소 주방에 필요한 대형 싱크대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등 물품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다.(053)476-663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공스님 달마도 전시

경남 사천 모은사 연화불교회(회장 이현중)는 소년소녀가장 돕기 '현공스님 달마도 전시회'를 10일까지 모은사 대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청소년 가장을 돕는데 써 달라며 달마상 3백여점을 기증한 모은사 주지 현공스님의 뜻에 따라 마련됐다. 도필선 기자



문화엑스포 지원단 발족

동국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는 2일 경주캠퍼스 진흥관 3층에서 '경주엑스포 관광지원단'(단장 서태양) 발대식을 개최했다. 33명의 교수와 재학생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세계민속공연단 안내 및 동역서비스 △PC 통신을 통한 홍보 △5대의 전용전화를 통한 관광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용전화번호는 (0561)770-2277, PC 통신은 천리안 GO GJOUR, 하이텔 GO EXPO98, 유니텔 GO EXPO, 나우누리 GO EXPO98.

이윤호기자(yhlee@buddhapia.com)

원로시인·독립운동가

박희선거사 입적



원로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야석 박희선거사가 8월 29일 숙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76세. 박거사는 전북대 교수를 지내는 등 후학 지도와 함께 〈선의 탐구〉〈에세이 반야심경〉〈금강경〉 등 많은 불교서적을 펴내며 수행에 몰두해 왔다. 유해는 31일 화장되어 충남 논산 지장암에 봉안됐다.

"IMF 실업자 위해 써주세요"

재소자가 변호사비용 5백만원 쾌척

교도소에 복역중인 한 재소자가 IMF 여파로 인한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전해달라며 변호사 선임비용을 내놓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임모씨(28). 임씨는 1일 광주교도소를 찾은 무선스님(옴니선원·실업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실업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2심 재판 변호사 비용 5백만원을 전달하고 실업자대책위원회 회원에도 가입했다.

임씨는 신문을 통해 실직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참회하는 뜻에서 보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를 면회한 무선스님은 "수감이후 불교의 인과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느끼고 기금을 내게 됐다"고 전하며 "이런분들이 있는 한 실직자들의 실업극복의지가 한층 고양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광주실업자대책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실업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쉼터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임씨는 2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폐교지에 청소년수련원

광주 덕명사 12월 개원

광주 덕명사(주지 무등)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인수해 어린이·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소재 봉황서초등학교 덕곡분교를 인수한 덕명사는 현재 최종 인수 절차를 밟고 있다. 덕곡분교는 대지 1천5백여평에 1백평규모의 교실건물 1동, 부속건물 5동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덕명사는 기존의 시설들을 이용, 법당과 수련관 등으로 개조한다는 방침이다.

덕명사는 15일부터 개조 불사에 착수, 12월 개원법회를 갖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수련회장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불교어린이 지도자회장을 맡고 있는 무등스님은 "광주를 비롯 전·남북 지역에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마땅한 수련시설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새싹불자들의 정서및 신심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련관을 꾸밀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광주 대불청 체육대회

대한불교 청년회 광주지구(지구장 이주성)는 13일 조선대학교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게 될 이번 체육대회는 청백팀으로 나눠 기마전, 씨름 등의 전통놀이와 축구 배구등이 진행된다.

김중근 기자

충무정사 종각 낙성

9군단 전주 충무정사(주지법사 이동배)는 8월 30일 종각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천운 향림사 주지, 도영 금산사주지스님을 비롯 3백여명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양로원서 목욕봉사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본부장 박수관)는 8월26일 온천동 애광 양로원과 요양원에서 목욕봉사활동을 펼쳤다. 맑고 향기롭게 부산본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욕보조, 손톱다듬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앞서 부산본부는 8월 23일 범어사 주변 금정산 가꾸기 자연보호활동을 펼쳤다.

천미희 기자

수덕사 경허·만공선사 유품 모집

성보박물관 11월 개관

"경허스님과 만공스님 유품을 찾습니다."

덕숭총림 예산 수덕사(주지 법장)는 성보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경허, 만공선사를 비롯한 덕숭산 선사들의 유품을 모집 중이다.

수덕사는 말사에 소장된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통해 성보유실을 막고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95년 성보박물관 공사를 시작한 이래 오는 11월 3여년만에 개관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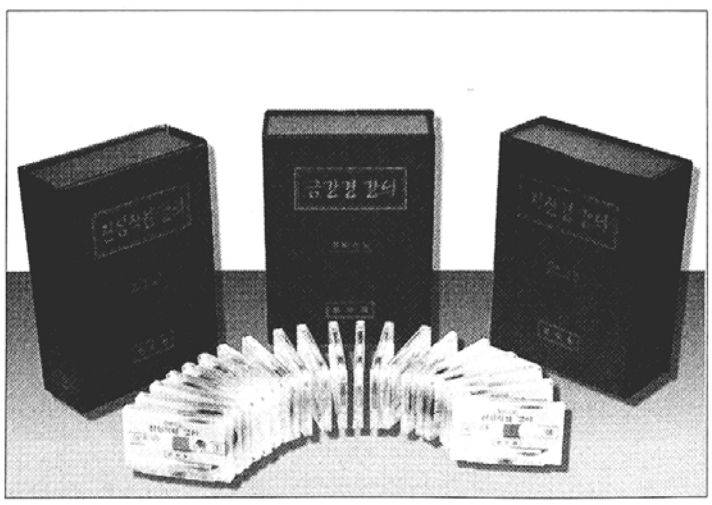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실업자 기금마련 한마음 기원대회

남북통일 및 실업자대책위원회(위원장 무선)는 10일 오후7시 광주시 무등파크호텔에서 한마음기원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실업자 100만명 구제 방법론을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중근 기자

無比스님 경전강의 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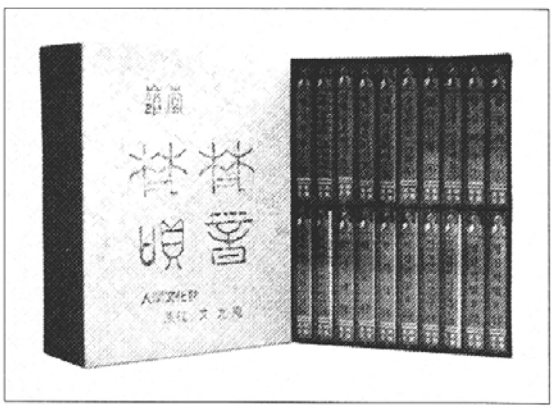
무비스님의 경전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수 있다면
혼잡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꼭 들어 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지장경·진심직설 - 무비스님 직접강의

● 금 강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지 장 경 강의 : 테잎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20개 ₩45,000

● 구입문의 : 02)732-1522 ●

문구암스님
범음·범패집



▶ TAPE 목록

①불공의식 ②삼신이운 ③신장청·신중권공
④상단청 ⑤상단권공·거목 ⑥대령·관욕의식Ⅰ
⑦대령·관욕의식Ⅱ ⑧대령·관욕의식Ⅲ
⑨영반·복청소리·대천수소리 ⑩영산작법Ⅰ
⑪영산작법Ⅱ ⑫영산작법Ⅲ ⑬영산작법Ⅳ·지장청사Ⅰ
⑭지장청사Ⅱ·지장권공Ⅰ ⑮지장권공Ⅱ ⑯전시식
⑰배 송 ⑱운심게 ⑲법사이운·명전점안
⑳종성·천수작법·요잡

큰스승 문구암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카세트테잎 1질(가격 ₩50,000)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대령, 관욕의식등 분야별로 녹음

● 구입문의 : 02)732-1522 ●



그림: 박구원

IMF이후 사찰 새 풍속도

혼자 법당찾는 신도 늘고
시주금 대신 과일이나 쌀로
공양시간 홈리스족 '북적'

사찰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장기적인 IMF 경제한파와 실업자의 증가가 사찰의 신행풍속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각종 재일이나 장기 기도법회에 접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당을 찾아 기도를 하는 예가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또 개인불공을 원하는 둘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찰의 시주금 감소로 이어져 사찰 운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 대부분 사찰의 현황이다. 시주금 대신 과일이나 쌀 등의 공양물을 들고 절을 찾는 불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사찰의 각종 불사가 주춤해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특히 대형불사를 해 온 사찰의 경우 아예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찰의 경우는 건축불사 대신 불사원만성취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불자들의 긴축불공으로 사찰 운영이 어려워진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건달형홈리스들이 사찰로 몰려드는가하면 좀도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적절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홈리스들이 사찰을 찾아 주위를 배회하다 공양시간이 되면 후원으로 찾아 든다는 것. 심지어 주지스님 방까지 찾아와 "차비를 달라. 밥을 달라"는 등 행패까지 부리는 경우도 있다. 불전함, 가전제품 등을 도난당하는 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회날 사찰입구에 난전을 펴는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양주등 사찰의 소임을 자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경제불황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다.

이같은 기류속에서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하는 사찰들도 변화하는 풍속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무료급식소 운영, 장학금 전달 등 실업자 구휼사업을 실시하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련회, 쉼터, 귀농학교와 국난극복 기원법회 등을 잇달아 열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뉴스 & 뉴스

해인사 수다라전 보수 '끝'

해인사 팔만대장경 장경판전 가운데의 하나인 수다라전 기와 보수가 마무리됐다.

3월부터 시작된 수다라전의 기와 보수는 수다라전에 덧집을 씌우고 연목 96%와 기와 전부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해인사는 10일경 수다라전의 보수가 끝나는대로 법보전과 동서 사간고 해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지연 기자

정혜사지 석탑 도굴훼손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위치한 국보 제40호 정혜사지 13층 석탑의 보조기단석과 옥개석 등이 도굴범에 의해 훼손돼 당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도굴사실은 2일밤 탑 옆을 지나던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석탑 주변에 나무지렛대 등 도굴용 장비가 흩어져 있고 탑 기단부 일부가 떨어져 있었던 것. 경주시 사적공원사무소는 주민의 신고로 진상파악에 나섰다.

강지연 기자

18일 민주열사 추모재

민족민주 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재가 18일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이날 천도재는 민족민주 열사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9일 조계사에서 개최하는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전야제에서 불교행사로 열리는 것으로, 민족민주열사들을 애도하고 산자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범불교 합동 천도재 준비위원회(집행위원장 진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민족민주열사를 위한 천도재를 해마다 정례화하고 공식화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직지사 학인 10명 장학금

직지사(주지 녹원)는 1일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강원 학인 스님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혜자를 수행이 청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스님으로 한정하고 이는 직지사는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 대학재학 스님에게는 90만원, 강원학인 스님에게는 30만원씩을 10명에게 각각 전달했다.

도필선 기자

징계 무효소송 '최종기각'

황종진 스님등이 대법원에 항소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은 8월 26일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유력 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종진 스님등은 96년 4월 15일 조계종이 내린 치탈도첩 등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의 이번 기각으로 조계종 개혁회의 이후 제기된 개혁종단의 적법성 시비는 일단락 됐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대중불교' 복간 움직임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
'1만원 후원금 통장갖기'

월간 〈대중불교〉 복간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건기 전북불교대학장(전북대 교수), 김용직 전국신도단체협의회장, 송춘희법사 등 불교지도자 70여명은 8월 29~30일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대중불교결사 제9차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1구좌(1만원) 이상의 후원금통장 가입하기' 등 대중불교 복간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대회 준비위원으로 참석한 이건호 방생법회 회장은 "이달중 복간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복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82년 11월 첫 호를 낸 〈대중불교〉는 지난 5월 재정난으로 통권 186호를 발행하고 휴간에 들어갔다.

한편 대중불교결사 제9차 전국대회 참석자들은 대회를 회향하며 △참회의 생활화를 위해 매일 108배를 한다 △각 단체마다 월1회 대중불교결사 법회를 봉행한다 △대중불교운동 협의기구를 10차 대회 이전까지 구성한다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교계 장기기증운동 '생명나눔실천회'로 업무 일원화 될듯

앞으로 불교계 장기이식 관련업무는 유일한 보건복지부 등록단체인 생명나눔실천회에서 관장하게 된다. 안구·심장 등 장기기증관련 업무를 대행해 오던 새생명광명회와 감로심장회, 대원회 등 여타 교계 장기이식 관련 단체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의정국 의료정책과) 산하 생명윤리위원회가 장기이식관리본부를 두고 장기이식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을 총괄관리한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보현사 훼불 사과합니다"

범인다니던 교회목사 보현사에 사과편지

충주 보현사 훼불사건과 관련 범인 오모씨가 다녔던 청주 큰빛교회 김안식 목사가 1일 보현사 주지 원봉스님에게 직접 작성한 사과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목사는 편지에서 "훼불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주지스님의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목사는 특히 "피의자 오모씨는 지난 4월 병원 위문과정에서 인연을 맺게돼 자신의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8월부터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훼불소식에 안타까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北 함경도서 '발해 절터' 발굴

청동불상·돌부처 출토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 하호리에 있는 청해토성 서남쪽 10㎞ 지점인 금호지구 오메리에서 발해 절터가 발굴됐다고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우리나라 영역 안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발해절터는 동서 약 2백m, 남북 약 3백m 되는 곳에 4개의 건물터가 있고, 4각탑터에서는 동판 청동불상 돌부처 도기 조각 등이 나왔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1980년부터 10여년간에 걸쳐 발굴작업이 진행됐던 청해토성은 장방형으로 둘레는 2천1백32m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파라미타 '유해환경감시단' 발족

봉사단 1백명 모집…고발창구도 운영

지난달 18일 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현근)는 20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8일 각 지부·지회·종립학교·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10일 신청자들에서 심의를 거쳐 감시단원 1백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관할 지역의 유해업소를 색출·지도할 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캠페인도 전개한다.

파라미타 중앙 사무국은 감시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시 고발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 이 곳에 고발된 업소 및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고·계도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법경스님(파라미타 사무총장)은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과 정부 그리고 상업주의에 길든 기업가들 사이에 위치해 청소년들이 인간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쳐 성숙한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東大 불교아동학과 내년부터 학부제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내년부터 불교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가칭) 인간과학부'로 묶어 학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학부제 적용을 배제해 왔던 특수대학과 중 불교아동학과 등 4개학과에 대한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아동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불교아동학과와 사회복지학과는 학문적 연계성이 없어 전공의 특수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측은 "학부제는 교육부의 강력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평가와 사립대학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없다"며 학부제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목탁소리

고도보존법 지지부진

강지연 〈취재2부 기자〉

경주는 11일부터 두 달 동안 열리는 세계문화엑스포로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에밀레 종소리와 에밀레 춤을 시작으로 개막된 엑스포 기간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유적, 민속공연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도 경주의 신라문화를 다양한 행사로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세계문화엑스포 때문에 화려하게 장식되는 경주를 보는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이 아프다. 천년 고도 경주 자체를 경주답게 만들고 경주에 있는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보존법 제정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고도보존법은 경주 부여 공주 등 역사성이 깊은 도시를 고도(古都)로 지정해 그 지역의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탈리아나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고도보존법을 마련해 시행하며 고도를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발우선이라는 정치와 지역논리 등으로 인해 고도보존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보호 보존은 뒷전에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지난해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입법을 추진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입법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문화관광부는 민간에서 고도보존법 제정 건의가 들어오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이다. 정작 고도보존법 제정에 앞장서야할 경주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경주시의 입장과 재원확보의 어려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고도보존법의 조속한 제정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여러 여건에 밀려 고도보존법 시안이 책상 속에서 잠자는 동안 경주의 훼손은 무차별로 가속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jygang@buddhapia.com)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허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준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킨것입니다.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범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입 문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반야경/혜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들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들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잡된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파되어 있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슈리푼다의 '참나' 찾기



■무엇이 깨달음인가/슈리 푼자 지음

그대는 불타고 있는 나무 위에 앉아 있다. 하지만 어째서 그대는 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그대는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인도의 수행자 슈리 푼다는 〈무엇이 깨달음인가〉에서 참나로 돌아 올 때, 이것이 깨달음이요, 해방이요, 자유임을 말한다. 그리고 깨달음은 곧 마음의 고요이며, 마음의 고요는 실재와 실재 아닌 것을 구분하는 탐구와 집중, 명상 등 여타의 수행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용어를 풀이해 부록으로 달아 놓아 이해를 도왔다. 김병채 교수(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늘출판사 8,500원 (02)720-0311

에 세 이

마음 찾는 아름다운 단편들



■그 마음을 바쳐라/김재웅 지음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법. 팔진치 삼독심이 비린내라면 밝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은 향내일 것이다. 과연 내게선 어떤 냄새가 날까를 생각한다면 그 해답은 명약관화.

그러나 앉고 있어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이 책이 그 의미를 찾게 해준다. 삶에 대한 회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갈등 등 인생의 아픔은 누구나 겪는 일. 단풍이 아무런 고통없이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을까. 밝음의 세계도 그와 마찬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단편이 단풍처럼 걸려 있다. 그 단풍의 주인은 바로 독자들.

용화 7,500원 (02)720-9372

삶속의 짧은 얘기 긴 감동



■방랑시작/재연스님 지음

"큰스님 분가루는 왜 바르세요" "못난 중생들이란 그저 상을 취하는 법이어서…" "못난 중생들 속에 분가루로 검버섯을 감추시는 스님도 들어갑니까." 되물은 사미는 무뭇 치켜든 큰스님의 흰 눈썹에서 고양이의 송곳니를 본 후 묵묵히 산문을 나섰다. 저자의 방랑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지금 쉬선과 허위로 가득찬 세태를 풍자한 이야기로 시작해 삼십년 수도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의 순간들, 그리고 삶의 지혜를 서정적으로 풀어냈다. 길고 짧은 여러 이야기들의 감동이 긴 여운을 남긴다. 인도의 여러 성지를 직접 순례하며 느낀 것을 현시불교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한 것이 특이하다.

문학동네 6,500원 (02)765-6510

기 타

존재의 빛을 보여준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선화(禪話)/리즈니쉬 지음

"그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자 같았다.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렸다. 그에게는 고타마 붓다와 같은 우아함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남아있다. 그 힘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이다."

리즈니쉬는 달마대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달마대사의 메시지는 붓다와 같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달마대사와 그 제자와의 선문답.

질문자는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들고 있는 횃불에 달마대사가 기름을 부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기름을 부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바람을 잡는 웃음소리로 하여 횃불에 찬물을 끼얹는다. 달마대사가 가르치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터오르는 존재의 빛.

관음출판사 5,000원 (02)720-8434

스승이 준 가르침 함께 나누기



■닦는 마음 밝은 마음/김재웅 지음

누구나 앞을 수 없는 스승은 있다. 부처님을 시봉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 준 스승이라면 어찌 잊을 수 없다는 한 마디 말로 그 은혜를 말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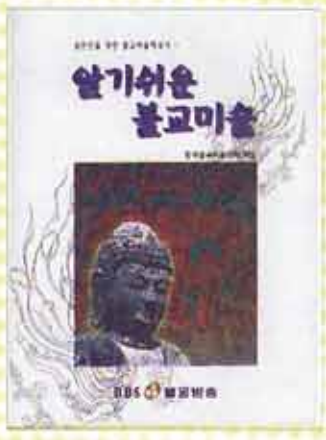
저자는 그 은혜를, 그 가르침의 심오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살아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스승인 벽성묵 전 동국대 총장이 평소 법문한 것을 모으고 여기에 자신의 소견을 덧붙인 단편 모음집.

현재에 진실하고 밝은 마음을 닦아라, 복을 많이 짓고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을 밝혀라. 그리고 그 마음을 모아 부처님께 바쳐라.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주고 받았다. 마지막에 마음을 박아서 주고 받듯이.

용화 6,000원 (02)720-9372

금주의 추천도서

알기 쉬운 불교미술로의 여행



■알기쉬운 불교미술/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 년. 그와 더불어 불교미술도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으며, 우리 나라 전통미술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널리 조성되고 봉안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리에 해박한 불자들이라도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현재 활동중인 불교미술 작가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인들의 불교미술에 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탑, 석조물, 법구 등에 대해 주요사찰과 국보급 문화재를 엮선,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도면을 제시했으며, 명호도 알기 쉽게 표현했다.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의 교리적 배경과 조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불서총판 운주사 값 9,000원 (02)720-9372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
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ania!

명상말씀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독경



· 송강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 TEL: (02)745-6015
· FAx: (02)745-6017

협 · 찬 · 사

OMNI RECORD 옴니레코드

불교음반기획제작
불교음악, 법문 기획 제작.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베스트

재미 · 감동 줄 금강경 체험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윤율순 지음.

금강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활화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생활 속의 지침서다. 자신의 체험과 정의 내용에 알맞는 실감나는 다양한 실례, 그리고 상세한 설명이 한데 어우러져 재미와 감동을 준다.

"내용이 하우면서도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남김없이 표현하고 있어,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금강경을 독송해보고 싶은 마음이 날 것"이라는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의 추천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저자 자신이 시련과 허무를 딛고 금강경 속에서 찾은 삶의 진실과, 80년 인생경력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차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신우당 8,800원 (02)277-5955

죽음으로 본 삶의 해답◆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명란자 지음

역사 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을 떠났다. 거기에서 세네카의 네로, 광해군과 마지막 황제 푸이, 소크라테스와 공자, 무보와 김삿갓, 모차르트와 슈베르트, 등소평과 스탈린 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 1백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되찾는다. 죽음기행의 종착역은 다름 아닌 영정적인 삶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삶을 가장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름아닌 죽음. 남은 생을 생각해 보라. 눈물이 나지 않는가. 이처럼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요즘같이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더불어 느낄 수 있어 금상첨화다.

세훈출판사 7,000원 (02)3462-2277

선지식이 남긴 살아있는 교훈



■스님의 맨발/한승원 지음

쌀 한 자루를 짊어진 어린 상좌가 문득 어느 집에 들어가 탁발이를 하고 나오는 아낙에게 불쑥 입맞춤을 한 스님의 뒤를 따라 도망쳤다. 돛아오는 동네사람들의 사정권을 벗어난 스님과 상좌의 대화. "아직도 무거우냐" "부끄러운지 어쩐지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무겁다는 것은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허스님과 그의 제자 만공스님의 대화 속에 '일체유심조'의 교훈이 흐른다. 휴정 원효 보우 만해 한암 한영 성철스님 등 불교계에 커다란 자취를 남긴 선승 스물다섯명의 기이한 행적과 사상을 유려한 필치로 풀어냈다. 고승들의 선지식을 찾아 삶과 죽음, 애욕과 해탈에 관한 깨달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학동네 6,500원 (02)765-6510

쟁점 통해 불교사상 흐름 정리



■논쟁으로 보는 불교철학/이효걸 외 지음

젊은 불교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담아 논쟁과 비판, 대립과 갈등을 통한 불교철학의 발전사를 보여 주는 연구서.

불교는 인도토속사상과의 논쟁을 비롯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가·유가사상과의 조화와 반목, 한국에 들어와서는 유학과의 반목 등 수많은 논쟁을 거쳤다. 그리고 대승불교 내에서의 중관학과 유식학의 논쟁을 비롯해 교종과 선종간의 갈등과 조화 등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이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불교의 쟁점들'을 통해 불교의 현대적 적용 방향도 모색했다.

예문서원 10,000원 (02)925-5914

산사생활의 멋과 여유담아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나무불 스님 지음

경북 성주군에 있는 천상산 갈실도량에서 '소 먹이는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해)이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온이 있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음조리면서 청빈하고 선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향온을 준다. '세속을 떠난 무욕의 삶, 무위자연의 탈속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 산문집이지만 시집에 가깝다. 깊은 산사의 자연과 일상의 삶 속에서 자족(自足)하며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동안 잊고 살았던 또 다른 세상을 만나게 한다.

민족사 6,000원 (02)732-2403